
독립운동의 별★★, 지역에서 꽃 피우다♣♣

「충남 3.1만세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그리고 의열단 창설 100주년 기념 한중 국제 학술대회」

| 일 시 : 2019. 11. 8(금) 13:40 - 17:30

| 장 소 : 충남연구원 4층 대회의실

- ▣ 주최·주관 : 충남연구원,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 ▣ 후 원 :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목 차

□ 인물세션 1-1

- 유관순 일가의 3.1운동 주도과 유우석의 독립운동 ----- 1
-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 출신의 독립군 활동 연구 -충남 목천 출신 이장녕을 중심으로- ----- 11

□ 인물세션 1-2

- 고당 조만식의 삶과 항일독립운동 ----- 29
- 유관순열사 100주년 기념세미나 만족도 조사결과 ----- 47
- 인물세션 토론문 ----- 73

□ 지역세션 2

- 항일운동가(양세봉) 소개 및 지역예의 시사점 ----- 77
- 윤봉길 의사 독립운동의 지역 실천 방안 ----- 91
- 독립운동의 역사, 지역을 디자인 하다. : 중국 하북성의 사례가 충남도에 주는 시사점 ----- 103
- 지역세션 토론문 ----- 119

행사소개

1 행사 목적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충남지역 독립운동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이를 지역 차원에서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 한·중 간 항일독립운동의 역사 공유를 통해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가와 지역 간 연대와 협력 방안 모색
- 항일독립운동의 빛나는 역사와 문화 자원을 충남도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하기 위한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와 충남연구원 주관의 논의의 장 마련(독립역사와 지역정책의 결합)

2 행사 개요

- 일 시 : 2019년 11월 8일(금) 13:40-17:30
- 장 소 : 충남연구원 4층 대회의실
- 주최 및 주관 : 충남연구원,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 후 원 :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3

행사 일정

| 개회식 사회: 오혜정 부실장 (충남연구원) | | |
|-------------------------|--|-----------------------|
| 13:40~13:45 | 개회사 | 윤황 원장 (충남연구원) |
| 13:45~13:50 | 인사말 | 박종선 소장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
| 학술발표 | | |
| 13:50~15:00 (70') | <p><인물 세션 1-1> ----- 좌장: 박찬석 교수(공주교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1_ “유관순 일가의 3.1운동 주도와 유우석의 독립운동” 김명섭 교수(단국대학교) ○ 토론1_ 김기영 박사(위례역사문화연구소) ○ 발표2_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 출신의 독립군 활동 연구 -충남 목천 출신 이장녕을 중심으로-” 김주용 교수(원광대학교) ○ 토론2_ 장권영 교수(백석문화대학교) <p><인물 세션 1-2> -- 좌장: 김수민 대표(중부미래포럼 공동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1_ “고당 조만식의 삶과 항일독립운동” 권용우 교수(단국대학교 명예교수) ○ 토론1_ 권형돈 교수(공주대학교) ○ 발표2_ “유관순열사 100주년 기념세미나 만족도 조사결과” 박종관 교수(백석대학교) ○ 토론2_ 조호대 교수(순천향대학교) | 백석대학교 주관 |
| 15:00~16:30 (90') | <p><지역 세션 2> ----- 좌장: 박철휘 선임연구위원(충남연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1_ “항일운동가(양세봉) 소개 및 지역에의 시사점” 왕혜우 연구원(요녕성사회과학원) ○ 발표2_ “윤봉길 의사 독립운동의 지역 실천 방안” 강희진 작가(소설 윤봉길, 충남토종씨앗박물관장) ○ 발표3_ “독립운동의 역사, 지역을 디자인하다: 중국 하북성의 사례가 충남도에 주는 시사점” 박경철 박사(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 ○ 토론1_ 정원영 연구위원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위원회) ○ 토론2_ 김진호 박사(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 토론3_ 정원식 박사(연원연구원, 중국항일역사답사전문가) ○ 토론4_ 조민상 교수(백석대학교) | 충남연구원 주관 |
| 16:30 ~ 17:10 | 종합 토론 | |
| 17:10 ~ 17:30 | 정리 및 폐회 | |

<인물세션 1-1, 발표1>

유관순 일가의 3.1운동 주도과 유우석의 독립운동

김 명 섭

단국대학교 교수

유관순 일가의 3·1운동 참여와 유우석·조화벽의 독립운동

김 명 섭
(단국대 연구교수)

1. 머리말
2. 유관순 일가의 3.1운동 참여와 투옥
3. 유우석과 조화벽의 독립운동
4. 맺음말

1. 머리말

“천안군 동면 용두리 유관순 일가는 소요죄 및 보안법 위반으로 처분돼 일가가 거의 전멸하는 비참한 지경에 빠졌다.” 1919년 7월 9일 충청남도장관 구와바라 하치시가 조선총독부에 올린 지역민심 동향보고 내용은 유관순 일가가 독립만세운동 참여로 얼마나 심대한 상태에 처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주지하다시피 1919년 4월 1일 충남 천안 병천 아우내 장터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은 유관순과 그의 부모, 삼촌 등 집안사람들이 주도하였다. 또한 공주 읍내에서의 만세시위도 유관순의 오빠 유우석이 주동자로서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이날 시위로 인해 유관순의 어머니가 현장에서 총 맞아 숨졌고, 아버지도 머리와 옆구리에 칼로 인해 중상을 입고 집으로 옮겨졌다 이튿날 숨졌다. 숙부인 유증무와 유관순, 유관순의 오빠 유우석은 체포되어 수년간 투옥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유관순의 사촌 언니 유예도와 그녀를 도피시킨 사촌 오빠 유경석과 올케 등도 일제로부터의 갖은 괴롭힘을 피할 수 없었다. 이처럼 유관순 일가는 독립만세운동의 시발점인 동시에 가장 큰 피해를 받은 독립운동 가문이 아닐 수 없다.

3·1독립운동의 꽃, ‘한국의 잔 다르크’인 유관순에 관한 연구는 유관순연구소를 비롯한 많은 선학자들의 연구성과에 의해 사상형성과 항일활동이 조망되었다.¹⁾ 이

1) 유관순 열사의 사상형성과 항일활동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박충순, 「유관순과 3·1운동」『유관순 연구』창간호, 2002 ; 이정은, 『불꽃같은 삶, 영원한 빛 유관순』,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 박충순, 「유관순의 사상형성 배경 연구」『유관순 연구』5, 2005 ; 홍석창, 「유관순 열사의 가계 교육 그리고 운동의 배경과 특징」『3·1여성』17, 3·1여성동지회, 2006 ; 이정은, 『3·1운동의 열 유관

와 함께 독립투쟁 가문으로서의 유관순 일가에 대한 연구도 근래의 대중서를 필두로 진척되고 있지만,²⁾ 아직 학술 연구성과로 충분히 진행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유관순의 부모와 삼촌, 큰 오빠 유우석과 조화벽 부부 등 굵직한 항일업적을 남긴 가족들의 삶과 활동 및 사상에 대한 단일연구가 아직 한편도 없다는 사실은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을 감안하여 본 글은 공주 만세운동의 주역이자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가로 활동한 유우석(柳愚錫, 1899.5.7.~1968.5.28, 일명 俊錫·寬玉)의 삶과 활동에 대한 추적해 보고자 한다.

2. 유관순 일가의 3.1운동 참여와 투옥

잘 알려져 있다시피, 유관순 일가는 충남 목천군 이동면 지령리(현 동면 용두리)에 살고 있었다. 본관이 고흥(高興)인 부친 유중권(柳重權, 1863~1919.4.1.)은 일찍이 부친과 동생의 영향으로 기독교 감리교에 입교한 개화 인사로서 한말 가산을 털어 향리에 흥호(興湖)학교 설립에 관여해 민족교육 운동을 전개한 계몽운동가이다. 또한 유빈기(柳斌基)·조인원(趙仁元-조병옥 부친) 등 향촌 유지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 민중 계몽운동에 노력하였다. 유중권은 이소제(李少悌)를 부인으로 맞아 5남매(2남 3녀)를 낳아 길렀다. 이 중 1899년 우석(愚錫)을 장남으로 낳았고, 관순(寬順, 1902~1920)을 둘째 딸, 인석(仁錫, 1904년생)과 관석(寬錫, 1911년생)을 두었다. 자녀들은 부친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감리교에 입교하여 돈독한 신앙심을 키우는 한편, 민족의식을 함양하여 간 것으로 여겨진다.

용두리 지령리 마을은 유관순의 작은 아버지인 유중무(柳重武, 1875~1956)의 영향으로 1900년 초 감리교로 개종하여 마을 자녀들이 일찍부터 신교육을 받았다. 유중권의 집에서 멀리 않은 용두리 327번지에는 조병옥(趙炳玉, 1894~1960) 박사의 생가가 있다.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부친 조인원(趙仁元)의 기대에 부응하여 공주군의 기독교 명문사학인 영명(永明)학교와 평양 숭실중학교를 거쳐 미국의 캘리포니아대학으로 유학을 간 그의 성공신화는 부친 유중권을 비롯해 우석·관순 등 마을 청소년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조병옥의 부친 인원이 유중권과 그의 부친을 비롯해 동생 유중무와 함께 교회를 이끌었기에 두 집안은 각별히 가깝게 지냈을 것임에 틀림없다.³⁾

유중권은 비록 온가족이 기독교로 개종하였지만, 상투를 자르지도 않았고 조상에 대한 제사를 고수하였다고 한다. 이어 그는 큰 아들 유우석을 공주군의 영명(永明)학교에 유학을 보내었다. 1903년 감리교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영명학교는 당시

순』, 역사공간, 2010 등을 참조.

2) 이동연,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로 본 식민통치의 실상-천안지역 인물을 중심으로」『유관순 연구』23호, 2018 ; 이덕주·최태욱, 『유관순 가(家)의 사람들』, 신앙과지성사, 2019 ; 송혜영, 『조화벽과 유관순 : 양양 3.1운동의 주역 조화벽을 통해 본 유관순 그 후 이야기』, 달아실, 2019 등.

3) 박충순, 「유관순의 사상형성배경 연구」『유관순연구』 11, 2006.

기독교에 반감이 많았던 탓에 학생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학교측은 수업료 면제를 비롯해 학용품 무료제공, 용돈제공이라는 특전을 베풀었다.

유중권은 장남인 우석을 1916년 3월 먼저 이 학교에 입학시킨 후 둘째 딸 관순도 이 학교에 보내 교육시키다가 1918년 4월 서울의 이화학당(梨花學堂)으로 유학시켰다. 이 학교의 학풍은 다분히 자유주의적이면서도 민족주의 성향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학교 제3회 졸업생인 윤창석(尹昌錫)이 3·1운동의 한 계기가 된 동경(東京) 유학생 대표로서 2·8 독립선언을 주도하는 역할을 다하였다고 한다.⁴⁾

1919년 3·1독립만세운동은 유중권-중무, 유우석-관순 등 전 일가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서울에서 불붙기 시작한 3.1 만세운동은 충청 지역 전역에 번지기 시작했다. 충남지역에서는 공주군에서 먼저 독립만세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3월 7일 만세시위를 위한 첫 시도와 함께 3월 10일 준비모임에 이어 3월 12일 만세운동이 실행에 옮겨졌다가 일제 수비대가 출동하여 주도인사를 체포하였다. 3월 14일에는 공주군 유구(維鳩) 읍내의 우시장에서 장날을 이용해 천도교도인 황병주(黃秉周)의 주도 아래 약 500여 명의 인사들이 모여 독립 만세를 외쳤다. 이날 시위로 일본 경찰과 보병 12명이 출동해 현장에서 황병주 등 5명을 체포하고, 이후 검거작전으로 30여명을 구금하였다.⁵⁾ 3월 17일에는 분개한 공주의 군중들이 독립 만세를 외치며 주재소를 파괴하는 등 격렬히 저항하였다.⁶⁾

공주 영명학교 학생으로 공주에 있었던 유우석은 공주 읍내에서 전개된 만세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3월 12일과 15일에 걸쳐 공주 만세 운동에 큰 자극을 받은 영명학교 교사 김관회(金寬會)·이규상(李圭商)·현언동(玄彦東), 졸업생 김사현(金士賢), 재학생 오익표(吳翼杓)·안성호(安聖鎬), 목사 현석칠(玄錫七)·안창호 등이 3월 24일 밤 9시경 학교에서 모임을 갖고, 4월 1일의 읍내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운동 전개를 결의하였다. 이때 유우석도 학생 대표로서 이 계획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영명학교 교사 김관회가 학생들을 동원하기로 했고, 서울에서 가져온 「독립 선언서」를 등사판으로 밀어 1천 장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3월 30일 김관회로부터 학생 동원과 「독립 선언서」의 등사를 부탁받은 영명학교 조수 김수철(金洙喆)의 집에서 유우석은 노명우(盧明愚)·강윤(姜允)·윤봉균(尹鳳均) 등과 독립 만세 운동 계획에 대하여 논의한 뒤, 이튿날 오후 3시경 이들과 함께 기숙사에서 「독립 선언서」 1천여 장을 등사하고 대형 태극기 4개를 만들었다.

4월 1일 오후 2시, 유우석은 다른 학생 대표들과 함께 태극기와 「독립 선언서」를 장터 모인 시위 군중에게 나누어 주고 선두에 서서 만세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날의 독립 만세 운동은 일제의 강력하고 신속한 저지로 비교적 소규모로 전개된 채 끝났고 말았다. 유우석은 일본 기마경찰이 강제로 군중을 해산시키려 하자, 저항하다가 곤봉에 머리를 맞아 혼절한 채 주동자로 체포되었다.⁷⁾

4) 「영명학교」『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이일주, 「초기 영명학교 고찰」『웅진문화』16, 공주향토문화연구회, 2003 참조

5)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3, 1987.

6) 김진호·박이준·박철규, 『국내 3·1운동II-남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이와 함께 이화학당에 재학 중이던 동생 유관순도 서울에서의 3·1만세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녀는 동료 여학생 6명과 함께 결사대를 조직, 탑골공원과 남대문역 등에서 만세시위를 벌였다. 3월 10일 임시휴교령이 내려지자 독립선언서를 숨겨 고향인 천안 용두미 마을로 내려갔다. 그곳 유림대표와 집성촌 대표 등과 함께 4월 1일 정오를 기해 천안시 병천면의 아우내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전개기로 모의했다. 그리고 3월 30일 매봉에서 만세운동을 알리는 봉화를 올리고 다음날인 4월 1일 아우내 장터에서 주민들에게 태극기를 일일이 나눠준 뒤, 30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하였다. 아우내 장터는 삼시간에 대한 독립 만세 소리로 진동하였으며, 여세를 몰아 시위 군중은 일본 헌병 주재소로 행진하였다. 시위 대열이 접근하자 기세에 놀란 일본 헌병들이 총을 난사하였고, 천안에서 출동한 수비대까지 합세하여 총검을 휘둘렀다. 일본 헌병들이 총검으로 선두에 선 유관순의 옆구리를 찔렀다. 헌병이 상처를 입은 유관순의 머리채를 잡고 주재소로 끌고 가는 것을 본 유중권은 부인인 이소제와 함께 끌려가는 딸을 뒤따르며 필사적으로 독립 만세를 외쳤고, 일본 헌병이 휘두른 총검에 찔려 숨을 거두었다. 이날 19명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고 말았다.⁸⁾ 유관순과 작은 아버지인 유중무도 체포되고 말았다. 일제 공주지방법원은 유관순과 유중무에게 소요죄와 보안법을 적용해 징역 5년형을 선고해 서대문 형무소로 수감하였다. 이후 항소하여 징역 3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⁹⁾

공주지방법원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 법원 마당에서 오빠 유우석과 유관순이 포승줄에 묶인 채 상봉했다고 한다. 둘 다 만세시위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법정에서 마주치게 되었다. 이때 유우석은 동생 관순으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제에 의해 학살당했다는 사실을 처음 전해 들었다.¹⁰⁾

유우석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4개월간 미결수로 옥살이를 한 후 2년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1919년 8월 29일 풀려났다. 공주감옥에 투옥되어 있어 장남으로서 부모님 장례도 치르지 못했다. 가족을 잃고 감옥에 갇힌 당시의 참담한 심경은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이었을 것이다.

3. 유우석과 조화벽의 독립운동

1) 유우석-조화벽의 만남과 아나키즘 수용

7) 송혜영, 『조화벽과 유관순 : 양양 3.1운동의 주역 조화벽을 통해 본 유관순 그 후 이야기』, 달아실, 2019, 126쪽.

8) 김진호·박이준·박철규, 『국내 3·1운동II-남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24~25쪽.

9) <유관순 외 10인 판결문>(국가기록원 소장) ; 임명순, 「유관순열사 1심형량관계 '형사사건부」 『한국독립운동사연구』28집, 2010 ; 이동언,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로 본 식민통치의 실상-천안지역 인물을 중심으로」 『유관순 연구』23호, 2018 등.

10) 이정은, 『3·1운동의 열 유관순』, 역사공간, 2010, 158~160쪽.

줄지에 부모를 잃고, 만형과 누나마저 감옥에 갇힌 채 고아가 된 어린 두 형제는 다행히 영명학교 1회 졸업생으로 이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민족주의 교육자인 교감 황인식(黃寅植)이 거두어 주었다. 또한 황인식의 집에서 하숙을 하던 신여성 교사인 조화벽(趙和璧, 1895~1975)이 정성으로 돌봐주었다. 이미 유관순은 이화학당 진학하기 전, 양양으로 시집 간 고모 집에 놀라갔을 때 조화벽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독립만세운동을 계기로 또 다른 인연을 이어가게 된 것이다.

강원도 양양군 남문리의 개신교 집안에서 무남독녀로 태어난 조화벽은 원산성경학교와 루씨여학교를 거쳐 개성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 호수돈여학교 비밀결사대에서부터 활동했다. 개성 만세운동에 참여한 그녀는 조선총독부가 학생들의 3·1운동 참여를 막기 위해 휴교령을 내리자 고향인 양양으로 향했다. 이를 시작으로 피어난 양양군 만세운동은 유교와 기독교 등 각 조직을 합치는 계기가 되었다.¹¹⁾ 이후 개성의 호수돈여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공주 영명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유우석의 어린 동생들을 돌보며 인연을 맺게 되었다.

1919년 8월 말 출옥한 유우석은 이후 서울로 올라가 영명학교와 같은 감리교 재단인 배재고등보통학교의 배려 덕분에 이 학교에 편입하게 되었다. 배재고보 재학 중 유우석은 서대문형무소로 동생 유관순의 면회를 갔으며, 그녀의 유언을 듣게 되었다.¹²⁾ 1920년 9월 28일 고문휴유증과 합병증으로 인해 유관순이 사망하게 되자, 고인을 이태원의 공동묘지에 묻어 주었다.

부모님에 이어 여동생까지 참담한 죽음을 맞게 되자, 유우석은 일제에 대한 원한과 울분, 세상에 대한 절망과 분노가 극에 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일제와의 끊임없는 항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어떠한 권력과 강권적 지배가 없는 새로운 자유·평등사회의 건설을 열망하게 되었다. 이때 유우석의 절망과 희망을 함께 나눈 동지들이 후일 일본 천황을 암살하려 한 ‘박열(朴烈)사건’에 연루된 김중한(金重漢)과 일본에서 ана키스트운동을 펼치는 이윤희(李允熙, 1904~1950) 등이다. 이들은 서울 경성고등보통학교 재학생들이었지만, 일본의 천황제 군국주의에 반대한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 1871~1911)의 ана키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이었다.

유우석은 1923년 2월 경성법학전문학교에 진학했다. 일제가 만든 법을 제대로 알아야 일제에 맞설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입학하자마자 ‘조국수호회’라는 비밀 지하조직을 만들었다. 비밀리에 학생운동을 전개하던 그는 3학년 봄 무렵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유우석이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을 당시, 조화벽이 그의 사식과 끼니를 챙기고 새 옷을 넣는 등 옥바라지를 하였다. 이 무렵 조화벽이 공주 영명학교에서 배화여학교로 새로 발령을 받아 부모를 잃은 인식·관석형제와 함께 경성에 정착해 있었다. 감옥에서 나온 유우석은 조화벽

11)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2권, 535쪽.

12) 이정은, 『3·1운동의 열 유관순』, 역사공간, 2010, 163~165쪽.

에게 청혼하여 1925년 4월 14일 개성에서 결혼하게 되었다.

결혼 후 아들 유제충(柳濟忠)을 얻은 조화벽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두 시동생들과 함께 그녀의 친정인 양양으로 거처를 옮겼다. 양양은 항일 활동으로 큰 상처 입은 유우석과 그 가족들에게 위안과 안식을 제공해 주었다. 특히 유우석은 이 곳에서 독립운동가 이동순(李東淳, 1909~1977)을 만나 아나키즘 사상을 공유하였다. 그러다 부인 조화벽이 원산의 진성여학교로 발령을 받은 계기로 원산에 이주함에 따라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가로 변신하는 일대 전환을 맞게 되었다.

2) 본능아연맹 활동

1923년 9월 1일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일어난 관동대지진과 이를 빌미로 6천여 조선인에게 자행된 일제의 대학살 사건은 의열단을 비롯한 항일 독립운동세력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의 일왕폭살계획 폭로와 법정투쟁은 <조선혁명선언>을 통해 체계화된 민중혁명론과 직접행동 방침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반천황제와 반공산주의를 표방한 박열 투쟁의 유지는 1925년 서울과 충주에서 조직된 흑기연맹(흑기연맹)과 대구의 진우연맹(진우연맹) 등으로 이어졌다. 이후 1927년경 국내에는 서울 등 중부권을 비롯해 충주·대구 등 남부 지방, 그리고 원산·함흥·평양과 관서지방 등 거의 전국적으로 아나키즘을 표방하는 사상단체가 조직되기에 이르렀다.¹³⁾ 이 중 함경남도 원산지역에는 본능아연맹(本能兒聯盟)이란 아나키스트 단체가 결성되었는데, 이 단체에 유우석이 참여하게 되었다. 일찍이 중국과 러시아 대륙으로 통하는 교통요지로서 러시아혁명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함경남도 원산에서는 민족주의 지도자인 조종구(趙鍾九)에 의해 원산청년회가 조직되어 회관을 건립하는 등 본격적인 애국계몽활동이 개시되었다. 조종구의 아들 조시원(趙時元)과 청년회의 핵심 멤버 이향(李鄉) 등은 한하연(韓河然)·김연창(金演彰) 등 원산 고원(高原)학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을 규합해 아나키즘을 연구하다가 1927년 4월 1일 본능아연맹을 조직하였다. 어느 외부의 압력 없이 ‘본능과 자아의 의지에 따라 행동한다’는 뜻의 이 단체에는 50여명이 참여했는데, 대부분 막스 슈티르너의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아연과 이향을 간사로 선출한 본능아연맹의 강령은 4개조로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피정복자 대중의 세계적 해방운동의 중책을 자부하고 피정복자 자기사업으로써 자주자치적 신사회생활의 획득을 기함.

2. 역사의 비약을 유물사관적 변증법적 원리로 간주하지 않고 기실 본능적 투쟁

13) 서울 흑기연맹과 대구 진우연맹, 평양의 관서흑우회와 흑전사에서 보여지듯, 국내의 아나키스트 단체들은 일본에서 이론과 노동 현장 운동을 경험했던 활동가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또한 관서와 단천, 안주의 흑우회와 창원 흑우연맹, 덕천 흑우회 등의 단체명칭이나 강령으로 볼 때, 도쿄의 흑우회와 흑우연맹의 영향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아나키즘 단체의 결성과 활동에 대하여는 김명섭, 『한국아나키스트들의 독립운동-일본에서의 투쟁』, 이학사, 2008과 이호룡, 『한국의 아나키즘-운동편』, 지식산업사, 2015를 참조.

원리의 현상으로 인정함

3. 정치적 중앙집권주의를 배척하고 지방분권적 자유연맹주의를 고창함.

4. 종족보존운동상 부르조아 의회운동을 부인하나 현하의 실정을 보아 필연성을 구비한 좌경적 운동자와 협력하는 동시에 계급운동에 있어서도 일체의 타협주의자와 개량주의자를 배제함.¹⁴⁾

이처럼 본능아연맹은 ана키스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보편적 해방운동, 즉 ‘자주자치적 신사회 건설’이란 목표와 그것을 실현하는 원리인 즉 ‘지방분권적 자유연맹(연합)주의’를 표방하였다. 이 점에서 민족주의·공산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조선독립운동이란 동일한 목표 아래에서도 그 실천 방략과 수단 면에서 중앙집권주의와 의회주의, 정치운동을 배제하고자 했음을 잘 보여준다.¹⁵⁾ 실제로 ана키스트들은 대규모 공장노동자들을 위주로 사상활동을 펼치던 공산주의자들과 달리, 주로 농촌 소작농과 노동단체에서의 독서토론회 지도와 출판사 운영, 항일 선전활동 등에 주력하였다.

본능아연맹 맹원들은 당시 이주하(李舟河)·김삼룡(金三龍) 등 원산에서 활동 중이던 저명한 공산주의자들이 지도하는 원산청년회와 잦은 충돌을 빚었다. 특히 1927년 1월 양측의 무력 충돌로 10여 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발단은 원산청년회에서 경영하는 동아일보 지국 회원들의 무분별한 소비행각에 대해 본능아연맹 회원들이 문제제기하면서 비롯되었다. 이에 원산청년회 주최의 강연회에서 강연 내용에 대해 야유하는 인사를 주최 측이 폭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ана키스트들에게 공산주의자들이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이로 인해 유우석과 한하연 등이 중상을 입어 입원하였고, 1명이 사망하고 말았다. 이 사건으로 유우석이 경찰에 체포·구속되어 함흥지방법원으로 송치되었다. 병보석으로 풀려나기는 하였으나, 상해치사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 유우석은 즉각 복심법원에 항고하였고, 1928년 7월 27일 경성복심법원 재판에서 정당방위를 입증받아 무죄가 선고되었다.¹⁶⁾ 이 사건 이후 유우석은 사상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일제 경찰의 수시 감시와 구금의 대상이 되어 체포와 고문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본능아연맹에 이어 원산에서는 1927년 9월 8일 김연재(金演裁) 등 10여 명에 의해 노동자자유동맹이 결성되었다. 이 동맹은 종래의 중앙집권주의 대신 자유연합주의를 제창하여 노동자들에 의한 국내 최초의 ана키스트 노동조합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이 동맹은 강령으로 “일상생활의 개혁과 상호교화에 의한 사상의 계발에 매진”하고, “상호부조 본능을 양양하여 자유협동사회의 맹아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당시 일본 ана키스트운동 진영에서 대두되었던 ана르코 코뮌리즘과 생디칼리즘을 수용해 국내 노동운동을 펼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자유동맹 역시 여러 차례 원산청년회와 원산노동자연합 등 공산주의 계열 단체와의 마찰을

14) 《중외일보》1927년 4월 6일자 ‘本能兒聯盟의 창립정신’

15) 오미일, 「일제시기 원산지역 ана키즘 단체의 조직과 ана키스트들」『역사와 경계』, 2018.

16) 『東亞日報』1927년 1월 7일 ; 4월 5일, 1928년 8월 3일

빛어 상당한 고충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¹⁷⁾ 이후 원산지역 아나키스트들은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에 밀려 침체를 거듭하다가, 1931년 3월 원산일반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도하였다.

유우석이 일본 경찰과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체포와 감금을 빙뚱하며 사상투쟁을 계속 벌여 나갔다. 그는 1929년 원산 부두노동조합에서 전개된 총파업으로 인해 일본 경찰에 연행되어 엄중 취조를 당하였다. 또한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계기로 일제가 강화한 사상가 통제방침에 따라 수시로 체포와 구금, 고문을 겪어야 했다.

남편이 사상활동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동안, 부인 조화벽은 홀로 가정을 책임지는 한편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녀는 원산의 선박노동자를 위한 해원상구회 부회장을 맡아 타지에서 비싼 세를 내던 살던 노동자들의 집세 인하는 요구하는 등 노동권익 옹호에 앞장섰다. 1932년 고향인 양양으로 돌아온 후 아동교육시설 정명학원에 나서는 등 교육사업에 집중했다. 이후 조화벽과 유우석은 양양 산촌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야학을 꾸리며 농민들을 도와주는 자작농으로서 일제의 패망을 기다렸다.¹⁸⁾

4. 맺음말

광복 후 유우석은 대한 노동 총연맹을 결성하여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전국 혁명자 총연맹 중앙 집행 위원, 통일 독립운동자 중앙 협의회 간사, 유도회 청년회 총본부장, 순국선열 유족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1968년 5월 28일 사망하였다.

광복 이후 유관순 전기가 영화화, 국민적 존경을 받자 조화벽은 남편과 함께 기뻐하기도 했다. 그녀는 남편과 아들 셋을 모두 앞세워 보낸 후 1975년 사망하였다. 조화벽은 1990년이 되어서야 남편 유우석과 함께 사후 건국훈장을 받고 애족장에 추서됐다. 며느리 김정애도 3·1운동 여성동지회장으로 활동하며 시부모의 유지를 이어갔다. 양양감리교회에는 지금도 조화벽의 기도실이 남아 있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유우석의 공훈을 기려 1982년 건국 포장을, 1990년에 건국 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17) 『自由聯合』 第17호 ; 19號

18) 송혜영, 『조화벽과 유관순 : 양양 3.1운동의 주역 조화벽을 통해 본 유관순 그 후 이야기』, 달아실, 2019, 177~192쪽.

<인물세션 1-1, 발표2>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 출신의
독립군 활동 연구 -충남 목천
출신 이장녕을 중심으로-

김 주 용

원광대학교 교수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 출신의 독립군 활동 연구

- 충남 목천 출신 이장녕을 중심으로 -

김주용(원광대 교수)

1. 머리말
2. 가문과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3. 중국 망명과 신흥무관학교 교관
4. 북로군정서 참모장과 청산리 전투
5. 독립군 재정비와 한국독립당 활동
6. 맺음말

1. 머리말

1909년 9월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마지막 생도들이 일본 육사에 편입하기 위해 수속을 진행하고 있었다. 저마다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였지만 개인의 역할은 국망의 기로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일반인에게 독립군이란 ‘고난과 열정의 화신’으로 인식되어 왔다. 독립운동은 조국을 위해 ‘나를 버리는 길’이다. 그만큼 독립군에게는 고된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가운데는 일반인들에게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으로 각인된 지석규(지청천, 이청천) 등의 생도들이 자신들과 조국의 미래를 위해 타국 땅에서 군사교육을 받으려 渡日하였다.

1896년 1월 설립된 육군무관학교는 1898년 7월 제1회 생도들을 받아 들였다.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는 입교생 자체만으로 입학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영광’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아 근대적 의미의 군관학교라고 단정 지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전체 입학생들이 모두 이에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새로운 시도를 통해 군사적 강화를 목적으로 탄생된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는 교과목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의 그것과는 다른 근대적인 ‘세례’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육군무관학교의 앞날에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1907년 군대해산은 일제의 치밀한 계획으로 진행되었다. 러일전쟁 후 한반도에서의 독점적 특권을 확보한 일제는 을사늑약을 통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고문정치를 통해 전방위로 대한제국을 압박하였다. 그 결정판이 1907년 7월 이루어진 ‘정미조약’이었다. 하지만 이미 군대는 일본 육사 출신들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1904년부터 1907년 3년간 무관학교장 이병무를 정점으로 일본 육사출신들이 무관학교에 주요 직책을 맡고 있었다.¹⁹⁾ 육군무관학교 출신들에게 군대해산은 또다른 선택의 길에 내몰리게 하는

사건이었다. 특히 민족적 자각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군대해산은 육군무관학교 출신들이 새로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길이었다. 자결로 자신의 의지를 표명한 박성환, 남상덕 등과 이장녕과 같이 낙향하면서 만주로 망명한 경우도 있으며, 1909년까지 군대에 남아 있었던 신팔군도 있었다.

하지만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마지막 생도들의 삶은 ‘애국과 친일’의 경계선에서 갈등의 삶을 선택해야 했다. ‘애국’의 상징으로 기억하는 지청천과 친일의 상징으로 기억되는 ‘홍사익’, 대한민국 초대 육군참모총장을 지냈던 이응준, 독립군 토벌에 투입되었다고 일본군을 탈영하여 독립운동에 헌신한 충무공 이순신의 후예였던 이종혁, 대한민국 보이스카우트의 원형을 만들었던 조철호 등이 그들이다.²⁰⁾

이 글에서는 군대해산 이후 여러 길을 가게 되었던 육군무관학교 출신들의 진로를 분석하고 나아가 이들이 신흥무관학교에서 교관으로 거듭나면서 육군무관학교의 경험을 투영한 예를 찾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독립운동사에서 가장 큰 전과라고 할 수 있는 청산리 전투에서 그들이 발했던 독립운동의 투혼을 되살려 보고, 나아가 서로군정서와 북로군정서에 녹아 있는 육군무관학교의 흔적도 찾고자 한다. 육군무관학교의 전통을 복원하고, 이들 가운데 신흥무관학교의 교관이며, 만주지역 한국독립군의 중추적 역할을 할 이들도 적지 않다.

2. 가문과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이장녕의 출생지에 대해서는 각종 문헌마다 다르다. 먼저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용의조선인명부』에는 충남 천안군 목천면 동리가 본적이라고 되어 있다.²¹⁾ 국가보훈처 공훈록에는 충남 천원군 목천면 남화리로 기재되어 있고,²²⁾ 1993년 11월 『순국』에는 천원군 목천면 서리 90번지에서 출생하였다고 서술되어 있다.²³⁾ 이처럼 각 문서 및 기록마다 이장녕 출생지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으로 이장녕 일가들이 장기간 중국에 망명한 사실을 들 수 있다. 이장녕 집안은 대부분의 한인들이 그러하듯 해방이 되어서야 귀국하였다. 귀국한 후에도 목천에 정착하지 못하고 대전 등지에 거주하였다.²⁴⁾ 따라서 목천읍은 이장녕 가문에게는 만주망명 이후 돌아 오지 못한 곳이 되어 버렸다고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그의 출생지가 목천면(현 목천읍)이었다는 데 있다. 다만 서리, 동리, 남화리로 기재된 것은 이들 3개리가 인접해 있다는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먼저 이장녕의 본적지인 목천읍사무소에서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이장녕의 출생지를 확인하려 했다.²⁵⁾ 하지만 이장녕의 제적등본은 현존하지 않으며, 그의 큰아들 이의복의 제적등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의복의 본적은 천안군 목천읍 서리 90번지로 기

19)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의 교관들 가운데는 독립과 친일의 길로 확연하게 구분되는 인생의 여정을 밟은 이들이 있다. 무관학교 교장을 지냈던 노백린, 교관이었던 이갑 등은 대표적인 독립운동의 상징적 인물이었으며, 이병무는 ‘친일’이 대표주자였다.

20) 이기동, 『한국근현대사연구』, 일조각, 1981 ; 김단비, 「대한제국 시기 한인의 일본 육사 입교와 졸업 후 동향」, 『사학지』 50, 2015.

21) 朝鮮總督府, 『容疑朝鮮人名簿』, 322쪽.

22) 국가보훈처, 『공훈록』, 4권, 국가보훈처, 1987, 828쪽에는 출생지가 천안으로 되어 있는데, 전자공훈록에는 목천면 남화리로 기재되어 있다.

23) 『순국』 34, 1993년 11월호, 73쪽.

24) 2013년 2월 7일 이장녕 손자 이철희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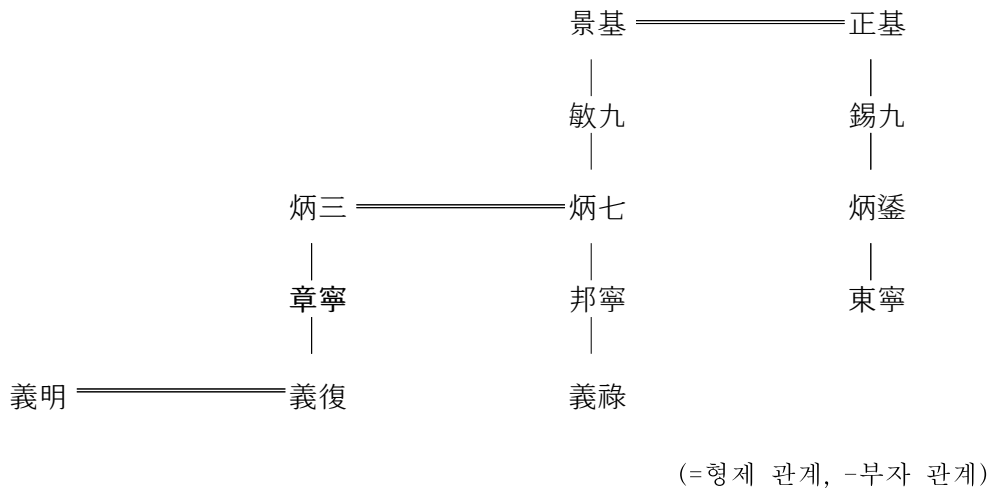
25) 2013년 2월 14일 목천읍사무소 방문 확인.

재되어 있다. 그의 동생 이의명의 본적 역시 서리 90번지로 되어 있다.²⁶⁾

이를 종합해 보면 이장녕의 출생지는 목천읍 남화리 또는 서리로 압축할 수 있다. 먼저 서리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72년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은상에게 보낸 이의복의 진술서에는 그의 선친 이장녕의 본적과 출생지를 서리 90번지로 기록하였다. 둘째 이의복의 제적 등본에는 출생지가 목천읍 서리로 되어 있다. 셋째 후손 및 문중 사람들의 인터뷰 결과 서리라고 구술한 점을 들 수 있다.²⁷⁾ 다음은 남화리로 추정하는 근거를 보면, 이장녕의 독립운동 공적 심사서에 출신지를 목천면 남화리로 기재된 점을 들 수 있다. 당시 원호처에 제출한 문서에 출신지를 남화리로 기재하였으며, 이후 『독립운동약전』에도 이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²⁸⁾

이장녕은 1881년 5월 20일 충남 천원군 목천면에서 부 이병철과 고령 안동 권씨 사이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하지만 숙부인 이병삼이 후사가 없자 양자로 입적하였다. 그의 가문은 연안이씨 삼척공파로서 고려 고종 때 李襲洪을 중시조로 하였으며, 조선 연산군 때 삼척도호부사 겸 강릉진관 병마절제사를 역임하면서 이로부터 연안이씨 삼척공파가 형성되었다.²⁹⁾

이장녕 가계도



그의 선대는 문관으로 관직에 많이 진출하였으나 선친 대에는 관직으로 나가지 못했다. 이장녕은 문관가문에서 독특하게 무관으로서의 길을 택했다. 이장녕은 1900년 육군무관학교 3기생으로 무관의 길로 들어섰다.

26) 이의복 및 이의명 제적등본 참조.

27) 2013년 2월 7일 이장녕 손자 이철희 면담(이철희 자택)

28) 1972년 이은상에게 보낸 진술서에는 서리로 되어 있었는데 그후에는 다시 남화리로 바뀌어 있다. 현재 재로서는 두 곳 가운데 어디를 출생지로 비정해야 할지 좀더 살펴보아야 할 여지가 남아 있지만 이 글에서는 그의 아들 제적등본에 기재된 서리로 비정하겠다.

29) 『연안이씨삼척공파보』 권 1, 연안이씨삼척공파보발행위원회, 1997, 162쪽.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석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석오 이동녕 역시 연안이씨 삼척공파이며, 이장녕의 삼종형(8촌)이다.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는 신식군대의 지휘와 훈련에 필요한 초급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1896년 1월 설립되었다.³⁰⁾ 하지만 아관파천 등 국내외 정세 변동으로 인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나 1898년 4월 무관학교 실시에 관한 공식 건의서가 올려지고 5월 칙령 제11호로 문관학교 관제가 개정, 공포되면서 7월 비로소 다시 개교하게 되었다. 제1회 200명 정원에 1,700여 명이 응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무관학교의 인기가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1900년 9월 칙령으로 관제가 개정되었는데, 당시 무관학교 관제에 의하면, 군부의 장령, 위관의 추천이나 칙임관의 추천을 받아 학도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었다.³¹⁾ 이러한 규정에 의해 추천된 응시생들은 대부분 군부의 장교나 칙임관의 자제들이었다. 이들은 초급교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으며, 교과목은 전술학, 군제학, 병기학, 축성학, 지형학, 위생학, 마학, 외국어학 등이었다. 그밖에 교관의 덕목과 자질을 함양시키는 체련단련 등을 집중 연마하였다.³²⁾ 1903년 3월 25일 육군참위에 임명된 이장녕은 다음해 친위대 제1대대 견습으로 본격적인 군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³³⁾ 대한제국 군대는 크게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뉘었다. 시위대는 1897년 3월 창설되었으며, 친위대의 정예병을 차출해서 구성되었다.³⁴⁾ 주요 임무는 황실 호위였다. 그후 이장녕은 친위대 제2대대에 배속되었다. 군대해산까지 3년간의 군생활은 그가 이후 독립운동에서 군사교관 및 사령관 등 군사활동에 참여하는 데 큰 자산이 되었다.

러일전쟁 후 한반도에서 독점적 특권을 확보한 일제는 을사늑약을 통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고문정치를 통해 전방위로 대한제국을 압박하였다. 그리고 1907년 7월 ‘정미조약’이 강제되었다. 이미 군대는 일본 육사 출신들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1904년부터 1907년 3년간 무관학교장 이병무를 중심으로 일본 육사출신들이 각 교관학교에 주요 직책을 맡고 있었다.³⁵⁾ 군대해산은 육군무관학교 출신들을 또다른 선택의 길에 내쫓았다. 육군무관학교 1기생인 황학수는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현대대장과 의견이 맞지 않을뿐더러 반감 또는 전폐가 반드시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조만간 퇴관할 것이다.”³⁶⁾ 이것은 비단 황학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장녕 역시 군대 해산 당시 일본군대 견학단에 포함되었다.³⁷⁾ 하지만 이미 군대해산이 단행된 후였기 때문에 이장녕은 미련없이 고향인 천안군 목천면으로 낙향하였다.

러일전쟁 후 한반도에서의 독점적 특권을 확보한 일제는 을사늑약을 통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고문정치를 통해 전방위로 대한제국을 압박하였다. 그 결정판이 1907년 7월 이루어진 ‘정미조약’이었다. 육군무관학교 출신들에게 군대해산은 또다른 선택의 길에 내몰리게 하는 사건이었다. 민족적 자각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군대해산은 육군무관

30) 차문섭, 「구한말육군무관학교 연구」, 『亞細亞研究』 제16권 2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178쪽.

31) 한시준, 『대한제국군에서 한국광복군까지』, 황학수, 역사공간, 2006, 24쪽.

32) 차문섭, 앞의 글, 193쪽.

33) 『大韓帝國官報』 18책.

34) 대한제국기 시위대, 친위대를 비롯한 군제에 대해서는 서인한, 『대한제국 군제 연구』, 국민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참조.

35) 이기동, 『비운의 군인들』, 일조각, 1982, 18쪽. 황학수 일기에도 일본 사관학교 출신이며 무관학교 학도대장으로 있으면서 군부협판으로 승진한 이희두가 연성학교 교장을 겸임하고 있다고 하였다.

36) 『黃學秀日記』 「군대해산」 부분 참조.

37) 당시 일본군대 견학단에는 부위 이장녕을 비롯해서, 정위 吳璉泳 尹鎬 副尉 柳冀聖 高永均 柳喜章 俞致萬 洪淳正 韓昌履 參尉 朴用來 金華成 金鍾浩 李憲振 金東五 裴駿煥 許滿 金永珏 李承旭 등이었다(『日省錄』 1907년 7월 26일자).

학교 출신들이 새로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길이었다.

3. 중국 망명과 신흥무관학교의 교관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기까지의 과정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자유’를 상실한 민족이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1911년 6월 삼원포 추가가에 신흥무관학교가 설립될 당시 명칭은 신흥강습소였다. 이듬해 통화현 합니하로 이전하여 학교를 확장했을 때에도 신흥강습소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신흥무관학교는 신민회 인사들이 주도하여 설립하였다. 신민회 인사들은 일제의 침략으로 대한제국이 멸망에 직면하게 되자 국외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³⁸⁾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는 데 기초를 닦은 이가 바로 이장녕이었다.³⁹⁾ 군대 해산 이후 낙향한 이장녕은 집안 어른들과 상의한 후 서간도로 망명을 결심했다. 이 과정에서 그의 조부 李敏九는 두 아들 炳七, 炳三과 方寧 및 章寧 두 손자를 이끌고 망명을 주도했다.⁴⁰⁾ 규모는 작지만 마치 안동의 金大洛 가문을 연상시키는 듯 하다. 이장녕 가문이 언제 중국으로 망명했는지 자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1907년 11월말 경에 결행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⁴¹⁾

『독립운동약전』에 의하면 1907년 11월 20일 고향 천안 목천을 떠나 일가족이 만주로 향했다고 한다. 이장녕은 유하현에 자리를 잡았다. 이미 알려진 대로 유하현 삼원포는 신흥무관학교가 설립된 곳이다. 다음해 2월 만주에 도착한 이장녕은 1909년 신민회의 특명을 받아 독립운동기지 건설을 위한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던 최명식을 알게 되었다.⁴²⁾ 『독립운동약전』에 의하면 1907년 가을 신민회에서 구국의 방략 가운데 하나로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만주지역이 그 후보지였기 때문에 파견된 인물이 바로 최명식이었다.

신민회에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고자 논의했던 것은 1909년 봄이라고 할 수 있다.⁴³⁾ 『무장독립운동비사』에서는 1909년 봄 양기탁의 집에서 신민회 간부들의 비밀회의가

38) 한시준, 「신흥무관학교와 한국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0, 2011, 7쪽.

39) 채근식은 『무장독립운동비사』에서 1910년 이회영 6형제와 이상룡 가문의 만주진출을 우리나라 처음이라고 표현했는데(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 대한민국공보처, 1985, 47쪽), 이는 이장녕 가문에 일찍이 1908년 2월에 서간도지역에 정착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0) 이장녕을 비롯하여 그의 생부(무송현), 생모(유하현 대사탄), 부친(서란현 소성자), 모친(유하현 대사탄) 및 형제와 조카 등의 묘소가 현재도 중국 길림성 서란현 및 무송현에 있지만 현재로서는 정확한 장소를 확인할 수 없다(『연안이씨 삼척공파보』 권지일, 404~405쪽).

41) 「순국열사 이장녕장군 약사」, 2쪽. 다만 1907년 가을에 신민회에서 독립운동기지 건설이 확정되었다는 명확한 자료는 없기 때문에 이장녕이 신민회의 독립운동기지 건설에 따라 갔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점이 있지만 그의 8촌형이 신민회의 주요 구성원이었다는 점에 비추어보아 전혀 신빙성이 결여된다고도 볼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42) 이덕산·최동원, 『백우 이장녕장군부자-독립운동약전』, 5쪽. 최명식의 자서전에 의하면, 그는 서간도 지역의 동포들의 실태와 독립운동기지 현장 답사를 위하여 1909년 10월 경에 만주지역으로 출발하였다고 한다. 당시 최명식은 환인현 횡도천에서 경기도인 이모진사 집에 유숙하였다고 했는데 그때가 1910년 3월경이다(兢虛傳記編纂委員會, 『안악사건과 3.1운동과 나』, 27~31쪽). 또 파저강변에 강전자에 들렸다고 하는데 이는 오늘날 유하현 강전자진이라고 생각된다. 현재도 조선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이덕산·최동원, 『백우 이장녕장군부자-독립운동약전』에는 이장녕과 최명식이 만났다고 했지만 최명식 자서전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다만 김대락의 일기를 통해서 보았을 때 이장녕 일가들이 안동사람들 보다 먼저 와서 정착한 사실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최명식이 답사를 다녔을 때 이장녕 가문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장녕 일가들이 선이주 한 것 자체가 오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열렸는데, 이 회의에서 독립운동기지 건설과 군관학교 설립이 주된 안건이었다. 마침 이동녕이 신민회 간부로서 참석하였으며, 그의 삼종제 이장녕이 미리 유하현에 정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삼원포 지역을 독립운동기지이자 신흥강습소 설립지로 택했다.⁴⁴⁾ 이를 보면, 이장녕과 최명식이 만난 시기는 1909년 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최명식이 국내를 떠난 시기가 2월 초이기 때문에 빨라도 3월 정도에 이장녕과 만났을 가능성이 크다.⁴⁵⁾ 이장녕이 신민회와 직접 연결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동녕이 신민회의 주요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글에는 다음과 같이 이장녕 일가의 망명을 서술하고 있다.

경술년 7월 보름께 우당장과 이동녕, 장유순, 이관직 씨 등 네분이 마치 백지 장수같이 백지 몇 권씩 지고 남만 시찰을 떠나셨다. 그 때는 신의주가 기차 종점이다. 압록강을 배로 건너 안동현을 지나 남만주 여러 곳을 다니며 지리를 구경하려던 중이다.(중략) 안동현서 5백리 되는 황도천으로 가서서 임시로 자리를 잡고, 이동녕의 친족 이병삼(이장녕의 부친, 필자주)씨를 그곳으로 먼저 술권을 하여 안정시키고 앞으로 오는 동지의 편리함에 대한 책임을 부탁하며 양미와 김장까지 여러 십 독을 준비하라고 부탁하셨다.⁴⁶⁾

위의 인용문은 우당의 부인 이은숙의 수기 가운데 이장녕의 부친에 관한 내용이다. 이장녕 일가는 이미 1907년 12월 황도천으로 이주하였는데, 이러한 활동에는 이동녕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즉 독립운동기지 건설에 필요한 지역으로 이장녕이 선주하였던 길림성 유하현 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닐 것이다. 김대락의 『백하일기』에는 이장녕의 부친 이병삼이 김대락 일가를 물심양면으로 도운 장면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백하일기』 1911년 2월 13일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온 소 한 마리가 일꾼도 없고 쪼과 겨도 없어서 전혀 기를 대책이 없는지라, 부득이 염치를 무릅쓰고 이병삼의 집으로 보냈다. 이형이 전에 집 아이에게 나를 위해 대신 길러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이형이 이리저리 돌보았고 염려해줌이 지극하여 사람을 감동하게 한다.⁴⁷⁾

『백하일기』에 이병삼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1911년 2월 9일부터이다. 김대락은 이병삼을 많이 의지한 것 같다. 그가 찾아오면 반갑게 해후하였으며,⁴⁸⁾ 이병삼의 집에서 소를 잡아 나누어 준 일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장녕이 김대락의 아들 월송 김형식에게 보낸 편지를 이병삼이 전달하려고 김대락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다.⁴⁹⁾ 이처럼 이병삼은 김대락과 대소사를 함께 의논했던 것 같다.⁵⁰⁾ 김대락이 4월 19일 삼원포에 도착했을 때 이

43)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 47쪽.

44) 이현희,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 이동녕과 그 시대』, 동방도서, 2002, 170쪽에 “석오는 그 친척 이병삼을 먼저 이곳에 이주 정착시켜 놓았다고”했으며, 석오의 가족들이 경학사 및 신흥강습소를 조직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동녕 일가 보다 이장녕 일가의 경우 4대가 이주하였기 때문에 이현희 교수의 서술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45)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 47쪽에 의하면 1909년 여름에 이회영, 이동녕, 주진수가 삼원포 지역으로 파견되었고 한다. 그렇다면 최명식은 최소한 이들 보다 몇 달전에 이미 삼원포 지역을 답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6) 이은숙, 『민족운동가 아내의 수기』, 정음사, 1983.

47)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백하일기』, 경인문화사, 2011, 32쪽.

48)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백하일기』, 30쪽.

49)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백하일기』, 34쪽.

병삼과 이동녕, 장유순이 차례대로 그의 집에 들러 안부를 전했다.⁵¹⁾ 이장녕이 김대락 집에 들린 것은 4월 29일이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다.⁵²⁾ 이후에도 이장녕은 김대락의 집에서 유숙하기도 했으며, 월송 김형식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신흥무관학교 경영에 깊숙하게 관여한 것 같다.⁵³⁾

뿐만 아니라 이장녕은 1912년 2월 이세영·이회영·이시영·이동녕 등과 함께 논의하여 이회영을 대표로 봉천에 파견하여 서간도 거주 한인들의 정착을 위한 방법으로 동삼성 총독에게 한인귀화를 신청하기도 했다.⁵⁴⁾ 당시 동삼성 총독 조이찬은 이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여비로 40원을 주었다.

이장녕이 교관으로 재직한 신흥무관학교는 군사학교였다. 그것은 독립운동기로서 신흥무관학교에 막대한 재력을 투자하여 건립한 중요한 목적이기도 했다.⁵⁵⁾ 신흥무관학교 교관들의 면면만 보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세영, 이관직, 이장녕, 김창환 등은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와 인연을 맺은 인물들이다. 이들은 학생들의 정신적인 무장을 더욱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바로 군사훈련시 장비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정신적인 면에서 찾았던 것이다. 독립군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군자금과 무기였다. 의병전쟁을 통해 무기의 열세를 여실히 알았던 독립운동가들에게 신무기는 독립의 그날을 앞당겨줄 구원군과 같은 존재였다. 그만큼 무기에 대한 절심함이 묻어나고 있었다. 신흥무관학교의 설립 목적 자체가 교관 양성에 있었으며, 농사도 병행하였다. 특히 통화현 합니하로 무관학교를 이전하면서 병농일치 또한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장녕은 신흥무관학교의 교관 및 학도단장⁵⁶⁾을 거쳐 교장대리까지 역임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제의 시베리아 출병 등으로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장녕은 조성환, 이동녕 등과 함께 만주지역 독립운동세력의 단결을 도모하였다.⁵⁷⁾ 그런데 이 시기 이장녕의 활동 가운데 주목되는 점이 있다. 무송현에 자리잡은 백산학교 교원으로 활동한 것이 그것이다. 이극로의 『고투40년』에 의하면, 이장녕은 김성규가 운영하는 백산학교에서 이

50) 김대락의 백하일기에 이병삼과 이장녕은 총 50회 기록되어 있다. 시기별로 보면 1911년이 가장 많으며, 12년 13년 순으로 되어 있다. 이는 이주 초기 이장녕 가문에 대한 의존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내용으로는 함께 식사하는 것, 선이주한 이장녕 가문이 도움을 준 일, 독립운동에 관한 의논, 문안인사 등이다. 먼저 2011년에는 2월 9일(삼), 10일(삼), 13일(삼), 18일(삼, 념), 25일(삼), 26(삼), 3월 3일(삼), 4월 8일(념), 22(삼), 5월 6일(념), 5월 18일(삼), 6월 1일(삼), 11(념), 20(념), 29(삼) 윤6월 7일(삼), 윤6월 8일(념), 윤6월 21(념), 29일(념), 7월 15일(삼), 20(념), 23(념), 26(삼), 28(삼), 8월 4일(념) 13(삼), 16(삼), 18(념), 27(념), 9월 12일(삼), 26(념), 10월 12(념), 16(삼), 11월 6(삼), 22(념), 12월 12(삼), 26(념), 1912년 1월 4일(삼), 23일(삼), 27(삼), 8월 25일(념), 26(념), 11월 5일(념), 6일(념), 11일(념), 12일(념), 1913년 9월 8일(념), 10월 14일(념), 12월 29일(념) * 념 : 이장녕, 삼 : 이병삼

51)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백하일기』, 76~77쪽.

52)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백하일기』, 78쪽. 이장녕은 김대락이 함도촌에서 삼원포로 이주할 때 필요한 소를 가지고 4월 초에 김대락에게 갔었다.

53) 이장녕의 거처는 두릉동, 유하현 대사탄이라고 짐작된다. 그의 가족 가운데 친모였던 안동권씨 등의 묘가 대사탄에 있다고 연안이씨 삼척공파 족보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거처도 대사탄이 아니었는가 한다(『연안이씨 삼척공파보』, 404쪽). 또 김대락의 일기에도 이병삼 가족이 대사탄에 있다고 했다(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백하일기』, 218쪽).

5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9, 중국동북지역편 1, 국사편찬위원회, 2003, 175쪽. 이들의 주소는 유하현 대석탄으로 되어 있다.

55)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0, 123쪽.

56) 일제가 파악한 1918년 신흥무관학교의 교관은 다음과 같다. 교장 이천민, 부감 이갑수, 교사 윤기섭, 학도단장 이장녕, 학도단 부교사 김창환, 성준용, 경리 이호영이다.

5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40, 중국동북지역편 2, 국사편찬위원회, 2004, 293쪽.

진룡, 김호익, 차도선 등과 함께 교원생활을 하였다고 한다.⁵⁸⁾ 1915년의 일이다. 이극로가 1년간 무송에서 생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장녕이 백산학교에서 교사 생활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아직까지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지만, 그의 선대 묘가 무송현에 있다는 점도 이장녕이 무송현에서 활동했다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다만 신흥무관학교 교관에서 백산학교 교사로 활동한 배경에 대해서는 좀더 천착해야 할 부분이다.

이장녕은 일제의 집요한 회유 공작⁵⁹⁾에도 불구하고 신흥무관학교의 지도자로서의 임무를 꾸준히 수행하였다. 1919년 신흥무관학교 졸업식에서 이장녕은 독립운동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것은 그 정신을 영구히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19년 12월 30일 신흥학교 제4기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내빈으로는 서간도 사회의원 허역씨 및 한족 회실업장 남정섭씨 동학무원 김원식씨 등 20명이 참석하였으며, 직원석에는 대리교장인 이장녕씨 이하 10여명이 참석하였고, 청년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중국측 내빈으로는 제3구보위단장 대리 왕서기 등 6,7명이 참석하였다. 대리교장 이장녕의 지휘 하에 학생 일동의 경례, 애국가, 교장의 식사를 끝으로 졸업생 김우권, 문임현 등 75인에 대하여 증서를 수여하였다. 교장 이장녕은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심한 제군들은 영구히 그 정신을 변하지 말고 분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연설하였다. 허혁은 자신을 믿으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분투할 것을 강조했다.⁶⁰⁾

1911년 6월에 개교한 신흥무관학교에는 수많은 숨은 공로자들이 있다. 그 가운데 이장녕은 초기부터 신흥무관학교가 폐교될 때까지 ‘학교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일제 첩보자료에 의하면 1919년 12월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한족회에 군정부를 설치할 것을 주문하여 이를 실행하였다고 한다.⁶¹⁾ 일반행정은 한족회 명의를 준용해서 실시하였으며, 군정부 조직 가운데 독판부 독판은 이상룡, 부독판은 여준, 부관은 이장녕이 맡았다. 신흥무관학교를 통해 군인의 길을 걸었던 이장녕이 군정서에서 독판부 부관을 역임한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장녕이 서로군정서와 대한군정서의 간부 역할을 차례로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정확한 날짜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대략 이장녕은 1920년 4월 경 대한군정서 사관연성소의 교관으로 초빙되어 갔다.⁶²⁾

4. 북로군정서 참모장과 청산리 전투

간도의 치안상태는 일제의 대륙침략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었다. 조선통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이 간도지역 한인의 동태였다. 간도협약 이후 일제는 중국 관헌에게 이주한인의 치안을 맡겼으나, 관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간도토벌’을 계기로 한인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더욱 강화하였다. 일제는 이 점을 고려하여 延吉道尹 孟富德과 한인 독립운동가의 색출에 대한 안건을 놓고 교섭하였으나, 당시 중국 관헌은 마적소탕에 주력하고 있다는 이유로 군대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군대가 증파되었다.⁶³⁾

58) 이극로 지음, 조준희 옮김, 『고투40년』, 아라, 2013, 51~52쪽.

5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40, 중국동북지역편 2, 421~422쪽.

60)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の部(14)』, 1920. 2. 6.

6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42, 441쪽.

6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40, 17쪽. 『순국』 34호, 73쪽에 의하면, “국내에서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서일은 신규식, 김헌, 김성주 등과 대한정의단을 조직하고 군정부를 창설하니, 선생(이장녕: 필자)은 참모장에 임명되었다”라고 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장에서 좀더 상세하게 다루었다.

따라서 간도출병의 방법 및 규모는 극단적이며 대규모일 수밖에 없었다.

일제의 이러한 의지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제1단계에서는 작전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독립군 무장대를 전원 섬멸하거나 검거해서 독립군의 무장항쟁을 발본색원하는 것이다. 제2단계는 1단계가 끝난 후 다시 1개월 이내에 촌락에 ‘잠복’하고 있는 독립운동을가를 철저히 ‘색출’하여 무장 및 비무장운동까지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⁶⁴⁾ 1920년 10월 7일 일제는 재만 일본거류민의 안전을 위해 제19사단 산하 磯林地대를 파견하여 중국측을 압박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간도총영사관에서는 독립군 탄압에 필요한 군대의 증병을 요청하였다.⁶⁵⁾

이보다 앞서 서간도 지역에서도 일제는 중국측을 압박하여 독립운동세력을 탄압하였다. 1920년 1월 25일 일제의 압력에 굴복한 중국 지방경찰들이 대두자 신흥무관학교를 대대적으로 수색한 결과, 목총 5, 60정을 압수하였으며, 이 학교의 폐쇄를 명령하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당시 교장이던 이장녕과 교사 이범석이 삼원포 방면으로 피신하였다.⁶⁶⁾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 있다. 그것은 이장녕이 대한군정서의 참모장으로 이동을 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 파견 시기는 사료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정보문서에 의하면 이장녕은 1919년 7월경에 왕청현 대한군정서 본부로 갔다고 한다.⁶⁷⁾ 『약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장군은 참모직을 봉명하였고, 이래 참모장 김동삼과 더불어 군의 편성강화에 성력을 다 하였다. 오랫동안 군사학만 가르치던 입장에서 실제 강군을 보유하게 되니 생애에 처음 큰 보람을 얻은 듯 즐거웠다. 이력저력 두달이 지났다. 6월(1920년)이 다해가던 어느날 동만의 서일 선생으로부터 한통의 서신과 함께 인편이 당도했다. 사연인즉 지금 왕청현에서는 종래의 정의단을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북로군정부를 조직중에 있으니 꼭 그리로 와달라는 전갈이었다.⁶⁸⁾

위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문서를 보면, 1920년 2월 1일 유하현 삼원포에 소재하고 있던 서로군정서에서 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이때 이장녕은 군정사로 활동하였다는 사실로 『약전』의 기록을 뒷받침한다.⁶⁹⁾ 앞서 언급했듯이 신흥무관학교 졸업식에 이장녕이 참석한 사실도 있다. 따라서 이장녕이 대한군정서 본부로 갔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 시기가 1919년 7월이라는 점은 확실하지 않다.⁷⁰⁾ 각기 자료들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63) 金正柱, 「間島出兵史」 上(『朝鮮統治史料』 2), 한국사료연구원, 1970, 12쪽.

64) 신용하,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독립전쟁」, 『한민족독립운동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88, 107쪽.

65) 김주용, 『일제의 간도 경제침략과 한인사회』, 선인출판사, 2008, 72~73쪽.

6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42, 110쪽. 이덕산·최동원, 『백우 이장녕장군부자-독립운동약전』에 의하면 “3대부터는 신흥학교의 교장직을 맡아 하였고, 때로는 분교를 돌며 기강과 전통을 세우기에 투신하셨다”(이덕산·최동원, 『백우 이장녕장군부자-독립운동약전』, 12쪽)라고 한데 서 알 수 있듯이 이장녕의 온화하면서 강직한 인품이 10여년간 신흥무관학교의 지킴이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 같다.

6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43, 2007, 17쪽.

68) 이덕산·최동원, 『백우 이장녕장군부자-독립운동약전』, 14쪽.

6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42, 144쪽.

70) 잡지 『순국』에도 1919년 대한정의단의 창설과 함께 이장녕이 참모장에 임명된 것으로 파악했다(『순국』 1993년 11월호, 73쪽). 1919년 8월 7일 정의단을 군정부 조직으로 개편하는데 이장녕은 중심인물이었으며, 1919년 12월에는 참모장에 임명되었다고 한다(김창순·김준엽, 『한국공산주의운동사』 4, 청계연구소, 1989, 146~148쪽). 청산리 전투에 참가한 이우석의 일기를 보면 1920년 4월 경에 이장녕은 대한군정서 참모총장에 임명되었다는 편지를 가지고 온 청년 2명과 함께 북간도로 향했다고 한다(독립기념관 편, 『청산리대첩, 이우석 수기·신흥무관학교』, 76쪽).

이장녕의 활동에 대한 일제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1919년과 1920년 이장녕의 활동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장녕은 1919년 4월 한족회가 조직된 후 군정서를 설치하면서 부관으로 활동하였다.⁷¹⁾ 이장녕이 군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직책도 군사와 연관되어 있었다. 그가 군정서의 간부역할을 역임하면서 신흥무관학교의 교장역할도 동시에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우석의 『수기』에 의하면 이장녕은 신흥무관학교 졸업생이었던 백종렬과 강화린을 대동하고 대한군정서를 향해 떠났다. 그 시기가 1920년 4월이다.⁷²⁾ 다른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이장녕은 1920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북간도에 도착하여 대한군정서의 참모장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석주 이상룡이 김좌진의 요청에 대한 답서를 보면 이장녕의 파견 내용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장녕 군은 이곳에 있으면서 이미 떠고 있는 직명이 있는데다가 긴요한일로 심양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만약 마음을 같이 하는 사이가 아니라면 요청하신 뜻을 감히 받들지 못하겠지만은 다만 귀서와 본서는 하나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기 때문에 기관으로 차별해서 달리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부득이 이미 맡은 직무를 낱날이 되돌리고 지금 진행중인 일을 철저히 맡씀하신대로 보내오니 좌우께서는 저의 충심을 생각하시어 진실한 마음으로 연대하시고 경계를 두지 말고 일치하여 함께 나아가기를 천만 간절히 바랍니다.⁷³⁾

다음은 이우석의 수기를 통해 이장녕이 서간도에서 북간도로 파견된 경로를 잠시 살펴보겠다.

신흥학교 졸업생 중 백종열, 강화린 두 청년은 북로군정서 사관연성소 교관으로 같이 가게 되었다. 나는 연성소에 들어가려고 같이 가는 길인데 군사학 책자 30여권을 훑어지고 간다. 일행 6명은 화전현을 거쳐 안도현 지경을 들어섰다. 송화강을 따라 산으로 산으로 들어간다. 그야말로 신비의 백두산을 오른다.⁷⁴⁾

대한군정서 사관연성소는 1920년 3월에 개교하여 그해 8월에 1기생 속성과정의 완료되었다. 따라서 이장녕은 늦어도 제1기생 졸업 이전에 도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서로군정서와의 연결은 신흥무관학교 관계자들과 교유가 있었던 김좌진을 통해 이루어졌다.⁷⁵⁾ 대한군정서의 참모장을 맡았던 이장녕은 먼저 군사훈련과 무기 수급에 전력을 다했다.⁷⁶⁾ 군대를 무장하지 않은 채 일제와 겨룰 수는 없다는 판단 아래, 이장녕은 무기 구입을 위해 연해주로 직접 갔다고 한다.⁷⁷⁾ 체코제 무기를 안전하게 구입하여 대한군정서 대원들은 무장시킨 이장녕은 왕청현 십리평에 세워진 사관연성소의 교관을 맡으면서 실전에 대비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대한군정서에는 참모장 이장녕, 학도단장 박영희, 중

7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42, 439~441쪽. 1919년 11월 한족회 명의의 국민대회회의 참석시 이장녕의 직함은 한족회의 군사부분을 총괄하는 군무사였다(『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の部(14)』, 1920년 2월 10일).

72)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청산리 대첩 이우석 수기. 신흥무관학교』, 독립기념관, 2013, 78~80쪽.

73)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石洲遺稿』, 경인문화사, 2008, 444쪽.

74) 독립기념관, 『청산리 대첩 이우석 수기. 신흥무관학교』, 78쪽.

75) 반병률, 『1920년대 전반 만주.러시아지역 항일무장투쟁』, 독립기념관, 2009, 104쪽.

76) 『독립운동사』 제5권- 독립군전투사(상), 364~365쪽.

77) 다만 이우석의 수기에는 이우석 자신은 1920년 6월 경 군수품을 운반하기 위해 연해주에 갔다고 했는데 이장녕과 함께 간 것을 언급하지는 않았다(독립기념관, 『청산리 대첩 이우석 수기. 신흥무관학교』, 82~91쪽).

군장교 김훈 등 서로군정서 출신들이 충원되었다. 사관연성소에서는 군사학, 총검술 등을 교수하였으며, 축성교범 등의 교재 등도 인쇄하여 사용하였다. 이장녕이 속했던 대한군정서의 편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총재 서일
부총재 현천목
사령관 김좌진
참모장 이장녕
사령관 부관 박영희
교수부장 나중소⁷⁸⁾

3·1운동 이후 서북간도에서 세력을 키워가던 독립군 세력에 대해 일제의 외교적 압박을 받은 중국군이 독립군을 체포하려 했다. 이에 따라 독립운동세력은 백두산 인근 삼림지대로 본격적인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전개된 것이 바로 청산리 전투였다. 1920년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전개된 청산리 전투는 대한독립군·대한군정서 등이 연합하여 일본군에게 대승을 거둔 전투였다. 일반적으로 독립군들은 비정규군의 수준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청산리전투에 참가한 연합부대는 비정규군의 역량을 넘어선 정규군과 마찬가지로 전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청산리 전투는 유격전이라는 약자의 전술을 극복한 정규전이라고 할 만하다. 전투상황을 잠시 살펴보겠다.

홍범도는 국내진공 작전도 염두해 두면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한편 김좌진 부대는 천수평전투를 치루고 어랑촌 서남단의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빠르게 이동하여 일본군 보다 유리한 천수평 입구 야계골 양측 고지를 선점하였다.⁷⁹⁾ 일본군은 이 사실을 알고 가노 대좌가 이끄는 연대병력으로 대한군정서 군대를 공격하였다. 치열한 교전이 펼쳐졌다. 김좌진 부대는 비록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일본군의 공격을 물리치고 있었으나 우세한 병력과 막강한 화력으로 무장한 일본군을 감당할 수 없었다. 당시 일본군은 보병, 기병, 포병을 포함하여 5,000여 명에 달했다. 김좌진 부대는 이들간의 치열한 전투와 강행군으로 지쳐 있었다. 김좌진 부대의 위기상황은 홍범도 연합부대의 등장으로 반전되었다.⁸⁰⁾ 홍범도 연합부대의 규모는 약 1,400명에 달하였으며, 이들은 김좌진 부대와 공동으로 일본군을 맹렬히 공격하였으며, 10시간 동안 전개된 전투는 독립군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어랑촌 전투는 청산리 전투에서 가장 큰 전투라고 할 수 있다.

청산리 전투에서 이장녕은 대한군정서 대원들의 제복을 직접 제작했다. 대한제국육군무관학교 제복에 근거해서 만들었다고 한다.⁸¹⁾ 또한 전투에서 이장녕은 서일과 함께 대민업무와 군수 및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했다. 따라서 이장녕은 청산리 전투에서 민간과 군수를 맡아 최전방에서 싸우는 전투부대의 후방을 담당했다.⁸²⁾

78) 『독립운동사』 제5권- 독립군전투사(상), 366쪽.

79) 김춘선, 「발로 쓴 청산리전쟁의 역사적 진실」, 『역사비평』 52호, 2000, 277쪽.

80) 조필균, 「항일무장독립전쟁의 군사사학적 연구-청산리 전역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군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126~127쪽.

81) 이덕산·최동원, 『백우 이장녕장군부자-독립운동약전』, 19쪽.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82) 위와 같음. 이장녕이 이범석의 우등불에 언급된 적이 없는 것처럼 실제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서일과 함께 북만으로 이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천착이 필요하다.

5. 독립군 재정비와 한국독립당 활동

청산리 전투 이후 이장녕의 활동은 만주지역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비슷한 경로를 보인다. 하지만 지청천이나 조성환, 조경환 처럼 관내로 이동하여 독립운동의 열기를 지속시키지는 못하였다. 1932년 순국했기 때문이다.

청산리 전투의 중요 세력이었던 김좌진과 홍범도는 1920년 12월 중순 ‘해산한 아군사에게 고한다’는 일본군의 화력 앞에서 잠시 벗어나 전열을 가다듬은 후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재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청산리 전투 이후 독립군 세력은 재기를 위해 동쪽지방으로 전력을 이동하였다. 이장녕은 대한군정서와 동행한 것일까. 다음의 회고록에는 홍범도 부대와 함께 이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때에 이장녕, 김승빈, 김모, 이모 등이 신흥학교에서 오다가 홍범도를 만나서 같이 밀산현 실리와 촌(십리와)에서 합하여 군대이름은 대한독립군이라고 개정하고 홍범도는 그 군대에 고문관 벼슬을 차지하였다. 이때에 참모장은 이장녕이었다.⁸³⁾

강군의 회고록에 보이는 이장녕은 대한군정서 참모장이었다. 강군이 사관연성소를 졸업하였고 대한군정서에서 활동하였다면 이장녕의 존재를 모를 리가 없었다. 어찌되었던 이장녕은 목릉을 거쳐 밀산으로 이동하였으며, 독립군의 재건을 위해 힘썼다. 이장녕은 이만까지 독립군 부대와 동행한 것으로 보인다. 1921년 독립군들이 자유시 참변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 이장녕은 이만시에 머물러 있었다.⁸⁴⁾ 이장녕은 이곳에서 결성된 대한독립단의 참모역을 담당하였다.⁸⁵⁾

이장녕은 연해주 지역에서의 활동을 접고 다시 만주지역으로 활동영역을 옮겼다. 이장녕은 1921년 6월 자유시 참변을 겪은 서일과 함께 밀산지역으로 다시 돌아왔다.⁸⁶⁾ 밀산 백포자에서 서일과 함께 대한군정서를 재건하였으며, 직책은 참모였다.⁸⁷⁾ 이후 이장녕은 남만한족대표회의 때 이름을 올렸다.⁸⁸⁾ 또한 남만한족대표회의 때도 군사부 참모직을 맡았다. 그런데 과연 이장녕이 이곳까지 와서 참석했는가는 따져볼 문제이다. 그는 주로 김좌진 계열과 활동하였다. 1923년 1월 연길, 영안, 돈화지역의 한인사회를 하나로 연합하는 자치운동을 전개하였다. 즉 이장녕은 한인사회의 안정을 위해 당시 중국의 실권자였던 장작립에게 한인자치에 필요한 부분을 청원하려 했다.⁸⁹⁾ 실질적인 효과는 미지수였지만 당시 불안정한 만주지역 정세 속에서 한인자치운동은 무장투쟁과 함께 독립운동가들의 중요한 화두였다.

한편 이장녕은 1923년 부친에게 서신을 보내 그간의 사정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923년 가을 길림성 서란현 노흑정자로 거처를 옮겼다.⁹⁰⁾ 이장녕은 서란현에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1923년 국민대표회의에 길림성 대표로서 활동하였다.⁹¹⁾ 1920년대 중반경 자신의

83) 강군, 『나의 회상기 일편-군정서 군대에 대한 강군(강희원) 동지 회상기』, 7쪽.

84)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의部(28)』, 1921년 6월 26일.

85) 대한독립단의 임원들은 다음과 같다. 총재 서일, 부총재 홍범도, 참모장 김좌진 등이다.

86)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의部(29)』, 1921. 8. 12.

87)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의部(32)』, 1922. 2. 28. 구성원은 임원 약 30명, 일반대원 200명의 규모였다.

88)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의部(34)』, 1922. 10. 4.

89)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의部(35)』, 1923. 2. 27.

90) 이덕산·최동원, 『백우 이장녕장군부자-독립운동약전』, 22쪽.

91) 『독립신문』, 1923년 6월 13일자. 「국민대표회의기사」.

거주지를 유하현에서 서란현으로 이전하였다.⁹²⁾ 이처럼 그는 서란을 거점으로 삼아 활동하였는데, 이는 1920년대 이후 삼원포 중심의 한인사회가 일제의 간도침략으로 인해 무참히 훼손되면서 또 다른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려는 의도에서였다.

그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한 것은 1924년 3월 하순 남만지역 독립운동단체 통일주비회를 조직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전만통일회주비회는 이장녕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성립 이후 약 4개월간 각 단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였다. 1924년 7월 각 단체의 대표들이 1924년 7월 10일 길림에 모여 주비회발기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장녕은 대한독립군의 대표로 참가하게 되었다.⁹³⁾ 그 뒤 김철을 대표로 하는 학우회 등 3개 단체를 받아 들여 총 11개 단체가 주축이 된 본회의에서 회의 의장으로 통의부 대표인 김동삼이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이장녕은 군사분과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924년 10월 말의 일이다. 하지만 이장녕은 남만주에 새로 성립될 단체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옹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주비회에서 탈퇴하였다. 이때 김철도 함께 탈퇴하였다.⁹⁴⁾

한편 일제는 이장녕이 1924년 4월 경 의성단에 일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당시 일제의 정보에 의하면, 의성단의 단장은 편강열이었으며, 이장녕은 군 참모를 맡았다. 다만 의성단이 1924년 7월경 정의부로 통합되면서 이장녕의 역할도 정의부 내에서 결정되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의부에서 이탈한 이장녕은 신민부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이장녕이 신민부에서 활동한 이유는 첫째 대한군정서 구성원이었다는 점과 신민부가 지향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해 불신을 갖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장녕은 신민부에서 참의원을 맡았다. 그러나 이후 신민부에서 이장녕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그 후 뚜렷한 자료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지복영의 구술에 따르면 1926년에서 1927년경 이장녕은 길림성 오상현에서 활동하면서 ‘한얼소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그 학교 교가를 직접 만들었다고 한다.⁹⁵⁾ 이로 보아 이장녕은 신민부 소속으로 이주한인에 대한 교육에도 깊이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이장녕의 이름이 보이는 것은 민족유일당운동 이후 1930년 한족총연합회를 모체로 한 한국독립당 창당에 이르러서였다.

1930년 7월 이장녕, 홍진, 지청천, 조경한, 황학수, 신숙 등이 한족총연합회와 생육사⁹⁶⁾를 모체로 하여 중동선 철도선의 하나인 위하현에서 한국독립당을 창당하였다. 한국독립당은 인재양성과 운동자금 확충을 위한 활동에 진력했다. 한국독립당의 강령은 삼본주의의 바탕을 두고 민본정치의 실현, 노본경제의 조직, 인본문화의 건설을 추구하였다.⁹⁷⁾ 중앙집행위원회를 조직한 한국독립당은 이후 각지의 주민회를 연합하여 일반주민을 결속하고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표면기관으로 1931년 2월 한족자치연합회를 조직하였다.⁹⁸⁾ 한국

92) 이장녕의 부친 이병삼은 1943년 6월 길림성 서란에서 숨을 거두었다. 묘지 역시 서란현 소성자에 모셔져 있지만 후손들은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2013년 2월 7일 이장녕 손자 이철희 씨 자택 면담).

93) 『조선일보』 1924년 5월 7일자, 재만독립당 통일을 계획중. 이장녕은 1924년 경 이미 서란에 거주하였음이 분명하다. 그가 윤각, 박성준 등과 함께 길림 대표로 전만통일주비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94) 채영국, 『1920년 후반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27쪽.

95)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독립운동가의 삶과 회상』 1, 독립기념관, 2012, 630~631쪽.

96) 지복영이 기억하는 생육사는 이러하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때가 없으니까, 움직이려면은 뭐 하다 못해 총 한자루래도 사야 되고 왔다갔다 연락을 해도 교통비가 들어야 되고 하니까 그거 전부 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나을 때가 없으니까 우리 동포들이 의무적으로 납세하듯이 거두어서 하자는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독립운동가의 삶과 회상』 1, 634쪽).

97) 이현주, 『한국광복군 총사령 지청천』, 역사공간, 2010, 109쪽.

98) 한국독립당의 조직과 간부에 대해서는 장세운, 『한국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연구』, 9~10쪽 참조. 이

독립당은 만주지역 독립운동 진영의 통합에 주력하였다.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 남만주에서는 조선혁명당이 조직되었고, 북만주에는 한국독립당을 조직되었다. 한국독립당과 조선혁명당은 남북만주라는 지역적 상황과 대일항전의 여건을 감안하여 역할분담체제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⁹⁹⁾

한국독립당은 ‘만주사변’이 발발하자 10월 18일 남대관, 권수정을 중심으로 한족연합회, 국민부, 한족농무회, 조선혁명당 등의 대표 30여 명을 石頭河子에 소집해 시국대책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중국군과 공동전선을 펴 일제에 대항하기로 결정하였다. 1931년 11월 五常縣 大石河子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장래의 대일항전과 중국군과의 합작이라는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은 안건을 의결하였다.

- 첫째, 각군에 총동원령을 내려 정개적 군사 행동을 개시할 것
- 둘째, 당내 일체 공작을 군사 방면에 집중할 것
- 셋째, 특과원을 길림성 항일 당국에 파견하여 한중 합작을 상의할 것¹⁰⁰⁾

지청천은 고립 분산적이며 소규모인 유격전으로는 새로운 전황에 대응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항일무장 역량 강화를 위해 한중 연합을 내세웠던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한국독립당은 11월 10일 중동선 철도 연선을 중심으로 각 군구에 총동원령을 내려 소집과 징모를 실시하면서 지청천을 총사령, 이장녕을 참모장으로 하는 한국독립군을 조직하였다. 편제는 다음과 같다.

- 총사령장관 지청천
- 부사령장관 남대관
- 참 모 관 이장녕(후임 신숙, 조경한)
- 재무겸 외교관 안야산
- 외용군 훈련대장 이광운
- 의용군 중대장 오광선
- 암살대장 이우정
- 의용군 소대장 이춘정
- 별동대장 한광빈
- 헌병대장 배성운
- 통신부대 겸 검사역 신원균
- 서기장 홍만호
- 고문 겸 대일구국회 회장 서일봉¹⁰¹⁾

초창기 한국독립군은 병력 규모면에서 대규모 병력을 구성하기는 무리였다. 따라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이 병력문제와 중국군과의 연합문제였다. 총사령 지청천은 징모위원을 선임하고 각 군구에 파견하였다. 그리고 한국독립군은 11월 12일 신숙과 남대관을 중국군 李杜¹⁰²⁾와 鄭超부대에 파견하여 한국독립군과의 합작을 협상하였다. 이 때 합의된 사

현주는 한족자치회의 결성시기를 1930년 8월경으로 보았으며, 장소 역시 주하현 하동농장으로 비정하였다(이현주, 『한국광복군 총사령 지청천』, 111쪽).

99) 이현주, 『한국광복군 총사령 지청천』, 112쪽.

100)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 157쪽.

10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0, 619쪽.

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양군은 어떠한 경우라도 장기 항전을 맹세한다.

둘째 중동철로를 경계로 하여 서부전선은 중국군이 맡고, 동부전선은 한국독립군이 담당한다.

셋째 한중양군의 전시 후방교련은 한국장교가 맡고, 한국독립군의 소요일체자료는 중국군이 공급한다.¹⁰³⁾

중국군과의 연합전이 가시화되면서 한국독립군은 병력 징집구역을 조정하였는데, 밀산·호림·동녕·왕청·목릉·영안·무송·화룡·훈춘·연백(?)·액목·길림·오상·서란·아성·쌍성·돈화지역으로 나누어 징집요원을 파견하였다. 징집은 각기 소관 구역에서 새로 모집할 장정을 '33제'로 편성하여 실시하였는데, 30명을 1개 소대 3개 소대를 1개 중대 3개 중대를 1개 대대 3개 대대를 1개 연대, 3개 연대를 1개 사단으로 편성하는 것이었다.¹⁰⁴⁾ 장비와 병참의 부족을 피할 수 없었지만 중국군과의 연합을 통해 한국독립군은 대일항전의 의지를 높여 갔다.

이 과정에서 이장녕은 만주국군의 압력이 거세지자 일가족을 관내로 이주시키려고 하는 등 관내로 이동을 고려했다. 당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만주에서의 생활을 접고 관내로 이동하던 시기였다. 이장녕은 1932년 1월 24일, 가산을 정리하고 관내로 거처를 이동하던 중 일제에 매수된 중국인에게 암살당하고 말았다.

6. 맺음말

대한민국군의 모태를 어디로 정할 것인지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제국 일본의 침략을 받고 대한제국의 군대는 해산되었다. 이장녕은 대한제국육군무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한 대한제국의 정식 장교였다. 그가 멸절한 국가의 군대가 이민족에 의해 해체되는 과정을 보면서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박승환처럼 자결한 사람도 있지만 이장녕은 망명을 통해 독립군기지를 건설하고자 했다. 이장녕은 한 시대를 불꽃같이 살다간 위대한 독립운동가이자 진정한 군인이었다.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를 졸업하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자신의 길을 끊임없이 재촉하였다. 이것이 바로 신흥무관학교의 설립으로 구체화되었다. 하지만 이장녕의 생애에 대한 연구는 그가 치열하게 전개한 독립운동만큼 주목받지 못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이장녕 출생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려 했다. 지금까지 이장녕의 출생지(본적)에 대해서는 천안 목천읍 남화리 또는 서리 및 동리로 사료마다 달리 기재하였다. 그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가 망명할 때 조부와 부모 모두 함께 동행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다만 이장녕의 큰 아들 이의복의 제적등본과 1972년 이은상에게 이의복이 진술에는 서리로 되어 있으며, 국가보훈처 공적조서에는 남화리로 되어 있다.

102) 李杜 (1880-1956) 는 중국에서도 항일장령으로 인정한 군인이며, 길림성 자위군총사령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본명은 李荫培이며, 자는 植初이다. 요녕성 출신으로 정통군인 출신이었으며, 9.18 이후에는 항일의 선봉에 서게 된다.

103)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 157쪽. 『백강회고록』에는 첫째 길림자위군과 한국독립군은 연합하여 항일작전을 수행한다. 둘째 양군은 중동선을 한계로 선의 서부는 자위군이 담당하고, 선의 동부는 독립군이 담당한다. 셋째 무기, 탄약 기타 일체 군수는 자위군이 독립군에게 제공한다. 라고 했다(한국종교협회, 『백강회고록』, 한국종교협회, 1979, 196쪽).

104) 한국종교협회, 『백강회고록』, 196쪽.

둘째, 신흥무관학교 설립에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이장녕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반 학계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는데 본고에서는 이 부분을 바로잡는데 주력했다. 이장녕 가문은 1907년 11월 중국으로의 망명을 단행하였으며, 다음해 2월에 유하현에 정착했다. 이것은 신민회의 독립운동기지 건설에 따른 조치 일 수도 있지만 우당이나 석주 가문보다 약 3년 먼저 이주하였으며, 후일 김대락의 일기에서도 보이듯 후발 이주자들에게 선이주자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장녕은 신흥무관학교 설립부터 관여하여 교관, 교장까지 역임하면서 독립군 배출에 전력을 다했다. 특히 그가 백산학교 교사였다는 점은 서간도지역에서의 활동범위가 얼마나 넓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셋째, 서로군정서와 대한군정서에서의 역할을 한 군인이었다는 점이다. 두 단체에서 그것도 교관으로 활동한 것은 그가 서북간도지역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무관으로서의 위상이 높았다는 점을 반증한다. 이장녕은 대한군정서에서 군수품 모집과 청산리 전투의 후방부대를 관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한제국기의 제복을 근거로 군복을 제작하였다는 점은 대한제국육군무관학교에서 독립군으로 이어지는 것이 정신만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그가 어느 단체에서 활동하였든지, 군사참모장의 역할을 수행한 점에 비추어보면 무장으로서의 이장녕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진정한 이 시대의 무인으로 가치를 실현한 독립운동가, 그의 활동은 오늘날 대한민국군의 모태가 어디에 있는지 조금이나마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인물세션 1-2, 발표1>

고당 조만식의 삶과 항일독립운동

권 용 우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古堂 曹晩植의 삶과 抗日獨立運動

권용우
단국대 명예교수

I. 서론

오늘, 제가 발표하려는 주제는 “古堂 曹晩植의 삶과 抗日獨立運動”에 관해서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민족지도자(民族指導者)의 거대한 삶에 관해서 2,3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발표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로 생각됩니다. 먼저,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면서, 저에게 배정된 시간에 맞추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순서는, 먼저 고당 선생의 출생과 일본 유학시절에 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이어서 고당 선생의 항일독립운동(抗日獨立運動)의 중심을 이루는 교육구국운동(教育救國運動), 조선물산장려운동(朝鮮物産獎勵運動), 3·1 독립운동과 신간회(新幹會)의 활동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고, 저의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II. 古堂의 出生과 留學生活

1. 古堂의 出生과 靑少年時節

(1) 고당 선생은 1883년(高宗 20년) 2월 1일(음력 1882년 12월 24일) 평안남도 강서군(江西郡)의 창녕조씨(昌寧曹氏) 집안에서 아버지 조경학(曹景學)의 외동아들로 출생하여, 이 곳에서 어린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곱 살때부터 한학(漢學)을 공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공부는 열다섯 살까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열여섯 살이 되면서부터는 친구 한정교(韓鼎敎)와 동업으로 포목상(布木商)과 지물포(紙物鋪)를 경영하였는데, 이는 아버지의 권유에 의한 것으로서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사를 통해서 삶의 법칙을 배우려는 것이었습니다.¹⁰⁵⁾ 그러나, 이 때 고당은 술과 담배를 즐기며 놀기를 좋아하는 난봉꾼으로서, 무절제(無節制)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정은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였지만, 평온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2. 암울했던 나라의 政勢

(1) 그런데, 고당 선생의 청소년시절 나라의 정세(政勢)는 참으로 암울하였습니다. 그 때로 되돌아가보겠습니다.

1894년 2월, 전라도 고부군수(高阜郡守) 조병갑(趙秉甲)의 탐학(貪虐)에 항거하는 동학농민봉기(東學農民蜂起)가 일어났으며, 6월에는 일본군이 경복궁(景福宮)을 침입하는 갑오변란(甲午變亂)으로 말미암아 정국(政局)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갑오개혁(甲午改革)으로 백성들은 참으로 어리둥절하였습니다. 1894년 6월, 김홍집(金弘集)을 총리대신으로 내각(內閣)을 출범시키면서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를 설치하고, 내정개혁(內政改革)의 뜻을 올렸습니다. 이 때, 내정개혁의 주된 내용은 청(淸) 나라와의 주종(主從) 관계의 청산, 양력(陽曆)의 사용, 각종 법제(法制)의 개편, 반상신분(班常身分)의 철폐, 과거제도(科擧制度)의 폐지, 공사노비(公私奴婢)의 혁파 및 과부재가(寡婦再嫁)의 허용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은 형식상으로는 시대적(時代的) 조류를 반영한 대개혁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처음부터 일본의 일방적인 의도에 따라 그들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¹⁰⁶⁾

더욱이, 세상을 놀라게 했던 것은 1895년 10월 8일(음력 8월 20일)의 을미사변(乙未事變)이었습니다. 이는 갑오변란이 있은 후 명성황후(明成皇后)가 러시아를 끌어들였다고 판단한 일본이 저지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재(駐在) 일본공사(日本公使) 미우라 고오로(三浦梧樓)가 일본의 검객(劍客)과 낭인(浪人)을 지휘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본 우리 민중들은 ‘왜놈들이 감히 궁궐(宮闕)에 침입해 국모(國母)를 살해하다니 개·돼지보다 못한 놈들’이라는 반일감정(反日感情)을 격화시켰으며, 전국에 걸쳐 의병항쟁(義兵抗爭)이 일어나 나라가 어수선하였습니다.

그런데, 명성황후 시해사건으로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12월 30일(음력 11월 15일)에 단발령(斷髮令)의 조칙(詔勅)이 내려지면서 상투를 자르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위생(衛生)에 이롭고 작업(作業)에 편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유교적(儒敎的) 관념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身體)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은 효(孝)에 반한다’는 인륜(人倫)을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발령은 형식상으로는 왕명(王命)에 의한 것이었으나, 그 배후에

105) 김학중, 『민족의 십자가를 짊어진 간디 조만식』, 도서출판 넥서스, 2010, 31면.

106) 이선근, “갈등 속의 개혁 - 갑오개혁”, 『한국현대사 1』, 신구문화사, 1969, 395면.

일본의 압력과 친일내각(親日內閣)의 횡포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민심(民心)이 더욱 흉흉하였습니다. 을미사변으로 대일감정(對日感情)이 극단적으로 악화되어 있었는데, 단발령이 내려짐으로써 항일의식(抗日意識)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 이 을미사변으로 말미암아 고종(高宗)은 자신과 왕실(王室)의 안위(安慰)에 대한 불안을 느껴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義兵)을 진압하기 위하여 친위대(親衛隊)가 지방으로 내려간 사이에 친러파(親露派)인 이범진(李範晉)·이완용(李完用) 등이 고종과 세자(世子)를 러시아 공사관(公使館)으로 옮겨가는 아관파천(俄館播遷)을 단행하였는데, 이로써 앞날이 너무나 혼미하였습니다. 이 때가 1896년 2월이었습니다.

이 뿐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세계열강(世界列強)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하여 이권(利權)을 쟁기기 위하여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민중들 사이에 반외세(反外勢)의 소리가 높았습니다.

(3) 아관파천을 전후한 시기(時期) 나라의 사정은 참으로 암울하였습니다. 국왕(國王)이 신변의 보호를 위하여 왕궁(王宮)을 떠나 외국의 공사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국가의 자주성(自主性)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1896년 4월 7일 민족의 선지자(先知者) 서재필(徐載弼)이 민권사상(民權思想)·평등주의(平等主義)·민족주의(民族主義)를 제창하면서 독립신문(獨立新聞)을 창간하여,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신문의 창간에 이어 서재필이 이상재(李商在)·이승만(李承晩)·윤치호(尹致昊)·이동녕(李東寧)·남궁억(南宮憶) 등과 함께 독립협회(獨立協會)를 설립하면서, 두 기관이 짝을 이루어 민족의식(民族意識)을 일깨우고 민중들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보겠습니다. 고종은 왕궁을 떠나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고 있었으며, 나라의 형편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독자적인 정책을 펼 수가 없었고 외세(外勢)에 의존하여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일본의 침투는 날이 갈수록 거세어져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라의 이권(利權)들이 속속 외국으로 넘어가고 있어서 나라의 존망(存亡)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4) 독립신문의 창간과 독립협회의 설립은 이처럼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형편을 방관할 수가 없어서 개화지식인(開化知識人)들이 구국(救國)의 일념에서 분연히 일어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두 기관은 왕실(王室)과 조정(朝廷)의 외세의존정책(外勢依存政策)을 비판하고, 우리나라의 자주독립(自主獨立)과 내정개혁(內政改革)을 부르짖었습니다. 더 나아가, 독립신문과 독립협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민중의 계몽과 나라의 자주독립의 기틀을 마련해나갔습니다. 특히,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를 통하여 민중(民衆)을 중심으로 한 자주국권운동(自主國權

運動)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독립신문과 독립협회가 짝을 이루어 왕실과 조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비판이 잇따르자, 1897년 2월 20일 고종은 러시아 군사고문단(軍事顧問團)의 궁궐경비를 보장받고 경운궁(慶運宮, 지금의 德壽宮)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종은 환궁(還宮) 직후 통치체제(統治體制)를 정비하고, 자주독립국가(自主獨立國家)의 면모를 갖추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하여, 연호(年號)를 광무(光武)로 하고, 1897년 10월 12일에 황제즉위식(皇帝卽位式)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호(國號)를 조선(朝鮮)에서 대한(大韓)으로 바꾸고’, 대한제국(大韓帝國)이 자주독립국가임을 내외에 선포하였습니다.¹⁰⁷⁾

이 때, 대한제국의 통치이념을 담은 법제(法制)에 ‘구본신참’(舊本新參)의 논리가 받아들여졌습니다.¹⁰⁸⁾ 말하자면, 옛것과 새것을 절충하고 참작한다는 것이었는데, 황제권(皇帝權)을 지키면서 서양(西洋)의 새로운 조류(潮流)를 수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899년 8월 17일에 9개조로 된 「대한국(大韓國) 국제(國制)」를 반포하였는데, 황제가 입법권·행정권·사법권과 선전(宣戰)·강화(講和)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¹⁰⁹⁾ 이는 황제권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당시 독립협회의 주장과는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또, 여기서의 「국제」는 국가통치의 조직과 통치권의 행사를 황제의 명령(命令)으로 규정한 국가기본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¹¹⁰⁾

(5) 그러나, 나라의 사정은 특별히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1904년에 접어들면서 미국을 위시하여 자국(自國)의 거주민(居留民) 보호를 구실로 각기 군대를 서울에 입성시키고, 일본은 우리 조정(朝廷)으로부터 황무지개간권을 얻어내 식민지로 만들려는 공작을 펴나갔습니다. 또, 이 무렵에 일본은 우리나라의 전(全)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식민지화(植民地化)를 위한 획책이었습니다.

1904년 2월 23일에는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가 강제로 체결되면서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내정간섭(內政干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의정서에는 일본이 한국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을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지만(동 의정서 3조), ‘일본의 시정개선(施政改善)에 관한 충고를 한국이 받아들여야 한다거나 제3국의 침략에 의하거나 내란(內亂)으로 인하여 한국 황실(皇室)의 안녕보존이 위협에 처할 경우에

107) 변태섭, 『한국사통론(4정판)』, 삼영사, 2009, 409면; 이기백, 『한국사신문(개정판)』, 일조각, 1977, 356면; 이선근, 『대한국사(8)』, 신대양사, 1973, 268~269면; 장영숙, 『고종 44년의 비원』, 너머북스, 2010, 236면; 전봉덕, 『한국근대법사상』, 박영사, 1981, 99면; 최종고, 『법사와 법사상』, 박영사, 1980, 431면.

108) 장영숙, 앞의 책, 237면; 한영우,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현대사의 인과적 이해”, 『한국현대사』, 세종연구원, 2013, 71면.

109) 변태섭, 앞의 책, 410면.

110) 전봉덕, 앞의 책, 105~106면.

일본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거나 이 목적을 위하여 군사전략상(軍事戰略上) 필요한 지역을 사용할 수 있다거나'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¹¹¹⁾ 그리고, 일본은 그 후 두 차례에 걸친 한일협약(韓日協約)을 통하여 식민지화를 위한 터전을 다져나갔습니다.

(6) 일본이 우리 조정을 더욱 압박한 것은 태프트-가쓰라 메모(The Taft-Katsura Memorandum)였습니다. 이는 1905년 7월 루스벨트(Roosevelt, T. : 1858~1919)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육군장관 태프트(Taft, W. H.)가 일본에서 가쓰라 타로(桂 太郎)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서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상호교환 조건으로 체결한 밀약입니다.¹¹²⁾ 이로써, 우리나라는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3. 일본 留學生活

(1) 고당 선생은 이러한 혼미한 시기에 태어나 기울여져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애국(愛國)·애족(愛族)의 정신을 키워갔습니다. 10대 시절의 방황을 접고, 기독교(基督教)에 입문하면서 새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 최초의 7인의 목사(牧師) 중의 한 사람인 한석진(韓錫晉 : 1868~1939)과 그의 아들 한정교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때부터 새로운 희망을 찾아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부터 기울여져가는 조국(祖國)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1905년 23세의 늦은 나이에 숭실학교(崇實學校)에 입학하여 신학문(新學問)을 배웠습니다. 숭실학교는 1897년 미국 북장로교(北長老敎) 선교사(宣敎師) 윌리엄 M. 베어드(William M. Baird, 한국명 裴緯良 : 1862~1931)가 설립한 중등교육기관이었습니다.

고당 선생이 숭실학교에 입학했던 그 해 11월 17일 일본에 의하여 강제로 을사오조약(乙巳五條約)이 체결되고, 조선에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면서 통감(統監)에 의한 내정간섭이 노골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당 선생은 학문을 중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2) 잃어버린 나라를 구하려면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고당 선생은 성경·수학·물리·지리·생물·체조 등 여러 과목을 공부하면서, 특히 베어드 교장으로부터 지행(知行)과 언행(言行)을 일치시키는 생활태도를 배웠습니다.¹¹³⁾ 그리고, 1908년 3월에 숭실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선진한 문물(文物)을 배우기 위해서 학문의 길에 들게 되었습니다. 조국의 독립과 독립 후의 국정(國政)을 위해서는 선진국(先進國)의 법과 제도를 먼저 연구해야한다는 당위때문이었습니

111) 이기백, 앞의 책, 364~365면.

112) 유영익, 『이승만의 생애와 건국비전』, 청미디어, 2019, 36면; 이도형, 『망국과 흥국, 19세기 말 한국과 일본』, 한국학술정보(주), 2012, 306~311면.

113) 고당기념사업회 편, 『민족의 영원한 스승, 고당 조만식 전기』, 기파랑, 2010, 44면.

다.¹¹⁴⁾

그 때가 1908년 4월이었습니다. 선생은 일본으로 건너가 세이소꾸영어학교(正則英語學校)에 입학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910년 4월에는 메이지대학(明治大學) 전문부 법과에 입학하여 학업에 매진하였습니다. 이는 법학을 통한 조직적이고 섬세한 리더십을 키우기 위함이었습니다.¹¹⁵⁾ 이 무렵에 김성수(金性洙) · 송진우(宋鎭禹) · 장덕수(張德秀) · 신익희(申翼熙) · 김병로(金炳魯) · 현상윤(玄相允) · 전영택(田榮澤) 등과 교류하면서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아야 한다는 뜻을 굳혀나갔습니다.

(3) 그런데, 고당 선생에게 고국에서 참으로 난감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大韓帝國)이 최후의 날을 맞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창덕궁(昌德宮)에서 순종황제(純宗皇帝)가 대신(大臣)들과 어전회의(御前會議)를 마치고, 다음과 같은 조칙(詔勅)을 내렸습니다. “짐(朕)은 한 · 일 양국의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서로 합하여 일가(一家)가 되는 것이 만세(萬世)의 행복을 도모하는 소이로 생각하고, 이에 한국의 통치를 모두 짐이 가장 신뢰하는 대일본국(大日本國) 황제폐하에게 양여하기로 결정하였다”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의하여 한 · 일 합병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조선통감 데라우찌 마사다케(寺內正毅)를, 한국은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을 각각 전권위원(全權委員)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 둘은 꺼릴 것이 없었습니다. 이들에 의하여 체결된 「한 · 일 합방조약」은 1주일간 비밀에 붙여져 있다가 29일에 가서야 세상에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일본에서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탄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고당 선생의 심정이 어떠하였을까요. 이로써, 고당 선생은 2천만 민중과 함께 35년간 일제(日帝)의 무단정치(武斷政治)의 질곡(桎梏)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고당 선생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로부터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III. 敎育救國運動

1. 五山學校 교사 · 교장 시절

(1) 1913년 3월, 메이지대학 전문부를 졸업하고 귀국한 고당 선생은 ‘경술국치(庚戌國恥)의 설욕(雪辱)’을 다짐하면서 조국을 위한 길을 찾아나섰습니다.

이 때, 뒷날 3 · 1 독립운동 민족대표(民族代表) 33인 중의 한 사람으로 독

114) 위의 책, 52면.

115) 김학중, 앞의 책, 55면.

립운동에 헌신했던 남강(南崗) 이승훈(李昇薰 : 1864~1930)이 설립한 민족교육(民族教育)의 요람인 오산학교(五山學校)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산학교는 1907년 평안북도 정주(定州)에서 설립되었는데,¹¹⁶⁾ 이 무렵에는 교육을 통하여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교육구국(教育救國)의 기운이 일고 있을 때였습니다. 1905년, 일제(日帝)의 강압에 의하여 을사오조약이 체결되면서 외교권(外交權)마저 박탈됨으로써 나라가 있으나 껍데기뿐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선각자들은 하나같이 교육을 통하여 민중을 계몽하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는 열의에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한 국권회복운동(國權回復運動)은 1907년 4월 안창호(安昌浩) · 양기탁(梁起鐸) · 전덕기(全德基) · 이회영(李會榮) · 이동녕 · 신채호(申采浩) · 안태국(安泰國) · 류동열(柳東說) 등이 중심이 되어 창립한新民회(新民會)의 목적과 이념이 뒷받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新民회의 목적이 ‘실력양성을 통한 국권회복’이었습니다.

오산학교는 바로 이러한 정신에 따라 설립되었는데, 오산학교와 같은 시기에 설립된 학교로서는 서울의 오성학교(五星學校) · 봉명학교(鳳鳴學校) · 약현학교(藥峴學校), 평양의 대성학교(大成學校), 대구의 신명여학교(信明女學校), 광주(光州)의 수피아여학교(須皮亞女學校), 전주의 기전여학교(紀全女學校) 등이었습니다.¹¹⁷⁾ 이 때, 오산학교는 평양의 대성학교와 더불어 그 명성이 전국에 널리 알려졌던 바 있었습니다.

(2) 이 무렵, 고당 선생은 오산학교의 부름을 받고 몸소 교육구국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선생께서는 교사로 부임하여 지리 · 역사 · 영어를 가르치셨는데, 2년이 지난 1915년 5월에 교장에 취임하여 밤낮 없이 학생들과 함께 지내면서 학생지도에 온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교장이요, 교사요, 사감이요, 사환이었습니다.¹¹⁸⁾ 말하자면, 1인 4역을 수행하면서 제2세 교육에 온몸을 바치셨던 실천적(實踐的) 지도자였습니다.

이 시절에 고당 선생은 학생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교훈은 ‘눈물과 땀과 피’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눈물은 동정과 사랑을, 땀은 땀 흘려 일함을, 피는 희생을 의미합니다”라고 강조하면서,¹¹⁹⁾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본받아서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땀 흘려 일해야 하며, 최후에 가서 나라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이셨습니다.¹²⁰⁾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당

116) 오산학교 설립자 남강 이승훈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어린 시절 행상(行商)을 하면서 어렵게 살았는데, 1907년 도산(島山) 안창호(安昌浩)의 ‘민중의 자각을 호소하는 연설’을 듣고 이에 감동되어 오산학교를 설립하였다는 기록이 있다(박영규, 『한권으로 읽는 일제강점실록』, 웅진씽크빅, 2017, 253면).

117) 이광린, “서당에서 학교로 -한말의 교육”, 『한국현대사 3』, 신구문화사, 1969, 295면.

118) 고당기념사업회 편, 앞의 책, 71면.

119) 김학중, 앞의 책, 59면.

120) 위의 책.

선생은 학생들에게 검소한 생활을 강조하고, 앞장 서서 스스로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당 선생은 학생을 책망할 때는 언제나 “그래, 오산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이 그래서 되겠는가?”라고 나무라셨다고 합니다.¹²¹⁾ 이는 고당 선생의 인성교육(人性教育)의 지표(指標)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설립자 남강 선생과 교장 고당의 신념이 배어있는 교육이념 내지 목표였습니다.

(3) 고당 선생의 교육열은 오산학교를 놀랍게 변화시켜나갔습니다. 학교 전체가 검소한 기풍으로 자리잡아갔습니다.¹²²⁾ 그 당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공부했던 학생 중에 뒷날 영락교회(永樂教會) 목사로 봉직했던 한경직(韓景職)이 고당 선생의 제자입니다. 한경직(1902~2000) 목사는 영락교회의 설립자이면서 홀트양자회 이사장, 세계선명회 이사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숭실대학교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¹²³⁾ 그리고, 1947년 11월 5일에 대광중고등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고당 선생의 교육구국의 정신에 영향 받은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평양 산정현교회(山亭峴教會) 목사로서 신사참배(神社參拜) 반대운동에 앞장섰던 주기철(朱基徹 : 1897~1941)도 오산학교에서 고당 선생의 지도를 받았던 제자입니다.¹²⁴⁾ 고당 선생의 오산학교 제자를 말씀드리려면, 우리가 애송하는 시(詩) 「진달래꽃」의 작가 김소월(金素月, 본명 金廷湜 : 1902~1934)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김소월은 고당 선생이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인 1916년 경에 오산학교에 입학했는데, 그는 고당 선생의 인격적(人格的) 감화를 크게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¹²⁵⁾

김소월이 고당 선생을 기리며 쓴 시 「제이·엠·에스」가 있습니다. 여기 ‘제이·엠·에스’는 조만식의 영문(英文) 이니셜입니다. 「제이·엠·에스」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평양서 나신 인격의 그 당신님 제이·엠·에스 / 덕 없는 나를 미워하시고 / 채주 있던 나를 사랑하셨다 / 오산(五山) 계시던 제이·엠·에스 / 십년 봄 만에 오늘 아침 생각난다” - 이는 김소월이 오산학교 재학시절 자신의 채주를 사랑해주었던 고당 선생의 인자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시입니다.

(4) 고당 선생의 민족부흥을 위한 교육구국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28년 4월, 평양에서 숭인상업학교(崇仁商業學校)의 인가를 받았는데, 이 학교는 숭인학교가 모태인 셈이었습니다.¹²⁶⁾ 이 학교의 교장은 고당 선생의 제자인 김항복(金恒福)이었지만,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는 고당 선생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당 선생

121) 고당기념사업회 편, 앞의 책, 78면.

122) 위의 책.

123) 동아출판사 편,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29)』, 1984, 412면.

124) 김정형, 『20세기 이야기, 1920년』, 답다출판, 2016, 229면; 동아출판사 편,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25)』, 1983, 347면.

125) 박목월, “철 이른 진달래꽃 : 김소월”, 『한국의 인간상(5)』, 신구문화사, 1967, 446면.

126) 고당기념사업회 편, 앞의 책, 133~136면.

은 교육구국의 의지는 이어져왔습니다.

2. 朝鮮民立大學設立의 추진

(1) 그런데, 특히 오산학교 설립자 남강 선생과 고당 선생의 교육구국의 정신은 조선민립대학(朝鮮民立大學) 설립추진에도 잘 나타나있습니다. 이 출발은 1919년 3·1 독립운동 당시로 거슬러올라갑니다. 그 당시 민족주의(民族主義) 진영의 지도인사들은 급진적인 항일투쟁방식(抗日鬪爭方式)으로는 독립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식하면서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일제(日帝)의 식민지교육정책(植民地教育政策)에 대항한 민족교육(民族教育)의 시급함을 깨닫고 ‘교육구국운동’으로의 방향전환을 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1920년 6월에 한규설(韓圭謨)·이상재·김성수·한용운(韓龍雲)·최규동(崔奎東)·김병로·오궁선(吳兢善)·조동식(趙東植) 등이 중심이 되어 조선교육협회(朝鮮教育協會)를 결성하였으며,¹²⁷⁾ 같은 해 차미리사(車美理士)·김신(金信)·방신영(方信榮) 등의 여성지도자들이 조선여자교육협회(朝鮮女子教育協會)를 결성하여¹²⁸⁾ 교육구국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1922년 11월에는 한규설·이상재·김성수·한용운·이승훈·조만식·현상윤·송진우 등이 중심이 되어 조선민립대학 기성회를 조직하고,¹²⁹⁾ 대학설립의 기초를 다져나갔습니다. 그리하여, 그 이듬해 3월 29일 발기인 1,170명 중 460여 명이 서울 종로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 모여 「조선민립대학 기성회」 발기총회를 개최하고 이상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발기취지서를 채택하였습니다.¹³⁰⁾ 이 날 채택된 발기취지서에 “우리의 운명을 여하히 개척할까. 정치냐 외교냐 산업이냐, 물론 이들 일이 모두 다 필요하도다. 그러나, 그 기초가 되고 요건이 되며 가장 급무가 되고 가장 선결의 필요가 있으며, 가장 힘있고 가장 필요한 수단은 교육이 아닐 수 없다. …… 심원(深遠)한 지식과 온오(蘊奧)한 학리(學理)는 이를 고등교육(高等教育)에 기하지 아니하면 불가한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거니와 사회최고의 비판을 구하며 유능유위(有能有爲)의 인물을 양성하려면 최고학부(最高學府)의 존재가 가장 필요하도다. 그처럼 중대한 사업을 우리 민중이 직접으로 영위하는 것은 차라리 우리의 의무라 할 수 있도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127) 강명숙, 『겨레의 시민사회운동가 이상재』, 역사공간, 2014, 132~133면; 이현희, 『이야기 독립운동사』, 청아출판사, 1994, 221~222면; 강근화, “월남 이상재의 활동과 사상이 이 시대에 주는 교훈”, 월남 이상재 선생 기념사업회 창립총회 및 기념강연 자료집, 2010, 38면; 손인수, “새 일꾼을 기르라-교육사상”, 『한국현대사 6』, 신구문화사, 1969, 186면.

128) 김형목, 『교육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169면; 박영옥, 『여성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169면; 신용하, 『일제강점기 한국민족사(상)』,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485면; 한상권, 『차미리사 평전』, 푸른역사, 2008, 223면; 최은희, “여권에서 애국으로-여성운동”, 『한국현대사 4』, 신구문화사, 1969, 331면.

129) 신용하, 앞의 책, 486면; 윤병석, 『증보 3·1 운동사』, 국학자료원, 2004, 131면; 이근호, 『청소년을 위한 한국사사전』, 청아출판사, 2013, 165면; 이선근 『대한국사 10』, 신태양사, 1973, 87면.

130) 강명숙, 앞의 책, 134면; 김정형, 앞의 책, 199면; 이선근, 앞의 『대한국사 10』, 87면; 이현희, 앞의 책, 224면.

더 나아가, 발기인 총회에서 이승훈 · 한용운 · 유진태(兪鎭泰) · 유성준(兪星濬) 등 8명을 상무위원으로, 송진우 · 조만식 · 현상윤 · 이갑성(李甲成) · 최린(崔麟) 등 30명을 중앙집행위원으로, 김성수 · 김병로 등 7명을 회금보관위원으로 선출하였습니다.¹³¹⁾

이 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상재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도 고대하던 민립대학을 세우기 위한 발기총회올시다. 나라 안팎의 동포들은 이에 호응하여 기금을 내주셔야 합니다. 나의 마지막 국가에의 봉사가 될 것이요”라는 결연한 개회연설을 하였습니다.¹³²⁾ 또, 동아일보(東亞日報)는 1923년 7월 28일에 “民大 期成運動의 發展”이라는 사설을 발표하여,¹³³⁾ 민립대학의 설립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설의 일부를 보면, “이 사업의 성패는 실로 조선민족(朝鮮民族) 전체의 문화향상(文化向上)의 능력을 시험하는 기회며 이 운동의 지속(遲速)은 실로 조선인(朝鮮人) 개개의 인격적(人格的) 가치를 감정(勘定)하는 시기가 아닌가”¹³⁴⁾라고 쓰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이 때 동아일보와 조선일보(朝鮮日報)도 민립대학의 설립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한민족(韓民族) 1,000만 명이 한 사람 1원씩”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1천만 원을 목표로 모금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¹³⁵⁾ 그러나, 이 계획은 일제(日帝)의 압력과 자금난으로 그 결실을 맺지 못하고 말았지만,¹³⁶⁾ 애국지사(愛國志士)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교육구국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민립대학 설립의 추진은 남강 선생과 고당 선생의 교육이념 내지 목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IV. 朝鮮物産獎勵運動

1. 國產品愛用과 愛國

(1) 고당 선생은 오산학교 교사 ·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언제나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스스로 국산품(國產品)만을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애국(愛國)과 항일(抗日)을 실천하는 방법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2) 또, 고당 선생은 언제나 무명 바지저고리와 두루마기 차림이었으며, 말총

131) 백완기, 『인촌 김성수의 삶』, 나남, 2012, 108~109면.

132) 이현희, 앞의 책, 224면.

133) 동아일보 편, 『동아일보 사설선집 1권』, 1984, 313~315면.

134) 위의 책, 314면.

135) 신형식, 『신학국통사』, 주류성, 2014, 510면.

136) 박영규, 앞의 책, 252면; 이선근, 앞의 『대한국사 10』, 89면.

으로 만든 모자를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¹³⁷⁾ 그리고, 선생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조선(朝鮮) 사람임을 알고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이것이 곧 그의 애국애족(愛國愛族)하는 삶이었습니다.

2. 朝鮮物産獎勵會의 創立

(1) 고당 선생의 국산품애용은 경제적(經濟的) 자립을 위한 출발점이었습니다. 개인이든 나라이든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남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당 선생의 신념은 조선물산장려회(朝鮮物産獎勵會)의 창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일제(日帝)로부터 경제적 자립을 통하여 민족(民族)의 실력을 기르려는 새로운 민족운동(民族運動)의 출발이었습니다. 이 때가 1920년 8월이었습니다.

고당 선생은 평양에서 김동원(金東元)·오윤선(吳胤善)·김보애(金寶愛) 등과 뜻을 모아 외래품 배척·국산품 애용·소비절약을 통한 경제적 자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때, 고당 선생은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쓰자. 모양이나 값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조선물산(朝鮮物産)을 애용해야 된다는 정신으로 우리의 것을 써야 한다. 거기에 비로소 우리의 살길이 열린다”라고 호소하였습니다.¹³⁸⁾

이 때, 조선물산장려회는 “우리 조선사람의 물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선사람은 조선사람이 지은 것을 사 쓰고, 조선사람은 단결하여 쓰는 물건을 스스로 제작하여 공급하기를 목적하노라”라는 설립취지를 내세우고,¹³⁹⁾ 다음과 같은 실천강령도 정하였습니다.¹⁴⁰⁾ 즉,

“첫째, 의복(衣服)은 남자는 무명베 두루마기를, 여자는 검정물감을 들인 무명치마를 입는다. 둘째, 설탕·소금·과일·음료를 제외한 나머지 음식물은 모두 우리 것을 사서 사용한다. 셋째, 일상용품은 우리 토산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외국상품을 사용하더라도 경제적(經濟的) 실용품을 써서 가급적 절약을 한다”였습니다.

그리고, 평양기독교회관에 조선물산장려회의 본부를 두고 활동을 펴나가면서, 음력 정월(正月) 보름날을 ‘국산품장려일’로 정하고 매년 기념행사를 거행하였습니다.¹⁴¹⁾ 이 기념행사에는 한지(韓紙)에 쓴 “내 살림 내 것으로”라는 표어를 앞세우고, 시가행진(市街行進)을 펼침으로써 일반대중들로 하여금 이 운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물산장려운동은 빠른 속도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으며, 지방 곳곳에 ‘물산장려회’나 ‘토산(土産)장려회’가 생겨났습니다. ‘단연회’(斷煙會)나 ‘금주회’(禁酒會)도 생겨났으며, 이는 마치 1907년의 국채보상운동(國債報償運動) 때와 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나갔습니다.

137) 고당기념사업회 편, 앞의 책, 71면.

138) 김학중, 앞의 책, 85면.

139) 이근호, 앞의 책, 443면.

140) 김정형, 앞의 책, 191면; 김학중, 앞의 책, 86면.

141) 고당기념사업회 편, 앞의 책, 146면.

또, 고당 선생의 물산장려운동은 김성수가 3·1 독립운동 직후 경성방직주식회사(京城紡織株式會社)를 설립하여 ‘2천만 한민족(韓民族)에게 모두 입힐 광목을 짜내자’라는 경영방침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성수는 경성방직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한국 땅에서 태어나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으며, 어찌 일본 사람의 광목으로 옷을 해 입으랴”라는 뜻을 펴나갔습니다.¹⁴²⁾ 이 때, 상표를 태극성(太極星)으로 정한 것도 경성방직회사가 민족기업임을 표방한 것이라고 합니다.¹⁴³⁾

(2) 그런데, 고당 선생에 의하여 창립된 평양의 조선물산장려회는 1923년 1월 유성준·유진태·이종린(李鍾麟)·백관수(白寬洙)·김철수(金喆壽)·이갑성 등에 의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¹⁴⁴⁾ 서울에서 창립된 조선물산장려회는 유성준을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각 지방에 분회를 설치하면서 그 활동을 전개해나갔습니다. 이 때, 대전·부산·마산·군산·개성 등 전국 각지에 25개의 분회가 설치되어, 물산장려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¹⁴⁵⁾ 한편, 동아일보는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등의 표어현상모집을 통해서 대중들의 관심을 고취하였습니다.¹⁴⁶⁾

서울의 조선물산장려회가 창립된 후 맞게 된 구정(舊正) 때부터 남자의 두루마기와 여자의 치마를 토산품으로 지어 입었으며, 일용품도 토산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조선물산장려회는 일반대중들에게 외래품 배척과 국산품 애용을 통해서 나라의 경제적 자립운동을 펴나갔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물품으로”라는 의식이 자리잡아갔습니다. 이 때, 일본 경찰이 간부들을 종로경찰서로 불러 구정을 기하여 실시키로 한 시가행진을 중지하도록 명령을 내렸으며 만일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무력진압하겠다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동아일보는 1923년 2월 15일자 사설 “物産獎勵의 行列禁止 - 偏見의 警察當局”을 통하여 일본 경찰의 처사를 비난하였습니다. “물산장려의 취지가 이와 같이 당연하고 또 신성하다 하면 이 당연한 취지, 신성한 목적을 널리 선전하기 위하여 시가(市街)에 행렬을 행함이 무엇이 불가한가. 조선물산장려회에서 일찍부터 음력 정초(正初)를 이용하여 천여 명 회원의 간친(懇親)을 도모하는 동시에 대대적으로 취지를 광포하기 위하여 경성시가(京城市街)에 행(行)을 지어 순회하기를 계획한 것은 세인(世人)이 숙지한 바이다”라고 전제하면서,¹⁴⁷⁾ “종로경찰서(鐘路警察署)는 이에 대하여 금지의 영을 발하고 만일 기어히 행렬을 행하는 경우에는 경찰과 충돌할 것을 각오하라 하였다 하니 대개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꾸짖었다.¹⁴⁸⁾

142) 이희승 자서전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한국능력개발사, 1977, 45면.

143) 위의 책, 46~47면.

144) 신용하, 『일제강점기 한국민족사(중)』,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219면.

145) 신형식, 앞의 책, 510면.

146) 강준만, 『한국근대사산책(6권)』, 인물과사상사, 2008, 324면.

147) 동아일보사 편, 앞의 책, 278면.

148) 위의 책.

(3) 일본 경찰이 이처럼 조선물산장려회의 집단활동을 탄압했지만, 서울과 지방에서는 강연회의 개최 · 선전문의 배포 · 계몽 논설 등을 통해서 민중들에게 다가갑니다. 이에 더하여, 1923년 11월에는 이종린을 주간으로 하는 기관지 「산업계」(産業界)를 창간하여, 물산장려운동을 적극적으로 펴나갔습니다.¹⁴⁹⁾

3. 朝鮮의 간디

(1) 이러한 물산장려운동을 지켜본 사람들은 고당 선생을 가리켜 ‘조선(朝鮮)의 간디’라는 애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아마도, 고당 선생이 평양의 조선물산장려회를 창립하여 국산품을 애용하고 소비절약을 통한 경제적 자립운동을 전개하면서 비폭력 · 무저항 · 불복종운동으로 잃어버린 조국을 찾는 길에 앞장 서서 살아가는 모습이 인도(印度)의 민족운동지도자 마하트마 간디(Mahatma K. Gandhi : 1869~1948)의 삶과 닮았다는 데에 연유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2) 그렇습니다. 고당 선생의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은 간디와 닮은 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일생동안 조국과 민중을 사랑하며, 오로지 잃어버린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을 바친 위대한 민족지도자였다는 공통점을 가졌음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V. 3 · 1 獨立運動 및 新幹會의 活動

1. 3 · 1 獨立運動에의 참여

(1)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정각, 서울 인사동(仁寺洞) 태화관(泰和館)에서 손병희(孫秉熙) 등 민족대표 33인이 모여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를 낭독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3창함으로써 3 · 1 독립운동의 불길이 3천리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습니다.¹⁵⁰⁾ “오등(吾等)은 자(慈)에 아(我) 조선(朝鮮)의 독립국(獨立國)임과 조선인(朝鮮人)의 자주민(自主民)임을 선언하노라. ……” 이것은 인류역사(人類歷史)에 새 문명의 열림을 알리는 우리 민족의 절규였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탑골공원에서는 각급 학교 학생 및 시민 5,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경신학교(敬信學校) 졸업생 정재용(鄭在鎔)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학생과 시민들이 태극기(太極旗)를 흔들며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¹⁵¹⁾ 그리고,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 우렁찬 만세소리가 온 천지(天地)를 진동시켰습니다.

149) 신용하, 앞의 『일제강점기 한국민족사(중)』, 222면.

150) 이선근, 『대한국사 (9)』, 신태양사, 1973, 351면.

151) 위의 책, 352면.

이 날, 탑골공원을 출발한 시위 군중들은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광교 → 서울시청 앞 → 남대문을 지나, 서울역 → 의주로 → 정동 → 미국영사관 → 이화학당을 돌아서 광화문으로 그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날 만세시위는 삼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평양 · 의주 · 선천 · 안주 · 원산 · 진남포로 이어졌습니다.

(2) 1919년 2월, 고당 선생은 오산학교 교장을 사임하고, 3 · 1 독립운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고당 선생은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인 남강 이승훈과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소리높혀 외치면서 민중들을 이끌었습니다.

3월 1일, 평양에서는 숭덕학교(崇德學校) 교정과 남산현교회(南山峴教會) 뜰에 시위군중이 모여 만세시위를 벌였는데, 이 때 주로 기독교인들의 시위운동은 남강 선생이 직접 지휘하였습니다.¹⁵²⁾ 그리고, 이 날 시위군중들은 좁은 언덕을 내려와 거리의 상인들과 함께 평양거리를 돌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소리 높혀외쳤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3) 그리고, 고당 선생은 3 · 1 독립운동 직후 구한말(舊韓末) 육군 정교(正校) 출신 도인권(都寅權)과 함께 중국 상해(上海)로 망명(亡命)의 길에 올랐지만, 일본 헌병대(憲兵隊)에 압송됨으로써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¹⁵³⁾

이 때, 고당 선생은 3 · 1 독립운동과 해외망명의 죄목으로 기소되어, 1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옥고(獄苦)를 치루었습니다.¹⁵⁴⁾ 이로써, 고당 선생은 해외에서의 항일독립운동계획을 접고, 다시 오산학교의 교장으로서 교육을 통한 구국의 길에 나섰습니다.¹⁵⁵⁾

2. 新幹會의 活動

(1) 1926, 7년 무렵은 3 · 1 독립운동 이후 많은 애국지사(愛國志士)들이 일제(日帝)에 의하여 회유 당하는 상황하에서 민족주의자(民族主義者)들이 사회주의자(社會主義者)들로부터 사상적(思想的)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항일운동(抗日運動)에 커다란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민족지도자(民族指導者)들의 대동단결이 요망되었습니다.

(2) 이러한 상황하에서 이상재 · 권동진(權東鎭) · 신석우(申錫雨) · 김준연(金俊淵) · 문일평(文一平) · 백관수 · 신채호 · 안재홍(安在鴻) · 장지영(張志暎) · 이갑성 · 한용운 · 조만식 · 유억겸(兪億兼) · 홍명희(洪命憲) 등이 뜻을 모아 신간회(新幹會)를 창립하였습니다.¹⁵⁶⁾ 이 때가 1927년 2월 15일이었습니다.

152) 고당기념사업회 편, 앞의 책, 82~83면.

153) 위의 책, 98면.

154) 위의 책, 100면.

155) 위의 책, 112면.

이 때, 신간회는 ‘민족유일당(民族唯一黨), 민족협동전선(民族協同戰線)’을 슬로우건으로 내세우고 창립되었으며, 그 정강정책(政綱政策)은 ‘우리는 조선민족(朝鮮民族)의 정치적·경제적 해방의 실현을 기함’과 ‘전민족(全民族)의 현실적 공동이익을 위하여 투쟁하기를 기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신간회는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에 급진적·투쟁적 행동강령을 앞세운 우리 민족의 대표기관이었습니다.

더욱이, 신간회의 창립은 민족주의(民族主義) 진영과 사회주의(社會主義) 진영이 두 갈래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여 민족의 역량을 총집결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간회는 창립 후 꾸준히 세력을 확장하여 전국에 200여 개의 지회와 분회를 두었으며, 1929년 7월에는 일본의 도쿄(東京)·교토(京都)·오사카(大阪)·나고야(名古屋) 등에도 지회를 설치하였습니다.¹⁵⁷⁾ 이처럼 지회와 분회를 두면서 회원을 늘려간 결과, 1930년에는 그 회원수가 4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3) 이처럼 신간회가 창립되고 회원수가 늘어감으로써 항일독립운동(抗日獨立運動)을 전개하는 민족운동도 활기를 찾아왔습니다. 더욱이, 1927년 5월 27일에 여성지도자들에 의해서 근우회(權友會)가 창립되면서, 신간회와 근우회가 짝을 이루어 조직적으로 항일투쟁을 펴나감으로써 커다란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고당 선생은 신간회 창립 당시부터 중앙집행위원과 평양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항일독립운동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¹⁵⁸⁾ 그리고, 고당 선생이 지회장으로 활동하는 평양지회는 주로 기독교인이 주축을 이루는 모범적인 지회였습니다. 그런데, 중앙본부는 1931년 5월에 이르러 결국 사회주의 진영의 반대에 부딪혀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이 때, 고당 선생은 이념(理念)을 초월한 민족의 단합을 역설하였지만, 신간회의 해체를 막지 못하였습니다.¹⁵⁹⁾

VI. 맺는 말

여러분, 이것으로써 저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당 선생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많은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특히, 1932년 11월에는 일제강점기의 어려운 상황하에서 조선일보(朝鮮日報) 제8대 사장에 취임하여 폐간 직전에 몰린 신문사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이 때, 고당 선생은 ‘정의(正義) 옹호, 문화(文化) 건설, 산업(産業) 발전, 불편부당(不偏不黨)’이라는 신문제작의 4대 강령을

156) 강명숙, 앞의 책, 149면.

157) 위의 책, 151면.

158) 김학중, 앞의 책, 87면.

159) 위의 책, 88면.

제정하였습니다.¹⁶⁰⁾ 그러나, 이에 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당 조만식 선생은 일제강점기에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온힘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광복(光復)된 조국에서는 통일된 대한민국(大韓民國)의 건설을 위하여 온힘을 쏟았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북한에 머물면서 1천만 북한동포(北韓同胞)를 보살피다가 1950년 10월 18일 67세를 일기(一期)로 영면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당 선생은 67년의 삶 자체가 온통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서 온몸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서세(逝世) 후에도 이를 실천하려는 굳은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선생께서는 자녀들에게 “내가 죽거든 묘비(墓碑)에 아무 것도 쓰지 말고, 단지 두 눈만 새겨라. 한 눈으로는 왜놈이 망하는 것을 보아야겠고, 다른 한 눈으로는 우리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것을 보기 위함이니라”고 하셨다고 합니다.¹⁶¹⁾

이것으로써, 저의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60) 위의 책, 94면.

161) 김갑수, 『아들아! 인생의 지혜를 배워라』, 보성출판, 2002. 122면.

<인물세션 1-2, 발표2>

유관순열사 100주년 기념세미나 만족도 조사결과

박 종 관

백석대학교 교수

유관순열사 100주년 기념세미나 만족도 조사결과

박 종 관 (경 찰 학 부 행 정 학 전 공)

I. 서 론

유관순열사는 1919년 3·1운동 당시 고향인 병천 아우내장터의 만세시위를 주도하고 검거되어 다음 해인 1920년 10월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사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유관순열사는 1962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은 인물이다. 유관순열사는 3·1운동을 계획주도 한 것으로 알려진 민족대표 33인을 뛰어넘는 3·1운동의 대표적 표상이 되었다. 유관순열사의 투쟁과정은 일제의 처참한 탄압과 한민족의 불굴의 저항의식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유관순열사는 1919년 3.1의 아이콘이자 식민지의 수난과 저항을 대표하는 여성이다.

우리 국민들이 유관순열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3·1운동의 표상과 기억의 방식과 연동 될 것으로 본다. 즉, 3·1운동 자체에 대해서는 해방 이래 방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지만 3·1운동이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가에 대해서는 최근에 들어서야 관심이 촉발되어 몇 편의 연구 성과가 제출되었다. 해방 직후 정부수립 이전 까지 3·1운동의 기억과 연구는 과거 식민지인을 탈식민지기에 민족적 주체로, 또는 민족국가의 정치적 주체로 (재)구성하는 민족주의적 의제와 긴히 연결되어 있다. 시대적으로 볼 때 당대 엘리트와 각종 사회·정치세력은 자신의 민족적 정통성을 표출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하여 자기중심적으로 3·1운동을 표상하고 전유했다는 것이다.

2019년은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러한 해를 맞이하여 정부와 천안시는 유관순열사의 서훈등급 상향조정과 더불어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맞게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에서는 동 행사의 일환으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연구는 동 세미나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본 설문조사는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행사와 정부가 유관순열사의 서훈을 1등으로 상향추서 함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변화 및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유관순열사의 서훈 등급 인지도와 관련 내용, 유관순열사 관련 행사(세미나) 만족도, 유관순열사 관련 사업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 혹은 만족도 정도를 조사 및 분석했다.

II. 이론적 논의

1. 만족도의 의미

연구 또는 학습에 있어서 목적인 바를 달성하였거나 학습자 개인이 가지고 있던 기대가 충족되었을 때 얻는 마음의 상태를 만족도라 정의할 수 있다(Wolman, 1989)¹⁶²⁾. 학습과 마찬가지로 세미나 혹은 행사의 만족도는 세미나 행사 및 내용의 충실성, 세미나환경에 좌우되는 바, 만족도는 행사 참여자의 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행사서비스에 대한 참여자 만족도 조사의 중요성은 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천안시나 유관순연구소의 행사 내용, 과정, 행사결과, 행사장소 등에 대한 참여자들의 평가에 관한 중요정보를 제공하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천안시나 유관순연구소는 행사주체 또는 행사에 대한 신뢰도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행사주체는 지속적으로 행사관련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차기 행사에 문제점 혹은 개선점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즉, 만족도조사는 참석자들의 욕구에 대응하는 행사를 위한 중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행사자체의 개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도 그 필요성과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만족이란 경험한 서비스 품질 이외에 개인적인 욕구, 과거의 경험,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의해 형성된 기대 수준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강인호·정준호, 2003). 만족도 조사의 목적은 크게 서비스의 성과(만족도 수준)를 파악하는 것과 서비스의 질적 구성 체계 및 영향력을 규명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황아란, 2003) 서비스의 비교평가에 목적을 둔다면, 만족도의 전반적 수준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지만, 특정 서비스의 개선에 목적이 있다면, 서비스의 하위 구성요소와 중요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이광희·홍운기, 2005.) 따라서 고객만족이란 고객이 서비스 이용 후 고객 자신이 기대수준에 비해 그 이상이라고 느끼고 흡족해 하는 상태를 말한다.

2. 만족도의 연구동향

첫째는 주민만족도 조사를 위한 모형 구축 및 연구방법에 관한 시론적 연구이다¹⁶³⁾. 중앙행정기관의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고객만족도 조사설계(김판석·박

162) 정재삼·임규연(2000)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자의 내적 동기는 학습자의 만족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이며, 학습자의 기본적인 필요 및 목적 혹은 가치를 만족시키는 정도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진다고 한다.

163) 본 연구에서 주민과 고객은 같은 대상이기 동일한 대상인 것으로 간주한다.

중훈, 1996), 지방자치단체의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설계(김병국, 1996), 지방행정에서의 시민평가제 도입형태와 방법론(이선우·조경호, 1999) 등의 연구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주민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이다. 울산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김재홍·조경호, 1994),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한국능률협회컨설팅, 1998),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오세윤, 2000), 중앙행정기관의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박중훈, 2000)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중 오세윤(2000)은 마케팅 분야에서 개발된 서비스 품질 측정모형인 SERVQUAL척도를 이용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이 연구의 특징은 주민만족도를 기대서비스와 지각서비스(서비스 성과)로 구분하여 측정한 후 이들을 사분면(quadrants)을 통해 결합함으로써 각각의 서비스 차원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데 있다.

셋째는 주민만족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이다. 오창택(1997)은 관심표명 및 친절성, 유형성, 신속·정확성, 이해의 용이성, 이용의 편리성 등을 통해 민원행정서비스 질의 구성차원을 분석하였으며, 최준호(1997)는 행정대응성, 고객중심성, 행정전문성 및 주민참여 변수를 이용하여 주민만족도에 대한 결정요인을 규명하였다. 또한 육동일과 원구환(1998)은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주민만족 모형의 정립을 위한 변수들을 선정하고, 이의 타당성을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¹⁶⁴⁾

이상의 기존 연구를 보면, 주민 또는 고객만족도의 연구경향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단순한 조사모형 정립과 같은 시론적 연구에서 벗어나 주민만족도의 실제적 측정, 나아가서는 실증적 연구를 통한 모형의 재구축이나 주민만족도 결정요인 분석으로 연구관심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우선 이들 연구간의 비교를 통해 조사설계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고객만족도 측정의 경우가 한 예가 될 수 있는데, 고객의 지각된 성과만을 강조하거나 오창택(1997)과 오세윤(2000)처럼 고객의 기대와 지각된 성과를 동시에 활용하는 등 그 방법이 다양하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주민만족도 평가제도에 대한 평가의 실시도 중요하다. 메타평가를 통한 조사모형 및 방법에 대한 논의는 후속 연구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164) 연구결과 주민들이 지방정부에 대해 느끼는 만족모형은 6가지 요인, 즉 관료의 대응성, 관료의 고객요구수용, 물리적 환경, 시테크, 편리성 및 장비작동화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관료의 대응성요인과 편리성요인 등이 특히 의미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Ⅲ. 조사설계 및 표본의 특성

1. 조사설계

먼저, 본 연구의 조사 흐름은 본 세미나에 참석한 천안시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인지도, 유관순열사 서훈 등급 인지도, 유관순열사 사업 활성화 방안 등의 조사정보를 설문지를 통해 조사한다. 이러한 조사의 효과로는 3.1운동과 유관순열사 관련 다양한 인지도 또는 만족도 변화는 얼마나 되는가, 기존 행사에 문제는 무엇인가, 유관순열사사업홍보 및 열사 관련 사업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를 실증적으로 조사하여 도출하고 차기 행사에 개선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조사설계는 다음과 같다. 즉, 본 조사는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행사 관련 행사(세미나) 참석자를 중심으로 추출된 유효표본수 250명이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2일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 졌다.

[그림 1] 조사 설계

[조사대상]

- 세미나(행사)참석자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조사규모]

- 유효표본수 250명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방법

[표본추출방법]

- 세미나 참석자인 천안시민, 대학생, 백석대학교
교직원 중심으로

[조사기간]

- 2019년 4월 1일~2일(2일간)

2. 주요 조사 항목

그 다음으로 본 조사의 주요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즉, 본 조사는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행사 관련 행사(세미나) 참석자를 중심으로 유효표본수 250명이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2일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 졌다.

[그림 2] 주요 조사 항목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인지도]

-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인지 여부
-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행사에 따른 인식변화(5개 세부 영역 포함)
- 천안시의 독립정신 계승 의지
- 천안시의 지속적인 기념행사 추진 필요성

[유관순열사의 서훈 등급 인지도 등]

- 우리나라 서훈 등급체계 인식 여부
- 유관순열사의 기존 서훈 등급 인식 여부
- 정부의 서훈등급 향상 결정의 만족도

[유관순열사 관련 행사(세미나) 만족도]

- 유관순열사와 관련된 세미나 행사 만족도(3개 세부 영역 포함)
- 유관순열사와 관련된 세미나가 유관순열사에 대한 인식개선의 도움 정도

[유관순열사에 대한 홍보]

- 평소 유관순열사와 관련된 자료 유형
- 평소 유관순열사와 관련된 홍보가 잘 이루어지는 정도
- 유관순열사의 사적지 방문 경험

[유관순열사 관련 사업의 활성화 방안]

- 유관순열사의 정신을 잇기 위한 정부, 충청남도, 천안시의 지원 정도
- 유관순열사의 정신을 잇기 위한 중요 사업 유형

3. 표본의 특성

첫째, 성별 현황이다. 본 설문은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250부 중 200명이 응답하였으며, 응답율은 80.0%이며, 이에 대한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신분에 관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성별로는 전체 응답자 200명 중에서 108명(54%)이 ‘남성’이며, ‘여성’은 92명(46%)으로 나타났다.

[표 1] 성별

| | | 빈도 | 퍼센트 | 유효 퍼센트 | 누적퍼센트 |
|----|----|-----|-------|--------|-------|
| 유효 | 남성 | 108 | 54.0 | 54.0 | 54.0 |
| | 여성 | 92 | 46.0 | 46.0 | 100.0 |
| | 합계 | 200 | 100.0 | 100.0 | |

둘째, 연령별 현황이다. 연령별로는 전체 응답자 200명 중에서 ‘50대’가 63명(31.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대’ 56명(28.0%), ‘20대’ 37명(18.5%), ‘30대’ 25명(12.5%), ‘60대 이상’ 19명(9.5%)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연령

| | | 빈도 | 퍼센트 | 유효 퍼센트 | 누적퍼센트 |
|----|--------|-----|-------|--------|-------|
| 유효 | 20대 | 37 | 18.5 | 18.5 | 18.5 |
| | 30대 | 25 | 12.5 | 12.5 | 31.0 |
| | 40대 | 56 | 28.0 | 28.0 | 59.0 |
| | 50대 | 63 | 31.5 | 31.5 | 90.5 |
| | 60대 이상 | 19 | 9.5 | 9.5 | 100.0 |
| | 합계 | 200 | 100.0 | 100.0 | |

셋째, 학력별 현황이다. 학력별로는 전체 응답자 200명 중에서 ‘대학원 이상’이 97명(48.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졸’ 59명(29.5%), ‘고졸’ 44명(22.0%) 순으로 나타난다. 대학원 졸이 많기는 하나 고졸도 22%가 될 정도로 참석자들의 학력이 균형 있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표 3] 학력

| | | 빈도 | 퍼센트 | 유효 퍼센트 | 누적퍼센트 |
|----|--------|-----|-------|--------|-------|
| 유효 | 고졸 | 44 | 22.0 | 22.0 | 22.0 |
| | 대졸 | 59 | 29.5 | 29.5 | 51.5 |
| | 대학원 이상 | 97 | 48.5 | 48.5 | 100.0 |
| | 합계 | 200 | 100.0 | 100.0 | |

넷째, 신분별 현황이다. 신분별로는 전체 응답자 200명 중에서 ‘대학교수’가 82명(41.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학생’과 ‘천안시민’ 각각 36명(18.0%), ‘대학직원’ 25명(12.5%), ‘공무원’ 11명(5.5%), ‘기타’ 10명(5.0%)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신분

| | | 빈도 | 퍼센트 | 유효 퍼센트 | 누적퍼센트 |
|----|------|-----|-------|--------|-------|
| 유효 | 대학교수 | 82 | 41.0 | 41.0 | 41.0 |
| | 대학직원 | 25 | 12.5 | 12.5 | 53.5 |
| | 공무원 | 11 | 5.5 | 5.5 | 59.0 |
| | 대학생 | 36 | 18.0 | 18.0 | 77.0 |
| | 천안시민 | 36 | 18.0 | 18.0 | 95.0 |
| | 기타 | 10 | 5.0 | 5.0 | 100.0 |
| | 합계 | 200 | 100.0 | 100.0 | |

Ⅲ. 조사결과 분석

1. 유관순열사의 서훈 등급 인지도

1) 우리나라 서훈 등급 체계에 대한 인지

첫째, 우리나라의 서훈 등급체계를 인지는 정도는 다음과 같다. 즉, 우리나라의 서훈 등급체계를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그렇지 못함 + 매우 그렇지 못함 포함)’는 의견이 51.5%를 차지했으며, ‘보통이다’가 19.0%, ‘그렇다(다소 그러함 + 매우 그러함 포함)’는 의견이 29.5%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들은 우리나라의 서훈 등급체계에 대해 잘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서열인 것으로 인식한 경향이 있다. 어쨌면, 이 부분은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만 알 수 있는 지식 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우리나라 서훈 등급체계에 대한 인지

| | | 빈도 | 퍼센트 | 유효 퍼센트 | 누적 퍼센트 |
|----|----------------|-----|-------|--------|--------|
| 유효 | 매우 그렇지 못한 편이었다 | 30 | 15.0 | 15.0 | 15.0 |
| | 그렇지 못한 편이었다 | 73 | 36.5 | 36.5 | 51.5 |
| | 보통이다 | 38 | 19.0 | 19.0 | 70.5 |
| | 다소 그렇다 | 25 | 12.5 | 12.5 | 83.0 |
| | 매우 그렇다 | 34 | 17.0 | 17.0 | 100.0 |
| | 전체 | 200 | 100.0 | 100.0 | |

둘째, 유관순열사의 기존 서훈 등급(3등급)에 대한 인지부문이다. 유관순열사의 기존 서훈 등급(3등급)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그렇지 못함 + 매우 그렇지 못함 포함)’는 의견이 54.5%를 차지했으며, ‘보통이다’가 13.5%, ‘그렇다(다소 그러함 + 매우 그러함 포함)’는 의견이 32.0%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서훈 등급 인지도와 마찬가지로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에 대한 부분은 관련 전문가 이외에는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유관순열사의 기존 서훈 등급(3등급)에 대한 인지

| | | 빈도 | 퍼센트 | 유효 퍼센트 | 누적 퍼센트 |
|----|----------------|-----|-------|--------|--------|
| 유효 | 매우 그렇지 못한 편이었다 | 23 | 11.5 | 11.5 | 11.5 |
| | 그렇지 못한 편이었다 | 86 | 43.0 | 43.0 | 54.5 |
| | 보통이다 | 27 | 13.5 | 13.5 | 68.0 |
| | 다소 그렇다 | 34 | 17.0 | 17.0 | 85.0 |
| | 매우 그렇다 | 30 | 15.0 | 15.0 | 100.0 |
| | 전체 | 200 | 100.0 | 100.0 | |

셋째, 유관순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에 대한 정부의 결정 만족도 부문이다. 유관순열사의 서훈 등급을 향상시킨 정부의 결정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그렇다(다소 그러함 + 매우 그러함 포함)’는 의견이 88.4%를 차지했으며, ‘그렇지 않다(그렇지 못함 + 매우 그렇지 못함 포함)’는 의견이 3.0%로 나타났다.

따라서 뒤늦게 유관순열사의 서훈 등급이 3등으로 낮은 것을 알게 된 시민들은 서훈 체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유관순열사의 서훈 상향에 매우 만족 해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7] 유관순열사 서훈 등급 향상에 대한 만족도

| | | 빈도 | 퍼센트 | 유효 퍼센트 | 누적 퍼센트 |
|----|----------------|-----|-------|--------|--------|
| 유효 | 매우 그렇지 못한 편이었다 | 2 | 1.0 | 1.0 | 1.0 |
| | 그렇지 못한 편이었다 | 4 | 2.0 | 2.0 | 3.0 |
| | 보통이다 | 17 | 8.5 | 8.5 | 11.6 |
| | 다소 그렇다 | 47 | 23.5 | 23.6 | 35.2 |
| | 매우 그렇다 | 129 | 64.5 | 64.8 | 100.0 |
| | 전체 | 199 | 99.5 | 100.0 | |
| 결측 | 시스템 | 1 | 0.5 | | |
| 전체 | | 200 | 100.0 | | |

넷째, 유관순열사의 서훈 등급 인지도 관련 영역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유관순열사의 서훈 등급 인지도 부문의 평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서훈 등급체계에 대한 인지 2.800, 유관순열사 기존 서훈 등급(3등급)에 대한 인지 2.810으로 다소 낮으나 유관순열사 서훈 등급 향상시킨 정부결정에 대한 만족도는 4.492로 매우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서훈 등급체계나 유관순열사 기존 서훈 등급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적었을 것인바, 이러한 부분도 정부의 다양한 홍보노력을 통해 극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유관순열사 서훈 등급 인지도 종합

| | 매우 그렇지 못함 (1) | 그렇지 못한 편 (2) | 보통 (3) | 다소 그러함 (4) | 매우 그러함 (5) | 합계 | 평균 (표준편차) |
|-------------------------------|---------------------|--------------------|--------------|------------------|------------------|--------------|-------------------|
| 우리나라 서훈 등급체계에 대한 인지 | 30 (15.0) | 73 (36.5) | 38 (19.0) | 25 (12.5) | 34 (17.0) | 200 (100) | 2.800 (1.3186) |
| 유관순열사 기존 서훈 등급(3등급)에 대한 인지 | 23 (11.5) | 86 (43.0) | 27 (13.5) | 34 (17.0) | 30 (15.0) | 200 (100) | 2.810 (1.2775) |
| 유관순열사 서훈 등급 향상시킨 정부결정에 대한 만족도 | 2 (1.0) | 4 (2.0) | 17 (8.5) | 47 (23.6) | 129 (64.8) | 199 (100) | 4.492 (0.8157) |

다섯째, 유관순열사의 기존 서훈등급(3등급)을 인식하게 된 경로와 관련해서는 미디어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관순열사의 기존 서훈등급(3등급)을 알게 된 경로에 대해서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가 49명(57.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14명(16.3%), ‘역사 수업을 통해서’ 10명(11.6%), ‘지인을 통해서’ 7명(8.1%), ‘기타’ 6명(7.0%) 순으로 나타남. 기타에는 ‘개인연구’, ‘동창회’, ‘천안시 및 행사관련 현수막’, ‘학술발표’, 등이 있다.

유관순열사의 기존 서훈등급(3등급)을 인식하게 된 경로 등 전문적인 영역도 언론매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언론매체 통하여 역사적 사실과 다양한 요소들도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9] 유관순열사의 기존 서훈등급(3등급)을 알게 된 경로

| | | 빈도 | 퍼센트 | 유효 퍼센트 | 누적 퍼센트 |
|----|------------|----|------|--------|--------|
| 유효 | 언론 매체를 통해서 | 49 | 24.5 | 57.0 | 57.0 |
| | 역사 수업을 통해서 | 10 | 5.0 | 11.6 | 68.6 |
| | 지인을 통해서 | 7 | 3.5 | 8.1 | 76.7 |

| | | | | | |
|----|---------------|-----|-------|-------|-------|
| |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 14 | 7.0 | 16.3 | 93.0 |
| | 기타 | 6 | 3.0 | 7.0 | 100.0 |
| | 전체 | 86 | 43.0 | 100.0 | |
| 결측 | 시스템 | 114 | 57.0 | | |
| 전체 | | 200 | 100.0 | | |

한편, 유관순열사의 기존 서훈등급을 향상시킨 정부의 결정에 대한 불만족 의견으로
는 '과거는 과거,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문정부의 과거 지향적 절대적 반대, 과거를 토
대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과 '기존의 혼란을 가져온다'는 내용이 있었다.

2. 유관순열사 관련 행사(세미나) 만족도

1) 세미나 행사 및 유관순열사에 대한 인식개선 만족도

첫째, 유관순열사와 관련된 본 세미나 행사에 대한 만족도이다. 3·1운동 100주년 맞이
하여 유관순열사와 관련된 본 세미나 행사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
가 나타났다. 즉, '그렇다(다소 그러함 + 매우 그러함 포함)'는 의견이 79.5%를 차지했으
며, '보통이다'가 18.5%, '그렇지 않다(그렇지 못함 + 매우 그렇지 못함 포함)'는 의견이
2.0%로 나타났다.

[표 10] 세미나 행사에 대한 만족도

| | | 빈도 | 퍼센트 | 유효 퍼센트 | 누적 퍼센트 |
|----|-------------------|-----|-------|--------|--------|
| 유효 | 매우 그렇지 못한 편이었다 | 1 | 0.5 | 0.5 | 0.5 |
| | 그렇지 못한 편이었다 | 3 | 1.5 | 1.5 | 2.0 |
| | 보통이다 | 37 | 18.5 | 18.5 | 20.5 |
| | 다소 그렇다 | 79 | 39.5 | 39.5 | 60.0 |
| | 매우 그렇다 | 80 | 40.0 | 40.0 | 100.0 |
| | 전체 | 200 | 100.0 | 100.0 | |

둘째, 세미나 행사가 유관순열사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된 정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즉, 유관순열사와 관련된 세미나 행사가 유관순열사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다소 그러함 + 매우 그러함 포함)’는 의견이 81.5%를 차지했으며, ‘보통이다’가 17.0%, ‘그렇지 않다(그렇지 못함 + 매우 그렇지 못함 포함)’는 의견이 1.5%로 나타났다.

[표 11] 본 행사가 유관순열사에 대한 인식 개선에 미친 영향

| | | 빈도 | 퍼센트 | 유효 퍼센트 | 누적 퍼센트 |
|----|----------------|-----|-------|--------|--------|
| 유효 | 매우 그렇지 못한 편이었다 | 2 | 1.0 | 1.0 | 1.0 |
| | 그렇지 못한 편이었다 | 1 | 0.5 | 0.5 | 1.5 |
| | 보통이다 | 34 | 17.0 | 17.0 | 18.5 |
| | 다소 그렇다 | 78 | 39.0 | 39.0 | 57.5 |
| | 매우 그렇다 | 85 | 42.5 | 42.5 | 100.0 |
| | 전체 | 200 | 100.0 | 100.0 | |

셋째, 유관순열사 관련 행사 만족도를 종합하면 [표 12]와 같다. 즉, 유관순열사 관련 행사 만족도 중, 본 세미나 행사 자체의 만족도는 평균 4.170, 본 세미나 행사의 유관순열사에 대한 인식개선에의 도움 평균 4.215로 나타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본 세미나 행사의 유관순열사에 대한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으로 살펴 볼 때,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나 유관순열사와 관련된 세미나 등이 관련 역사에 대한 주민의식의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는 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행사를 직접 개최하거나 행사 지원을 통한 개최 등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 유관순열사 관련 행사(세미나) 만족도 종합

| | 매우 그렇지 못함 (1) | 그렇지 못한 편 (2) | 보통 (3) | 다소 그러함 (4) | 매우 그러함 (5) | 합계 | 평균 (표준편차) |
|-------------------------------|---------------------|--------------------|--------------|------------------|------------------|--------------|-------------------|
| 본 세미나 행사 만족도 | 1 (0.5) | 3 (1.5) | 37 (18.5) | 79 (39.5) | 80 (40.0) | 200 (100) | 4.170 (0.8151) |
| 본 세미나 행사의 유관순열사에 대한 인식개선에의 도움 | 2 (1.0) | 1 (0.5) | 34 (17.0) | 78 (39.0) | 85 (42.5) | 200 (100) | 4.215 (0.8137) |

한편, 유관순열사와 관련된 세미나가 열사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향후 어떤 행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구해본 결과, ‘지루하지 않도록 문화행사와 겸하는 방법’, ‘세미나가 아닌 전시회’, ‘새로운 자료의 발표’ 등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일부 전문적인 세미나와 기타 행사의 병행추진을 통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유발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유관순열사 관련 행사(세미나)에 대한 기타 세부항목 만족도

유관순열사 관련 행사(세미나)에 대한 기타 세부항목 만족도를 다양하게 조사하여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사시기에 대한 만족도이다. 행사시기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응답자 139명 중에서 ‘만족한다(만족 + 매우 만족 포함)’는 의견이 73.4%를 차지했으며, ‘보통이다’가 20.1%, ‘불만족한다(불만족 + 매우 불만족 포함)’는 의견이 6.4%로 나타났다.

따라서 행사시기는 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무엇보다도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행사가 종합적으로 열렸던 것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표 13] 행사 시기 만족도

| | | 빈도 | 퍼센트 | 유효 퍼센트 | 누적 퍼센트 |
|----|--------|-----|-------|--------|--------|
| 유효 | 매우 불만족 | 2 | 1.0 | 1.4 | 1.4 |
| | 불만족 | 7 | 3.5 | 5.0 | 6.5 |
| | 보통 | 28 | 14.0 | 20.1 | 26.6 |
| | 만족 | 54 | 27.0 | 38.8 | 65.5 |
| | 매우 만족 | 48 | 24.0 | 34.5 | 100.0 |
| | 전체 | 139 | 69.5 | 100.0 | |
| 결측 | 시스템 | 61 | 30.5 | | |
| 전체 | | 200 | 100.0 | | |

둘째, 행사 장소에 대한 만족도이다. 행사 장소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응답자 123명 중에서 ‘만족한다(만족 + 매우 만족 포함)’는 의견이 78.9%를 차지했으며, ‘보통이다’가 17.9%, ‘불만족한다(불만족 + 매우 불만족 포함)’는 의견이 3.2%로 나타났다. 다만, 본 설문응답의 대다수가 본교 교직원임을 감안하면 당연할 결과라 하겠다.

[표 14] 행사 장소 만족도

| | | 빈도 | 퍼센트 | 유효 퍼센트 | 누적 퍼센트 |
|----|--------|-----|-------|--------|--------|
| 유효 | 매우 불만족 | 1 | 0.5 | 0.8 | 0.8 |
| | 불만족 | 3 | 1.5 | 2.4 | 3.3 |
| | 보통 | 22 | 11.0 | 17.9 | 21.1 |
| | 만족 | 50 | 25.0 | 40.7 | 61.8 |
| | 매우 만족 | 47 | 23.5 | 38.2 | 100.0 |
| | 전체 | 123 | 61.5 | 100.0 | |
| 결측 | 시스템 | 77 | 38.5 | | |
| 전체 | | 200 | 100.0 | | |

셋째, 행사 참석자 범위에 대한 만족도이다. 행사 참석자 범위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응답자 120명 중에서 ‘만족한다(만족 + 매우 만족 포함)’는 의견이 60.8%를 차지했으며, ‘보통이다’가 34.2%, ‘불만족한다(불만족 + 매우 불만족 포함)’는 의견이 5.0%로 나타났다.

동 항목에 대한 불만족이 낮고 만족과 매우 만족도가 높기는 하나 60%를 간신히 넘은 것을 보면, 참여자의 범위가 다소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참석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장소를 택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표 15] 행사 참석자 범위 만족도

| | | 빈도 | 퍼센트 | 유효 퍼센트 | 누적 퍼센트 |
|----|--------|-----|-------|--------|--------|
| 유효 | 매우 불만족 | 4 | 2.0 | 3.3 | 3.3 |
| | 불만족 | 2 | 1.0 | 1.7 | 5.0 |
| | 보통 | 41 | 20.5 | 34.2 | 39.2 |
| | 만족 | 37 | 18.5 | 30.8 | 70.0 |
| | 매우 만족 | 36 | 18.0 | 30.0 | 100.0 |
| | 전체 | 120 | 60.0 | 100.0 | |
| 결측 | 시스템 | 80 | 40.0 | | |
| 전체 | | 200 | 100.0 | | |

넷째, 행사(세미나) 관련 기타 항목 만족도 종합이다. 행사(세미나) 관련 기타 만족도는 행사 시기 만족도 평균 4.00, 행사 장소 만족도 평균 4.13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행사 참석자 범위 만족도 평균 3.83로 이들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행사 주최 측에서는 행사의 참석자 범위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세미나 행사 외에 기타 부대행사 마련, 다양한 인센티브 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표 16] 유관순열사 관련 행사(세미나) 기타 세부 항목 만족도 종합

|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 만족 | 합계 | 평균 (표준편차) |
|---------------|------------|------------|--------------|--------------|--------------|--------------|-----------------|
| 행사 시기 만족도 | 2 (1.4) | 7 (5.0) | 28 (20.1) | 54 (38.8) | 48 (34.5) | 139 (100) | 4.00 (0.940) |
| 행사 장소 만족도 | 1 (0.8) | 3 (2.4) | 22 (17.9) | 50 (40.7) | 47 (38.2) | 123 (100) | 4.13 (0.849) |
| 행사 참석자 범위 만족도 | 4 (3.3) | 2 (1.7) | 41 (34.2) | 37 (30.8) | 36 (30.0) | 120 (100) | 3.83 (0.993) |

한편, 유관순열사 관련 행사(세미나) 기타 세부 항목에 대한 개방형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행사 시기에 대해서는 ‘3·1절’을 비롯한 ‘3월 초’에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유관순열사의 사안이 3.1운동과 관련되므로 3.1운동 전후로 하자는 의견이며, 유관순열사의 순국날을 알게 되면 의견이 달라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행사 장소에 대해서는 ‘좀 더 넓은 곳’,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부분은 대학생 뿐 아니라 천안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장소였으면 어떨까 하는 판단이 든다.

마지막으로 행사 참석자 범위 대해서는 ‘참여 희망자’, ‘충분한 교재 제공’, ‘일반 천안시민 참여 확대 방안 모색’, ‘대학생 참여 독려’, ‘교직원 전체가 아닌 교수들만 참여’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부분은 세미나만을 하였을 경우, 관심도가 교수나 학생들로 집중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미나 전후, 관련 동영상 마련해서 보여주거나 유품 혹은 사진전과 같은 것을 동시에 시행하였더라면 어떨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3. 유관순열사에 대한 홍보 등

1) 유관순열사에 대한 관람 자료

관순열사의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유관순열사에 대해 관람 하는 자료를 봤거나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홍보방안 마련에 필요하여 질문을 하였다.

평소 유관순열사에 대해 어떤 자료를 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다음과 같은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즉, '인터넷 설명자료'가 111명(56.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역사교과서의 일부 자료' 55명(27.8%), '논문 등 세미나 관련 자료' 14명(7.1%), '단행본 자료' 11명(5.6%), '기타자료' 7명(3.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자료에는 '박물관 및 공연물 자료', '현장 탐방', '영화', 'SNS', '방송매체(TV프로그램, 라디오 등)' 으로 나타났다.

[표 17] 유관순열사에 대한 관람 자료

| | | 빈도 | 퍼센트 | 유효 퍼센트 | 누적 퍼센트 |
|----|----------------|-----|-------|--------|--------|
| 유효 | 역사교과서의 일부 자료 | 55 | 27.5 | 27.8 | 27.8 |
| | 논문 등 세미나 관련 자료 | 14 | 7.0 | 7.1 | 34.8 |
| | 단행본 자료 | 11 | 5.5 | 5.6 | 40.4 |
| | 인터넷 설명자료 | 111 | 55.5 | 56.1 | 96.5 |
| | 기타자료 | 7 | 3.5 | 3.5 | 100.0 |
| | 전체 | 198 | 99.0 | 100.0 | |
| 결측 | 시스템 | 2 | 1.0 | | |
| 전체 | | 200 | 100.0 | | |

2) 유관순열사에 대한 홍보

우리 국민 모두가 아는 애국지사 이지만, 유관순열사에 대한 평소의 홍보는 어떤가 하는 측면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해보았다. 첫째, 유관순열사에 대한 홍보의 적절성 부문이다.

평소 유관순열사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그렇다(다소 그러함 + 매우 그러함 포함)'는 의견이 38.5%를 차지했으며, '보통이다'가

37.0%, ‘그렇지 않다(그렇지 못함 + 매우 그렇지 못함 포함)’는 의견이 24.5%로 나타났다. 따라서 홍보가 다소 미흡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8] 평소 유관순열사 홍보에 대한 적절성

| | | 빈도 | 퍼센트 | 유효 퍼센트 | 누적 퍼센트 |
|----|----------------|-----|-------|--------|--------|
| 유효 | 매우 그렇지 못한 편이었다 | 7 | 3.5 | 3.5 | 3.5 |
| | 그렇지 못한 편이었다 | 42 | 21.0 | 21.0 | 24.5 |
| | 보통이다 | 74 | 37.0 | 37.0 | 61.5 |
| | 다소 그렇다 | 55 | 27.5 | 27.5 | 89.0 |
| | 매우 그렇다 | 22 | 11.0 | 11.0 | 100.0 |
| | 전체 | 200 | 100.0 | 100.0 | |

둘째, 유관순열사에 대한 홍보 인식 정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유관순열사에 대한 홍보의 인식을 분석한 평균은 3.25로 나타나 낮은 편은 아니나 이번 행사의 다른 만족도에 비해 낮은 편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평소에 유관순열사에 대한 홍보나 기타 행사가 자주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나 유관순열사와 관련된 세미나 개최 등 특정 시기의 단발성 행사 보다는 지속적인 행사와 홍보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로 볼 때 유관순연구소의 세미나를 격년에는 천안시와 연계해서 천안시 중회의실 혹은 대회의실에서 하거나 기타 다른 시내의 장소를 활용하면서 홍보를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19] 유관순 열사에 대한 홍보 인식

| | 매우 그렇지 못함 (1) | 그렇지 못한 편 (2) | 보통 (3) | 다소 그러함 (4) | 매우 그러함 (5) | 합계 | 평균 (표준편차) |
|--------------------|------------------|-----------------|--------------|---------------|---------------|--------------|-------------------|
| 유관순열사에 대한 홍보 인식 | 7 (3.5) | 42 (21.0) | 74 (37.0) | 55 (27.5) | 22 (11.0) | 200 (100) | 3.215 (1.0119) |

셋째, 유관순 열사에 대한 홍보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즉, 유관순 열사에 대한 홍보 개선 방안으로는 ‘드라마, 연극, 영화, 서적 등 관련 매체 등을 통한 인식 개선’, ‘학술 세미나 등의 행사 개최’, 공교육, ‘계획적인 세미나 개최’, ‘중, 고등학생 대상의 적극적인 역사교육’, ‘1년 연중 홍보’, ‘정확한 자료에 의함’,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통한 홍보(정확한 정보와 유관순 열사 업적에 대한 객관적 의의), ‘공익광고 제작’, ‘천안시 주체의 SNS, 영상을 통한 홍보’, ‘별도의 홈페이지 마련을 통한 홍보’ 등이 제시되었다.

넷째, 유관순열사의 사적지(생가 및 교회 등) 방문 경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즉, 유관순열사의 사적지(생가 및 교회 등) 방문 경험에 대해서는 ‘있다’는 응답이 107명(53.5%), ‘없다’는 응답이 93명(46.5%)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열사 사적지 방문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및 실시와 더불어 실시간 인터넷을 통한 열사사적지 전체 관람 등 다양한 방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표 20] 유관순열사 사적지 방문 경험

| | | 빈도 | 퍼센트 | 유효 퍼센트 | 누적 퍼센트 |
|----|----|-----|-------|--------|--------|
| 유효 | 있다 | 107 | 53.5 | 53.5 | 53.5 |
| | 없다 | 93 | 46.5 | 46.5 | 100.0 |
| | 전체 | 200 | 100.0 | 100.0 | |

다섯째, 유관순열사 사적지의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즉, ‘사적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방문객 유치’, ‘유관순 열사에 대한 설명 및 다큐 필요’, ‘꽃길 조성’, ‘이미지 자료 확충 및 전시관 필요’, ‘역사자료, 홍보자료가 생가 옆에 홍보란을 통해 이루어졌으면 함’, ‘교회 지하에 있어서 일반인이 접하기 곤란함’, ‘매봉교회 건물보수, 전시관 개보수 및 재개관 요망’, 진입로 및 주변을 독립 장소로 전환 필요’, ‘유관순 이외 함께 만세시위를 주도한 이들에 대한 관계성과 역사적 규명 및 재평가 병행’, ‘매년 2-3회 유관순 열사에 대한 글, 시, 수필 대회 등을 통해 우수자 시상’, ‘주변 연계 역사유적지 개발 및 교통편의 대중화’, ‘안내책자 제공’, ‘생가나 교회 보존 중시’, ‘사실에 맞는 구성’, ‘가족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콘텐츠 발전 활동 노력의 지속적 병행’, ‘VR 자료 추가’, ‘노후된 시설의 현대화’, ‘전시물 확대 개선’, ‘영상관 앞 기념품 판매대를 없애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최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흥미 도모’, ‘교회에 대한 자세한 설명’, ‘많은 설명 시간 필요’, ‘박물관 상시 오픈 및 자료 확충’, ‘예산의 적극적 지원으로 예산의 추사 김정희 생가처럼 관광지로 더 부각시킬 필요

성 있음’ 등의 의견에 제시되었다.

4. 유관순열사 관련 사업 활성화 방안

유관순열사와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다양한 질문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응답이 나타났다.

첫째, 유관순열사 사업에 정부, 충청남도 및 천안시의 지원정도이다. 유관순열사의 정신을 잇기 위한 사업에 정부, 충청남도 및 천안시의 지원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하다(충분하지 못함 + 매우 충분함 포함)’는 의견이 31.7%를 차지했으며, ‘보통이다’가 42.2%, ‘충분하지 않다(충분하지 못함 + 매우 충분하지 못함 포함)’는 의견이 26.1%로 나타났다.

유관순열사 사업에 정부, 충청남도 및 천안시의 지원정도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다소 높아 평균 3.13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미흡한 측면이 더 없는지 세심한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표 21] 유관순열사 정신 잇기 사업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의 충분성

| | 매우 충분하지 못함 (1) | 충분하지 못한편 (2) | 보통 (3) | 다소 충분함 (4) | 매우 충분함 (5) | 합계 | 평균 (표준편차) |
|--|----------------------|--------------------|--------------|------------------|------------------|--------------|-------------------|
| 유관순 열사 정신 잇기 위한 정부, 충 청남도 및 천안시의 지원 충분성 | 7 (3.5) | 45 (22.6) | 84 (42.2) | 41 (20.6) | 22 (11.1) | 199 (100) | 3.131 (1.0015) |

둘째, 유관순열사 정신을 잇기 위한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 알아 봤다. 그 결과 유관순열사 정신을 잇기 위한 사업으로 무엇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적지 보존 및 기념관 관리’에 대한 분야가 111개(31.2%)의 응답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초·중·고등학생 생가방문 활성화’ 75개(21.1%) 응답, ‘열사체험관 건립’ 54개(15.2%) 응답, ‘다양한 연구지원’ 51개(14.3%) 응답, ‘관련 장학금 마련 및 수여를 통한 활성화’ 32개(9.0%) 응답, ‘워크숍 및 세미나 지원’ 26개(7.3%) 응답, 기타 7개(2.0%)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오페라, 뮤지컬 등 문화적인 활성화’, ‘중고등학교, 대학 역사 교과목 수업 강화(객관적 교육자료 확충)’, ‘예산지원을 통한 유관순정신계승 사업의 일환으로 웅변대회, 영어말하기 대회 개최’, ‘역사교과 비중 증대’, ‘관련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시연, 일제강점기 억압 및 역사왜곡에 대한 우리민족의 대응 방안 연구’ 등이 제시되었다.

[표 22] 유관순열사 정신 잇기 사업의 중요 분야

| | | 빈도 | 퍼센트 | 유효 퍼센트 | 누적 퍼센트 |
|----|---------------------------|-----|-------|--------|--------|
| 유효 | 사적지보존 및 기념관 관리 | 111 | 31.2 | 31.2 | 31.2 |
| | 다양한 연구 지원 | 51 | 14.3 | 14.3 | 45.5 |
| | 워크숍 및 세미나 지원 | 26 | 7.3 | 7.3 | 52.8 |
| | 열사체험관 건립 | 54 | 15.2 | 15.2 | 68.0 |
| | 초.중.고등학생 생가방문 활성화 | 75 | 21.1 | 21.1 | 89.0 |
| | 관련 장학금 마련 및 수여를 통한 활성화 | 32 | 9.0 | 9.0 | 98.0 |
| | 기타 | 7 | 2.0 | 2.0 | 100.0 |
| | 전체 | 356 | 100.0 | 100.0 | |

마지막으로 유관순열사의 사적지 및 기념관 방문객 증대 방안은 다음과 같다. 즉, 유관순열사의 사적지 및 기념관 방문객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시설(볼거리) 건립’이 106개(30.8%)의 응답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보다 다양한 공연 등 볼거리 제공’ 76개(22.1%) 응답, ‘셔틀버스 운영’ 45개(13.1%) 응답, ‘시설안내자료 보급’ 39개(11.3%) 응답, ‘버스노선 조정’ 31개(9.0%) 응답, ‘이용절차의 편의성 제고’ 28개(8.1%) 응답, ‘시설개방과 이용시간의 연장’ 12개(3.5%) 응답, ‘기타’ 7개(2.0%)의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 유관순열사 사적지 및 기념관 방문객 증대 방안

| | | 빈도 | 퍼센트 | 유효 퍼센트 | 누적 퍼센트 |
|----|-----------------------|-----|-------|--------|--------|
| 유효 | 버스노선 조정 | 31 | 9.0 | 9.0 | 9.0 |
| | 시설안내자료 보급 | 39 | 11.3 | 11.3 | 20.3 |
| | 셔틀버스 운영 | 45 | 13.1 | 13.1 | 33.4 |
| | 이용절차의 편의성 제고 | 28 | 8.1 | 8.1 | 41.6 |
| | 시설개방과 이용시간의 연장 | 12 | 3.5 | 3.5 | 45.1 |
| | 보다 다양한 시설(볼거리) 건립 | 106 | 30.8 | 30.8 | 75.9 |
| | 보다 다양한 공연 등 볼거리 제공 | 76 | 22.1 | 22.1 | 98.0 |
| | 기타 | 7 | 2.0 | 2.0 | 100.0 |
| | 전체 | 344 | 100.0 | 100.0 | |

IV. 결 론

1. 요약

첫째, 본 세미나 만족도 등 행사전반에 대한 인식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세미나 만족도 등 행사 전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때, 행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은 만족도가 매우 높아 평균이 4.0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유관순열사의 기존서훈등급 인지도는 2.810으로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유관순 서훈등급 향상정부 결정 인식 4.492, 본 세미나 만족도 4.170, 유관순열사 인식개선 도움정도 4.215로 높은 편이다. 다만, 유관순기존서훈등급 인지 2.810, 유관순열사 정신 및 기 지원 충분성 3.131이 낮게 나타나는 바, 이 지표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24] 본 세미나 만족도 등 조사 종합

| | N | | 평균 | 표준화 편차 | 분산 |
|--------------------|-----|----|-------|-----------|-------|
| | 유효 | 결측 | | | |
| 유관순기존서훈등급 인지 | 200 | 0 | 2.810 | 1.2775 | 1.632 |
| 유관순서훈등급향상정부결정 인식 | 199 | 1 | 4.492 | 0.8157 | 0.665 |
| 본 세미나 만족도 | 200 | 0 | 4.170 | 0.8151 | 0.664 |
| 유관순열사인식개선 도움정도 | 200 | 0 | 4.215 | 0.8137 | 0.662 |
| 유관순열사정신 및 기 지원 충분성 | 199 | 1 | 3.131 | 1.0015 | 1.003 |

둘째,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알게 된 경로 등 홍보 관련 인식이 다. 우선,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알게 된 경로 등 홍보 관련 인식은 ‘[표 6] 유관순열사의 기존 서훈등급(3등급)을 알게 된 경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부분도 언론매체 57.0%, 포털사이트 16.3%, 역사수업 11.6%로 언론매체와 포털사이트가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표 17] 유관순열사에 대한 관람 자료’는 인터넷 설명자료 56.1%, 역사교과서의 일부 자료 27.8%로 이 부분 또한 기존 언론매체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관순 열사와 관련된 홍보 부문은 언론매체, 포털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활동을 넓히면서, 일부 다른 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행사가 인식변화에 미친 영향이다.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행사인 세미나 등이 인식변화에 미친 영향을 인식 전후로 살펴볼 때, [표 24] 행사가 인식변화에 미친 영향 종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평균 1.210에서 0.849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천안시와 정부의 종합적인 행사가 주민들의 인식변화에 매우 높은 영향을 끼치는 바, 관련 행사에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정책제안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행사가' 국민들의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및 유관순열사'에 대한 인식에 매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정부와 천안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이나 적극적인 활성화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활성화 활동들로는 '유관순열사 정신을 잇기 위한 중요한 사업' 전개, '유관순열사의 사적지 및 기념관 방문객 증대' 활동 강화 등이 판단된다.

먼저, 유관순열사 정신을 잇기 위한 사업은 '사적지보존 및 기념관 관리', '초·중·고 등학생 생가방문 활성화', '열사체험관 건립', '다양한 연구지원', '관련 장학금 마련 및 수여를 통한 활성화', '워크숍 및 세미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유관순열사의 사적지 및 기념관 방문객 증대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시설(볼거리) 건립', '보다 다양한 공연 등 볼거리 제공', '셔틀버스 운영', '시설안내자료 보급', '버스노선 조정', '이용절차의 편의성 제고', '시설개방과 이용시간의 연장' 등으로 나타나는 바, 이러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알게 된 경로 등 홍보 관련 인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관순열사관련 홍보를 위해서는 언론매체, 포털사이트, 관련 역사자료를 요약하는 등 간소화해서 홍보자료로 만들어 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

- 강인호·정준호. (2003). 수산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 분석: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6(1)
- 김병국. (1996). 지방자치단체의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설계. 「고객지향적 정부구축을 위한 민관합동 대토론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외 주최. 135-154.
- 김재홍·조경호. (1995). 지방정부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의식과 평가: 울산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4(2): 133-154. 한국행정연구원.
- 김판석·박중훈. (1996). 중앙행정기관의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공공고객만족도 조사설계. 「고객지향적 정부구축을 위한 민관합동 대토론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외 주최. 83-134.
- 박종관. (2019).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100주년 기념해사 및 유관순열사 서훈1등급 추서관련 의식결과보고서.
- 박중훈. (2000).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오세윤. (2000). SERVQUAL척도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 「정책분석평가학회 보」, 10(2): 73-90.
- 오창택. (1997). 서비스 질 구성차원의 관리 우선순위: 민원행정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변화와 행정의 쇄신」.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225-244.
- 육동일·원구환. (1998). 광역자치단체의 주민만족모형 정립을 위한 변수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2(3): 127-144.
- 이광희·홍운기. (2005).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의 측정과 활용: 만족의 불연속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보」. 39(4)
- 정재삼·임규연. (2000). 웹기반 토론에서 학습자의 참여도, 성취도 및 만족도 관련 요인의 효과분석.
- 최준호. (1997). 공공서비스정책의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대응성 연구. 「사회 변화와 행정의 쇄신」.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281-300.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1998). 「우리나라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 황아란. (2003). 행정서비스 조사방법론의 비판적 검토: 종합만족도 측정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 연구」. 9(2)
- Walton, J. (1999). *Strategic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entice-Hall.

<인물세션>

인물세션 토론문

[토론문]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의 독립군 활동 연구

- 충남 목천 출신 이장녕을 중심으로 -

장 권 영 (백석문화대학교)

김주용 교수님은 이 논문에서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장교로 복무하다가 정미조약으로 군대가 해산되자 가족과 함께 서간도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활동하시면서 수많은 독립군을 길러내셨던 충남 목천 출신의 이장녕 장군에 대하여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또한, 북로군정서 참모장으로서 청산리전투의 후방부대를 관장하여 독립군이 일본군에게 대승을 거두는데 큰 공을 세우시고, 이후에도 전만통일주비회, 한국독립당 등에서 활동하시면서 만주지역 독립운동 진영의 통합을 위해 힘써 오신 과정 등을 자세히 소개해 주셨습니다.

천일과 반일의 갈림길에서 나라를 찾기 위해 힘든 길 마다않고 이역만리로 떠나 독립군을 양성했던 이장녕 장군을 되새겨보는 뜻깊은 자리에 토론자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천안에는 유관순 열사, 석오 이동녕, 조병옥 박사 등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운동가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이장녕 장군 일가의 독립투혼과 그 희생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지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주용 교수님 논문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으며, 다만, 제가 교수님의 논문을 읽고 궁금했거나 잘 몰랐던 것에 대하여 2~3가지 간단하게 여쭙보는 것으로 토론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장녕 장군께서는 1932년 1월 24일 가산을 정리하고 관내로 거처를 이동하던 중 일제에 매수된 중국인에게 암살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말씀해주셨는데... 연안이씨 종친회 관련 사이트를 검색해 보니¹⁶⁵⁾ 장군이 암살당할

때 일가족이 모두 살해당했다고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교수님 논문에는 큰아들 이의복과 차남 이의명 얘기도 나오고, 2013년에는 손자인 이철희 씨도 만나 인터뷰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해되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부모, 조부는 물론 이장녕 장군도 서간도에서 돌아가셨고, 장군을 비롯한 일가의 무덤이 길림성 유하현, 서란현, 무송현에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무덤의 위치와 누구의 무덤인지 확인이 되는지요? 고국으로 유해를 모셔올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동아일보 1993년 11월 12일자 <5면> “이역(異域)에 잠든 항일(抗日) 선열” 기사에는 장군의 유택지로 알려진 지명 “서란시 노흑정자(舒蘭市 老黑頂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도¹⁶⁶⁾하고 있습니다.

셋째, 1983년 4월에 대덕군수 조국환이 ‘순국열사 백우 이장녕 장군 공적비’를 충남 대덕군(지금은 대전광역시로 편입된 것으로 보임)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안이씨 종친회에서 주도하여 설립한 것인지? 왜 대덕군에 세웠는지? 교수님께서 아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65) <https://cafe.naver.com/ypyalee/1233> (2019. 10. 26 검색)

166) 동아일보(1993. 11. 12자 발췌) “조사단은 이장녕(李章寧)선생의 기록상 안장지인 서란시 노흑정자(舒蘭市 老黑頂子)를 찾아 3시간 이상 차를 타고 서란(舒蘭)시정부를 방문했지만 지명은 없었다. 조사단은 한민족의 항일투쟁사를 연구한 김내전(金乃田)씨(68)를 만나 “노흑구(老黑溝)”라는 지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곳이 선생이 안장된 곳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조사단은 김씨에게 선생의 안장지에 대한 지명조사를 부탁하고 일정상 다른 곳으로 떠나기로 했다.”

<지역세션 2, 발표1>

항일운동가(양세봉) 소개 및 지역에의 시사점

왕 혜 우

요녕사회과학원



辽宁社会科学院
LIAONING ACADEMY OF SOCIAL SCIENCES

양세봉과 요동지구 중한 연합 항전

요녕사회과학원

王惠宇

- 一、양세봉 장군 소개
- 二、요동지구 중한 연합 항전
- 三、요동지구 중한 연합 항전에 대한 역사적 평가

一、양세봉 장군 소개

梁世凤 (1894-1934),
조선평안북도인. 1920년 겨울,
조선에서 중국 요녕성 흥경현兴京
县(현 요녕성 신빈만주족자치현新
宾满族自治县)으로 도망. 1920-
30년대, 중국 동북동변지구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펼친 조선혁명군
지도자이자 한국독립과 민족해방에
헌신한 항일 명장



梁世凤 (1894-1934)

- ◆ 1919년 3.1운동은 해외 한국인들의 반일독립운동을 촉발
- ◆ 1931년 “九・一八” 사변 후, 일본의 중국 동북지역 침략으로 말미암아, 중국 동북지구에서 한국인의 반일독립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함. 그래서 한국인과 중국인이 결합해 일본침략 반대투쟁을 새롭게 시작함. 양세봉은 그 중 대표적인 걸출 인물임.
- ◆ 1931년12월 흥경兴京사건으로 조선혁명당, 혁명군조직은 와해된 후 양세봉은 조선혁명군 총사령관으로 추대됨. 그후 양세봉 장군은 조선혁명군은 중국인민항일무장군과 연합해 최후의 순간까지 싸움.
- ◆ 1934년 9월, 양세봉은 일본군 밀정 박창해의 계략에 빠져 여러 대원과 함께 환인현桓仁县 소황구小荒沟에서 포위되어 치열한 전투 끝에 전사함.

二、요동지구 중한 연합 항전

1931년, 일본 침략이 발판이 된 “九・一八” 사변 발발 후, 중국 동북에서는 항일전투가 활발히 전개됐고 이는 중한 연합 항전의 분위기를 만들어줌.

양세봉은 조선혁명군을 이끌고 중국동북의용군과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동북인민혁명군과 함께 합작체계를 구축해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공동으로 대응함.

(一) 조선혁명군과 동북항일의용군의 연합

1. 요녕농민자위단 조직

양세봉이 반일독립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국 애국지사인 왕자신王紫宸과 양석복梁锡福과 친구관계를 맺음. “九・一八” 사변 후, 1932년 3월, 양세봉, 왕자신, 양석복은 부대를 이끌고 유하현柳河县에서 봉기를 맹세하고 요녕농민자위단을 조직해 왕자신이 사령관을 양세봉이 부사령관을 맡음.

이 부대의 창설은 조선혁명군과 중국항일의용연합항전의 서막이 됨.

2. 요녕민중자위군 가입

양세봉은 왕자신과 양석복과 항일연합작전을 전개하면서 원 동북군 어지산于芷山 소속 제1단 단장 당취오唐聚伍가 항일전쟁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알고 참모장인 김학규金学奎를 당취오唐聚伍가 있는 곳으로 보내 양 부대의 연합 가능성을 타진함.

1932년 4월 21일, 당취오는 환인桓仁에서 요녕민중자위군을 창설하고 동북 각지 항일무장부대를 통합할 것으로 다짐함. 이로써 조선혁명군은 요녕민중자위군 특무대로 편입됨.

조선혁명군과 요녕민중자위군이 연합한 후 청원淸原, 흥경興京 등지의 항일전쟁에서 일련의 승리를 거둠. 1932년4-8월 사이 수십 차례의 전투를 치름.

1932년 4-8월 조선혁명군 주요 전투 현황 통계표

| 시간 | 지점 | 조선혁명군 | 요녕민중자위군 | 전과 |
|-------|---------------|-------------|------------|---------------|
| 불상 | 흥경현興京縣 경내 | 대방대 | 이춘윤부대李春潤部隊 | 다수 현토심 점령 |
| 4-5월 | 흥경현興京縣 토심 | 최완구, 최화선 부대 | 이춘윤부대李春潤部隊 | 적 80여명 살상 |
| 4-5월 | 흥경현興京縣 영릉가永陵街 | 최완구, 최화선 부대 | 이춘윤부대李春潤部隊 | 고전 2일 |
| 6월 | 흥경현興京縣 부근 | 양세봉 부대 | 이춘윤부대李春潤部隊 | 3차례 현토심 점령 |
| 6월 | 청원현淸原縣 경내 | 최완구 부대 | 이춘윤부대李春潤部隊 | 만진과 10여 차례 고전 |
| 6월 | 집안集安, 임강현臨江縣 | 김광옥 부대 | 손수암부대孫秀岩部隊 | 만진과 30여 차례 고전 |
| 6월 | 환인현桓仁縣 아하雅河 | 문영찬 부대 | 5로군5路軍 | 여러 차례 만진 격퇴 |
| 7월 상순 | 흥경현興京縣 석인구石人沟 | 양세봉 부대 | 이춘윤부대李春潤部隊 | 만진 40여명 살상 |
| 7월 상순 | 무송현撫松縣 노구대老沟台 | 불상 | 미참가 | 만진 격침 습격 |
| 7월 상순 | 통화현通化縣 | 최완구, 최화선 부대 | 미참가 | 만진 80여명 섬멸 |
| 8월 | 청원현淸原縣 마기자馬砬子 | 최화선 부대 | 미참가 | 만진 36여명 섬멸 |

3. 왕봉각王凤阁의용군부대와 연합

일제가 동북지구의 항일역량을 진압하기 위해 1932년 10월 부터 , 3 만 여 명의 병사 를 모 집 해 요녕민중자위군을 “토벌” 하기 시작함.

요녕민중자위군은 큰 손실을 입었고, 통화, 흥경, 환인 등지가 차례로 일본군에 점령당함. 당취오, 양석복은 관내로 잠입했고 왕봉각과 이춘운 등은 동북지역에 남아 항전을 이어갔음.

1933년 1월, 양세봉은 흥경현 의목수依木樹에서 조선혁명군군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다음 사항을 결정

- ① 요녕자위군특무대의 명칭의 폐기하고 조선혁명군으로 회복
- ② 원래 5개로군을 3개 방면군으로 개편
- ③ 유격전 위주로 재편해 적의 주력 부대는 피하고 적의 후방 전략부서를 민첩하게 공격해 섬멸함.
- ④ 중국 동북의용군 왕봉각 등의 부대와 연합해 항일 활동을 계속 전개함.

1933년 5월, 양세봉은 부대를 이끌고 통화현通化縣 나권구에서 왕봉각 부대와 합류해 양 부대의 연합작전 문제를 협의함. 7월, 양세봉은 왕봉각 부대와 흥경현 중심을 공격해 한 차례 현성을 점령함

1934년 9월 양세봉 장군이 전사한 후에도 조선혁명군은 왕봉각 부대와 계속 항전함.

1935년 9월 20일, 조선혁명군과 왕봉각 부대는 집안현 제8구에서 “中韩抗日同盟會”을 결성함. 동맹회는 《성립선언》을 발표하고 정치강령과 조직세칙을 의결함. 동맹회는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동북을 회복하고, 조선독립을 쟁취하자”라는 구호로 중한 양국의 항일동포가 “일치단결” “국가 회복을 위해 분투하자”라는 구호를 외침.

조선혁명군은 중한항일동맹회를 통해 무기, 식량, 피복 등 보급품 부족 문제를 해결했고, 전투력을 더욱 강하게 함. 동북지역의 집안集安, 통화通化, 관전寬甸, 유하柳河, 흥경, 그리고 조선 평안북도平安北道 위원군渭原郡 등지에서 일본군과 수십 차례의 크고 작은 전투를 치름.

1936년, 일본군은 동북지역의 항일무장군을 섬멸하기 위해 항일군민을 대해 광란의 군사진압과 경제봉쇄를 실시함. 일본군의 잔혹한 “토벌” 중에 왕봉각王凤閣, 한검추韓劍秋 부대는 곤경에 빠졌고 1937年3月, 봉봉각은 희생됨. 이로써 중한항일동맹회는 해체됨.

(二) 조선혁명과 동북인민혁명군(항일연군)의 연합

1. 한국 반일독립운동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태도와 항일 통일전선정책의 제안

“九・一八”사변 후, 중국공산당은 일본의 침략전쟁에 강경하게 반대하며 중한 연합 항일을 소호함. 중공중앙은 만주성공산당위원회에 중한농민과 접촉해 유격대를 조직할 것을 지시함. 그 후 공산당의 지도하는 유격대에는 이홍광李红光, 양림杨林 등 많은 조선혁명가들이 참가함.

1933년 1월 26일, 중공중앙은 만주의 각급 당지도부와 전체 당원에게 전문을 통해 당 지도하에 항일 유격대와 기타 항일무장단체가 연합해 항일통일전선을 형성하도록 요청함.

남만南满지구에서 양정우杨靖宇가 이끄는 동북인민혁명군은 많은 항일무장단체와 결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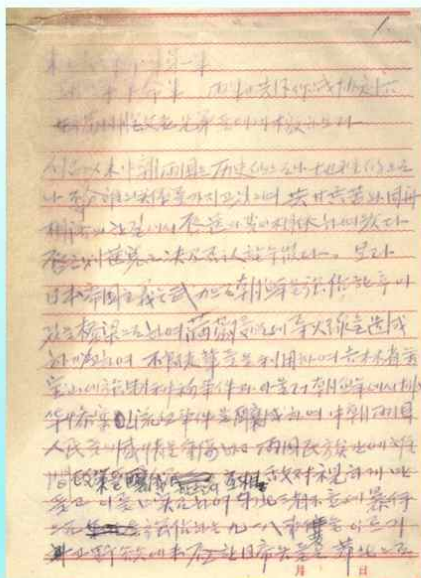
1933년 9월 18일, 양정우는 남만유격대를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 독립사단으로 개편함. 그 후 독립사단은 휘발강 남쪽을 건너 해룡海龙, 휴하柳河, 금천金川, 환인桓仁, 흥경兴京, 청원淸原 등 새로운 항일유격지구를 개척함.

1934년 2월 중순, 양정우의 지도 하에, 독립사당은 기타 16개의 항일무장단체와 연합해 임강현临江县 성장립자城墙砬子에서 회의를 개최해 《항일연합선언》을 통과시키고, 동북항일연합군 총지휘부를 창립함. 각 부대는 전원일치로 인민혁명군 투쟁강령을 공동강령으로 양정우를 총지휘관으로 추대함. 이것은 남만지구에서 항일민족이 통일전선을 형성했다는 것을 보여줌.

2.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인민혁명군의 연합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 독립사단이 요동지역에 진입한 후 이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던 조선혁명군에 큰 영향을 줌. 조선혁명군 참모장 윤일파尹一波는성장립자城墙砬子에서 개최한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 때 《항일연합선언》을 가지고 옴.

1934년 5월, 양세봉은 흥경현興京縣 쌍립자에서 조선혁명군 간부회의를 주재함. 회의에서 양정우가 이끄는 동북인민혁명군과 연합작전하는 문제를 논의함. 회의 후, 양세봉은 양정우에게 사람을 보내 연합 항전에 관해 상의함. 양정우도 양세봉에게 대표를 보내 동북인민혁명군이 조선혁명군과 연합해 항전할 뜻을 전달하고 중국공산당 항일통일전선의 주장과 방침정책을 설명함. 양 부대는 기본적으로 뜻을 함께 함.



동북인민혁명군과 조선혁명군의
연합작전협의(1935년)

조선혁명군의 합작 과정에서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의 한인 대원 한호韓浩, 이홍광李红光 등이 많은 역할을 담당함.

1934년 5월, 독립사단 부사단장 한호는 부대를 이끌고 흥경으로 옴. 한호는 양세봉과 만나 성심성의껏 얘기를 나누며 조선혁명과 중국혁명의 관계와 미래를 분석함.

그 후, 양세봉은 《재만在滿 동포 부모형제에 고하는 격문》을 발표함.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지금부터, 동북항일연군과 조선혁명군이 연합해 공동으로 대적 작전을 편친다. 확신한다, 이것은 우정의 단결이자 피로 맺은 전투의 단결이다.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동북항일연군과 조선혁명당이 이끄는 조선혁명군 사상과 신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의 목표는 같으며 어떤 이해 충돌은 없다.”

8월 하순, 이홍광李红光은 일부 독립사단을 이끌고 흥京으로 들어와 대황구大荒沟에서 양세봉 부대에 합류함. 양 부대는 합동작전을 통해 通化, 흥경興京, 환인桓仁, 무순抚顺 등지에서 10여 차례 일본군을 습격함.

두 부대가 합동 작전을 전개할 무렵인 1934년 9월 19일, 양세봉은 박창해에 매수된 산림대 수령 “압동양壓東洋”의 유인에 말려들어 살해되어 장렬히 희생됨.

양세봉 장군이 희생된 후, 김활석金活石이 조선혁명군 총사령관을 맡아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과 연합해 계속 작전을 펼침

1936년 3월부터 일본군은 《치안숙정 3년계획》을 세워 일체의 항일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동북지구를 주요 공격 목표로 삼음. 1936년 10월부터, 동북지구에 대해 “독립대토벌”을 진행함.

1937년 상반기 요동지구의 항일무장부대는 양정우가 이끄는 동북항일 연구 제1군뿐만 아니라 거의 모두 부대가 일본군에 소멸됨. 이러한 곤경 상황에서 조선혁명군 간부 박대호朴大浩, 최윤구崔允龜, 조화선趙化善이 동북항일연구 제1군에 연속해 가입함. 김활석金活石측은 30여 명의 대원을 이끌고 홀로 싸웠으나 결국 1938년 9월에 투항함. 이로써 조선혁명군은 해체됨.

三、요녕지구 중한 연합 항전의 역사적 평가

- (一) 중국 동북지역 항일투쟁에서 조선혁명군은 한국독립운동의 주요 구성 부분임
- (二) 조선혁명군과 중국 항일무장군의 연합항전은 중국항일전쟁에 크게 공헌함
- (三) 조선혁명군의 항전은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의 구성 부분임

(一) 중국 동북의 항일전투에서 조선혁명군은 한국 독립운동의 중요 구성부분임

“九.一八”사변 후, 조선혁명군은 비록 중국 항일무장세력과 연합했지만 시종 “한국독립”이라는 투쟁목표를 견지함. 조선혁명군은 이중의 역사적 사명을 걸머지고 중국인민과 동북에서 항전을 펼치는 한편 자신의 조국 해방을 위해 싸움.

조선혁명군은 요동지구 항전 시 요녕민중자위군에 반년 이상 편입된 것을 제외하면 1929년에서 1938년까지 근 10년 동안 거의 독립적으로 존재함. 중한 항일 동맹회의 정치강령 중에 “일본제국주의 타도, 동북지역 회복, 조선독립 완성”이라는 이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함.

(二) 조선혁명군과 중국항일무장군의 연합항전은 중국 항일전쟁에 크게 공헌함

“九.一八”사변 후, 중국 동북항일의용군의 투쟁은 중국 항일전쟁의 서막을 엮. 양세봉 장군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은 일찍이 이 부대에 가입해 중국인민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전쟁을 펼침.

동북항일의용군 실패 후, 다시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동북인민혁명군과 항일 연합전선을 구축했고 그 중 일부 부대는 동북항일연군에 가입해 중국 항일전쟁의 최후 승리를 거둠.

조선혁명군과 중국 동북항일무장군은 일제의 통치질서를 무너뜨리고 일본관동군을 견제해 어느 정도 일본군의 중국 관내 침략을 지체시켜 중국 항일전쟁에 크게 공헌함.

(三) 조선혁명군의 항전은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의 구성부분임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의 입장에서 보면, 조선혁명군과 중국 항일무장세력의 연합 작전은 일본제국주의 침략 하에서 억압 받는 동아시아 민족의 반제국주의 연합투쟁의 모범 사례임.

동북항일연군에 가입한 조선혁명군 대원은 1940년 말 소련 극 동 지 구 에 진 입 한 후 1942년 소련 극 동 홍 군 제88여단(동북항련교도여단)에 편입됨. 이 부대는 중국, 한국, 소련 3국이 반파시스트 전사로 구성된 국제군사합작조직임. 1945년, 이 부대는 소련 홍군을 따라 중국 동북지역을 공격했고 나아가 조선을 해방시킴. 이것은 세계 반파시스트 국가 연합 항전의 전범임.

THANK YOU !

TEL:86—13694132740

E—MAIL:huiyuwangyjh@163.com

<지역세션 2, 발표2>

윤봉길 의사 독립운동의 지역 실천 방안

강 희 진

작가, 충남토종씨앗박물관장

매헌 윤봉길의사 독립운동을 지역에서 실천하다

차례

1. 머리말

2. 지역에서의 윤의사 선양 사업

3. 뒷말

강 희 진

1. 머리말

윤봉길(1908 ~ 1932) 의사의 홍구의거는 일제 치하 40년 독립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1908년에 예산 시랑리에서 태어나 청년시절 농민운동을 거쳐, 청도에서의 독립운동으로의 전환, 그리고 상해 1 년 동안의 독립운동이 홍구의거로 나타나는 일련의 결과는 독립운동사 그리고 임시정부 회생이라는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성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침체된 독립운동 세력에게 새로운 계기와 방향성을 잡는 키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존재감이 점점 사라질 위기의 임시정부를 비롯한 ‘코리아’의 존재감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일본에게는 대한민국에 대한 불완전한 지배를 알리며 통렬한 꾸짖음을 했고, 조선인의 강력한 저항의 힘을 보여주었다. 중국에게는 부끄러움과 동시에 일제와 맞서 싸워야하는 명분을 주었다. 이 명분은 향 후 강대국들이 카이로회담을 통해 약소민족들 해방에 공통인식을 공유함에 따라 우리 민족의 해방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게 한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뚜렷했던 성과는 좌절한 민중들에게 다시 각성과 희망을 갖게 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렇듯이 윤 의사의 홍구의거는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그가 행한 의거의 직접적인 결과보다 간접적인 영향이 훨씬 크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영향은 후대에까지 이어져 지금도 윤의사의 독립 정신에 대해 활발한 계승과 선양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윤의사에 대한 학술적 논문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윤의사 사상에 대한 확장성을 가로막고 있는 경직된 박제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본다.

내가 소설을 쓴 것도 이러한 경직된 윤의사의 사상을 조금이나마 풀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이 글도 월진회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윤의사 독립정신의 계승에 대하여 설명하고 주관적인 관점에서 계승 및 선양 사업의 과제에 대해 짧게 이야기하고자 한다.

2. 지역에서의 선양 사업

윤의사의 선양 사업은 순국 직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워낙 홍구의거가 가지고 있던 사건의 비중과 국내외에 미친 영향이 크기도 했지만, 좌절한 독립운동 세력들의 각성이 필요했던 시기와 맞물려 선양이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김광의 ‘윤봉길 전’은 그와 함께 살았던 사람의 생생함이 전해져 많은 망국인들의 각성을 가져왔다. 또한 각종 언론은 물론 백범 일지를 통한 윤의사의 홍구의거 과정

은 그 뒤 선양 사업의 틀을 만들어 주었다. 이는 해방 후에도 계속 되었는데, 해방 직후 윤의사의 유해가 발굴되어 효창공원에 안장되면서 관 주도의 선양 사업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지역에서의 윤의사 선양 사업은 해방직후 김구의 예산 방문 이후 조금씩 이뤄지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한 것은 1968 년 충의사가 건립되면서라고 할 수 있다.

충의사가 건립이 시대의 소산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때부터 지역에서의 민주도 선양 사업이 시작된다는 점이다. 그 중심에는 시대에 비판적인 향토사가 윤규상이라는 개인의 노력과 헌신이 지대했다. 윤의사에 대한 자료가 모아지고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선양 근거를 만드는 한편, 윤의사를 중심으로 덕산 지역 사람들이 1929년 창립한 농민조직인 월진회를 다시 부활시키고 월진회 활동을 이어간다. 그 시대에 농민 조직도 만만치 않았는데, 하물며 농민회 활동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활동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윤의사의 농민운동 정신의 계승 활동보다는 계몽운동을 내세운 조직 자체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지만, 월진회의 부활은 향 후 선양사업의 중심축을 이루게 된다. 그런 과정 속에서 1973년 매헌 윤봉길 축제가 시작되면서 그의 독립 정신 계승과 선양 사업의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게 된다.

그 뒤부터 다양하고 폭 넓은 선양 사업이 이뤄진다.

윤의사의 생애를 보면 크게는 두 갈래로 나타난다. 그 중 하나는 농민운동이요, 또 하나는 독립운동이다. 물론 이것을 서로 분리해서 사고해야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농민운동은 신지식인으로써의 민중의 방향을 잡았다면 독립운동은 민족의식으로 민족의 방향을 트는데 기여했다고 본다.

따라서 그의 선양 형태도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의 윤의사 선양 사업은 관주도도 일부 사업이 있으나 대부분 민주도로 주로 월진회와 매헌 사랑회가 주도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시나 소설 등으로 윤의사의 독립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윤의사의 지역에서의 선양 사업은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네 가지 정도로 이뤄지고 있다. 월진회를 중심으로 한 농민운동에 관한 선양 사업, 탄신 및 순국 다례회, 윤의사 독립정신의 학술 대회와 해외 교류 그리고 요즈음에는 다양한 장르를 통한 예술적 승화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 현황은 표와 같다.

| 기관 | 사업명 | 내 용 |
|--------|---------|--|
| 월 진 | 윤봉길선양사업 | 상해의거기념 행사 (제46회) -매년 윤의사의 상해 홍구공원 의거일 (4월29일) 에 맞추어 의거 경축기념 보훈 행사로 윤봉길평화축제를 실시. |

| | | |
|---|-------------------|---|
| 회 | | 탄신기념 행사 “불꽃청년 윤봉길예술제” -불꽃청년 예술제로 청소년 지역민 중심 탄신 축하 공연 |
| | | 순국추모 행사 “불꽃청년의 밤” -매년 윤의사의 순국일 (12월 21일) 에 맞추어 월진회원과 지역 청소년들과 전통예술단체들을 중심으로 순국기념 “불꽃청년의 밤”을 실시 |
| | 동북아평화 학술대회 | 11월 초,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지역 학자, 교수 참가 동북아평화 주제 발표, 토론 (8회) |
| | 농민활동 | 생명창고 사상 심포지움 (농민독본) - 농업의 중요성과 미래의 발전 방향, 역할 등에 대해 토의, 발표 |
| | | 농민상 시상 (전국단위 농민상 시상, 활동) -윤의사 농민 생명창고 사상 실천과 농업 발전 분위기 조성 |
| | | 협동조합 활동 (월진회주유소, 청소년 체험 학습) -윤의사 농민 운동 계몽 및 잘살기 운동의 공동구매, 공동판매 |
| | 평화 연대 활동 | 중국 하얼빈 안중근기념관 MOU,상해 홍커우공원 MOU -윤의사의 의거 정신을 널리 알리면서 구체적인 평화연대 실천 -항일운동단체, 교육기관, 행정기관등과 MOU 체결등을 통한 활동 |
| | | 충남지구 민주평통 MOU |
| | | 교육기관 MOU (시량초,덕산중,덕산고,예산교육지원청,청운대) |
| | | 일본 에히메대학 평화교류 -매년 일본 에히메대학 학생과 상호 평화교류 방문 |
| | | |
| | 월진회 | 국내 (서울, 안산시흥, 전주, 대전) |
| | 지부사업 | 해외 (중국, 일본, 몽골, 미국) |
| | 청소년 인성교육 | -윤의사의 근면,도전,희생,정의,용기,책임의 덕목으로 “매헌 학교” 인성교육을 통한 청소년들의 애국정신 함양 -윤의사의 청년시절, 항일운동, 순국과정의 역사적 사실등을 체험과 놀이를 통해 인성교육 실시 |
| | 생생문화재 사업 | 문화재청 주관 충의사 사적지 활용 윤의사 일대기 (청년시절,항일운동시절,순국) 가족단위 놀이, 체험 |
| | 장학사업 | 중국 하얼빈이공대 장학생 파견(4년 전액무료 유학) |
| | | 청소년 장학금 지급 (초,중,고등학생 대상) |
| | 역사탐방 | 지역 청소년 중국(거사의 길), 일본(순국의 길) 탐방 |
| | 월진회원 예술, 언론 활동 | 윤봉길시낭송&합창단 사회공헌 사업 |
| | | 윤봉길윈드오케스트라 사회공헌 사업 |
| | | 윤봉길청소년기자단 (월진회 대전지부) |
| | 월진회 소식지 운영 | 월진회활동 소식지 발행 (분기별) |

| | | |
|---------------------|----------------|---|
| 매헌 사랑 회 | 매헌 탄신 기념 다례 | 6월 21일 탄생일을 기념하여 충의사에서 다례회 |
| | 매헌 순국 추모제 | 매년 11월 21일 윤봉길 의사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후손들이 잊지않고 이어가기 위한 순국 추모제 |
| 매헌 시낭 회 창단 | 시낭송 및 합창 | 2016년 11월 03일 윤봉길의사를 숭모하고 그 뜻을 선양하고자 모인22명의 단체로서 함께하고자 하는 시 낭송과 더 나아가 합창단을 결성 |
| 충남 문화 재단 | 뮤지컬 공연 | 뮤지컬 ‘워치’ 공연 |
| 극단 예촌 | 뮤지컬 공연 | 뮤지컬 ‘청년 윤봉길’ 공연 |
| 개인 | 평전 (이태복) | 윤의사의 독립정신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본 평전 |
| | 소설 (강희진) | 소설 윤봉길 ‘무지개 위에 별이 뜨다’ 상해 1년 동안 활동을 중심으로 홍구의거의 전모를 밝힌 소설 |

3. 뒷말

- 윤의사 독립정신의 계승과 과제 -

윤의사의 독립독립 정신의 계승과 선양사업은 지역에서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추모제부터 축제 그리고 교육, 뮤지컬, 문학 등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종류와 방법보다는 선양의 방향성에 대해 소설을 쓰기 위해 취재하면서 갖게 된 작가로써 지극히 주관적인 몇 가지 단상으로 맺음말로 대신하고자 한다.

전반적인 윤의사 선양사업의 시작은 시대적 소산이 컸다. 시대가 요구하는 독립운동가의 표상이 필요했던 시기에 윤의사가 최적화 되었고 정권은 충분히 활용했다. 그의 서사는 영웅적인 귀납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이때부터 지금의 선양 방향이 잡히기 시작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사실 윤의사는 당시 상당한 진보적 신지식인이었다. 동학사상을 받아들인 집안 분위기에서 봉건제를 탈피하고자하는 신사상을 받아들였고, 그가 꿈꾸던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동경과 실천이 이뤄졌다. 그러나 선양사업의 시작 단계부터 시작된 서사의 보수화는 그의 새로운 사상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조국과 충성’을 앞세운 독립운동가로의 방향이 잡힐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그러다 보니 정형화 된 영웅이 필요했고, 서사적 구조가 갖춰진 영웅으로 일정한 각색도 필요했다고 본다. 어쩔 수 없이 선양 방향도 그쪽으로 잡힐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그 후 수정해야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점이다. 독립운동가의 영웅화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다양한 삶을 조명하면서 괴로워 되지 않는 생활 속

의 영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도 학생들에게 윤의사는 어린 시절부터 일본인과 맞서 싸우면서 학교를 자퇴한 태생적 항일 운동가로 선양하며 그의 독립정신을 계승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장부출가생불환’을 강조하고, 그 속에 담긴 더 중요한 의미를 잊은 채 사형 후 쓰레기장에 버려졌다고 자괴하면서 우리 스스로 윤의사를 폄하하고 있으며, 암장지의 순국 기념비와 기념형식은 전통적 제례를 거부한 채 이상한 자세의 묵념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 취재 과정에서 찾아낸 우리에게 알려진 몇 가지 윤의사에 대한 오해를 말하고자 한다. 그런 오해가 풀려야 그의 독립 정신의 계승의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

1) 청년 시절의 윤우의과 몇 가지 오해

우선 호칭 정리부터 하고자 한다. 본명은 우의, 호는 매헌과 봉길이다. 매헌은 스승 성주록 선생이 지어줬다는 명호고, 봉길은 열아홉 살 무렵부터, 그러니까 그가 서당 훈장을 그만두고 농민운동을 시작하면서 쓰던 별호다.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부모님들은 반대가 심했는지 집을 떠나면서 다고 진 각오로 앞으로는 그렇게 불러달라고 부탁한 별호이다. 그렇다면 그의 호칭은 윤봉길, 또는 매헌 윤우의, 윤매헌 등으로 불러야 호칭 격식에 맞다. ‘매헌 윤봉길’이라 함은 마치 추사 김정희를 부를 때 ‘추사 완당’이라 부르는 어색함이 있다. 익숙하다 해서 어색함을 없애지 않는다는 것은 폐습을 익숙하다 해서 버리지 않는 것과 같다.

현재 나와 있는 윤의사의 모든 자료는 그가 어릴 때부터 독립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어 모든 행동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 학교 중퇴, 서당 운영과 학예회, 농촌계몽운동, 출가, 출가 중에 생긴 에피소드 등이 모두 그런 결과의 산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독립운동으로의 전환점을 간과한 결과다.

어린 시절의 독립사상에 대해 과장된 영웅 설화화가 부각됨으로써 오히려 윤의사의 중요한 독립사상이 설화가 갖는 허점으로 드러나게 되어 많은 충돌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의 독립사상 고취 등은 그가 천도교 운동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됐으면서 당시 예산에서의 천도교 항일운동에는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그렇다.

오히려 천도교와의 관계는 그가 신사상을 받아들이는 통로 정도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이는 그가 천도교의 항일 운동 보다는 당시 천도교에서 벌이고 있던 이상촌 건설에 더 관심이 많았을지도 모른다고 본다. 또한 천도교 내에서 벌어지고 있던 다양한 사상과의 접촉이 더 중요했다고 본다.

청년시절 윤봉길의 농민 운동의 방향과 이상향에 대한 접근 방식의 단조로움은 단순히 계몽운동으로 국한시킴으로써 윤의사의 농민운동이 철 지난 계몽운동으로 굳어지면서 당시 신지식인이 가졌던 고뇌와 방향을 간과하고 있다. 계몽운동이라고 단정한 몇 가지 가벼운 단서들, 예를 들어 야학이라든지, 협동사업 등을 강조하면서 정작 그가 나아가고 추구했던 세상에 대한 것은 뒤로 빠지게 된 것이다.

그는 농민세상을 꿈꿨으며 그 세상은 자유와 평등의 세상이었다. 그 세상은 민중들에 의해 만들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농민 독본에서 그렇게 밝힌 바가

있고, 이항시를 통해 그가 출가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사람에게는 천부의 자유가 있다. 자유의 세상은 우리가 찾는다. 개인의 자유는 민중의 자유에서 나아온다. (농민독본)

자유의 불꽃이 피라거든
생명의 근원이 흐르려거든
이곳이 나의 갈곳이라네. (이항시)

2) 출가의 이유

윤의사는 철저하게 농민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농민중심 사상을 통한 사회구성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의 출가는 다른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독립운동을 위한 출가도 중요하고 당연한 명분이지만, 다른 이유로의 출가를 찾아본다면 그의 사상적 폭을 좀 더 넓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는 위의 두 문구를 보면서 그의 출가는 독립운동이 아니라 그의 젊은 시절의 신지식인의 이상과 꿈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그의 출가명분인 ‘장부출가생불환’ 과도 연결된다. 사실 이 시구는 윤의사의 독립운동 결의의 심볼 키워드로 자리 잡았지만, 아쉽게도 취재 과정에서 어디에도 그 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홍구의거 이후 일경들이 시랑리 집에 들이닥쳐 뺏어갔다는 것이 전부였다. 그것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구가 윤의사의 독립운동 결의 대표적 문구로 쓰이면서 청소년 교육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윤의사의 독립운동으로의 방향 전환은 분명 청도에서 이뤄진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그가 추구했던 것은 찾는 것은 연구자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나는 그의 이항시나 농민독본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나는 차라리 그의 말대로 사람은 이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러나 민중이 곤란에 빠지고 국가가 위기에 닥쳤을 때는 과감히 이상을 접어두고 나서야한다고 가르치는 게 사람이 뜻을 세워 집을 나갔을 때 살아서 돌아오지 말아야하는 각오를 가르는 것 보다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그의 출가 이유를 독립운동으로 제한하면서 그가 추구하고 세우고자 했던 세상은 무안하게 된다.

‘장부출가생불환’ 을 과도한 의지와 독립운동으로의 전환 기점을 삼음으로써 선양사업에서 윤의사의 심볼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한다고 본다.

또한 이 출가 명분과 함께 출가 시기를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만주행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확보해내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만주 지역에서 여타의 독립운동 세력과의 접촉이나 시도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청도에서의 ‘역행’에 대해 주목받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됐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청도에서의 월진회비 반납과 逆行, 千思萬慮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월진회 반납을 그의 청렴성으로만 바라보면 그 돈을 가지고 나간 동기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윤의사의 전반적인 삶과 농민운동시절은 많은 지식인들이 만주에서 벌이고 있던 이상촌 건설과 맞물린다. 소설적 상상력을 동원하면 그는 어쩌면 월진회의 내부 결의에 의해 월진회비를 가지고 모종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만주로 떠났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실현 불가능을 접하고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았을 것이다. 당연히 월진회비를 돌려 주어야 했고 그는 그가 맞닥트린 현실이 일제하였다는 것을 다시 자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일제가 존재하는 한 그가 추구하는 이상 세계는 꿈꿀 수 없음을 자각했을 것이다. 그의 이상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제가 무너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 그는 스스로 ‘천사만려’의 고민 속에 ‘역행’의 길로 가야했을지도 모른다. 곧 월진회비 반납은 단순한 청렴성에 나온 것이 아니라 추구했던 이상세계에 대한 단절을 고하고 독립운동으로 역행하는 터닝포인트는 아니었을까.

3) 상해에서의 인맥 연구의 필요성

그는 상해에서 다양한 인맥을 만났고, 우리가 모르는 인맥을 만날 기회가 많았다. 첫 거주지 화합방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첫 직장인 그곳에서 만나 안귀생과 서상석, 백범을 중심으로 한 안공근, 엄항섭, 김동우, 이화림과의 교류는 오히려 늦게 이뤄진다. 태평촌 홍사단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홍사단원은 물론 도산과 춘산, 우당과의 교류, 고영선과 계춘건 등 다양한 사상과의 교류는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의 주변에는 늘 다양한 사상가와 실천가들이 있었다. 공화주의자는 물론 아나키스트와 사회주의자들이 그가 살던 곳에 함께 있었다. 그것이 그의 사상적 깊이를 두텁게 했을 것으로 본다. 좀 더 깊게 취재하지 못했지만, 이곳에서의 인맥을 연구하는 것은 그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4) 홍구의거는 우리 독립운동사의 커다란 한 획을 그은 것은 사실이나 갑작스런 백범의 ‘홍구의거 지시 선언’으로 이어지는 단일성은 윤의사의 독립 정신 계승과 선양 사업에 오히려 한계로 작용한 게 아니었을까.

4.29 의거는 단순히 백범과 윤의사의 단독 거사로 보기에 많은 의문이 남는다. 시라카와를 중심으로 한 일본군의 철저한 경계 속에서 그가 혼자 힘으로 4kg에 가까운 폭탄과 19m의 거리에서 투척이 가능했을까. 거사의 성공을 기원하는 간접적 지원은 없었을까. 내가 소설을 쓰게 된 동기이기도 한다.

또한 불명확한 윤의사의 거사 참여 과정이나 중국 측의 주장과 배치 폭탄 구입 과정의 불투명성과 폭탄 무게에 대한 의문, 또한 중국인들은 왜 발화 능력은 최대화했으면서 무게는 고려의 대상에서 뺐을까? 혹시 가까이 가서 던질 자신감이 있었던 것일까? 모두 소설적 상상력에 불과하지만 행사장 입장에 대한 것과 폭탄 투척의 해명 등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

1932년 초에 발발한 상해 전쟁이 싱겁게 일본의 승리로 끝나면서 4월 20일 전승기념일 발표를 전후에서 이후 많은 독립단체들이 거사를 준비한다. 24일 칩어반포일

을 거사일로 잡은 이유필과 도산의 준비, 백정기 선생을 앞세운 ана키스트 조직인 남화연맹의 정화암과 우당 선생의 4, 29 의거 준비, 백범과 연합했지만 의열단의 김홍일 선생, 그리고 중국인으로는 ана키스트 왕아초 등이 있었다. 그 외에 성공하지 못해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단체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많은 단체들의 노고와 거사의 성공 과정에서 있었을지도 모르는 각 단체간의 우단사련과 같은 협조가 간과 또는 생략되면서 단순히 백범의 지시와 수동적 거사로 치부되는, 그러다보니 일본을 비롯한 일부 극우세력들이 테러라는 오명을 씌우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지는 않았을까.

윤의사의 홍구의거와 독립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해에서의 생활과 다양한 인맥 인프라에 대한 이해 없이는 힘들다고 본다. 실제로 4,29 의거에 관여한 모든 인물들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다. 왕아초와 우당, 왕아초와 19로군의 병기청장 송식표, 송식표와 향차도, 향차도와 김홍일, 김홍일과 백범, 우당과 윤봉길, 윤봉길과 도산, 도산과 이유필 그리고 백범과 윤봉길과의 관계가 물고 물리는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 물론 한인애국단원인 엄항섭, 안공근을 비롯한 이화림, 김동우 등과의 관계도 빼놓을 수는 없다. 이들은 의거를 전후해서 매우 긴밀하게 움직인다.

홍구의거에 찾아야 할 독립정신의 계승은 이러한 다양한 세력들의 합류와 지지 속에서 이뤄졌다는 방향을 고려해야 할 듯하다. 단순한 백범의 지시, 그것도 다시 생각해볼 문제가 많지만 그것은 윤의사의 수동성만 강조될 뿐이다.

홍구의거 성공을 바라보는 내 솔직한 심정은 이렇다. 달리기를 하는 데는 함께 달리는 주자가 필요하고, 그 함께한 여럿이 없으면 첫 번째로 들어 온 주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5) 순국지의 선양사업

윤의사의 순국지와 암장지는 가나자와에 있다. 이곳에는 일본이라고 보기에 무색하게 윤의사의 기념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본인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고 그들은 윤의사가 일본 제국주의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싸웠다고 보고 있다. 물론 한 재일 교포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사실 자국의 일등 장교를 사살한 사람을 그렇게까지 허용한다는 것이 놀랍기까지 할 정도다.

그러나 그에 비하면 우리의 대응은 조잔하다. 암장이야 그렇다지만, 시신이 버려졌느니, 쓰레기장에 묻었느니 하면서 스스로 윤의사의 위상을 폄훼(?)하고 있다. 또한 순례객들이 묵념을 하려면 이상한 자세로 묵념해야 한다. 일본 장교들의 무덤이 위에 있다고 해서 우리를 산 아래를 바라보면서 거꾸로 묵념을 한다.

이곳에 윤의사가 묻힌 이유를 추측해보면 오히려 일본인들이 적국의 포로로 윤의사를 존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윤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정치적 수사를 써가면서 몰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그들의 속내는 윤의사를 적국의 군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윤의사의 홍구 의거에서 죽은 일본 장교 시라카와는 일본 전쟁영웅이었다. 일본에서 군인의 최고의 영예는 전사, 그렇기에 그들은 시라카와를 테러에 의한 죽음으로 기록할 수는 없었다. 그는 여전히 지금도 전사로 기록되고 있다. 더구나 자신이 경계 최고책임이었던 홍구공원 전승기념장에서 받은 폭탄 테러에 의해 죽었다는 것은

군인이었던 그를 비롯해 일본에게도 최고의 불명예일 수밖에 없었다.

일본의 딜레마였다. 윤의사를 테러로 몰기는 해야 했고, 시라카와의 죽음을 전사로 인정해야 했는데, 이 둘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결국 일본은 두 가지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우선 시라카와를 전사로 인정하고 일본 전쟁 영웅 묘역에 안치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윤의사를 적국의 전쟁 포로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결정은 윤의사를 공병장에서 총살하고 지금의 군인묘역 암장지로 옮겨 묻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를 일본 군인 묘역에 묻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특히 윤의사의 묘역의 바로 윗부분은 일본 전쟁영웅들의 묘역이다. 말대로 버릴 것이었으면 훨씬 버리기가 수월하고 안전한 사형장 뒤쪽 계곡이 더 적지였을 것이다. 물론 제대로 묻어주지 않았을 것은 당연하다.

그들은 윤의사를 군인으로 존중해주었던 것이다. 윤의사도 스스로 의거를 떠나기 직전 군인임을 선언하고 있다. 기록에는 없지만, 아마 신문과정 내내 그는 자신이 군인임을 내세웠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의 딜레마는 그렇다면 윤의사의 국적은 어디인가 라는 데 있었다. 당연히 일본이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때 영자신문 보도 자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KOREA다. KOREA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영문 국가 표시 명이었다. 우습지만 그들에게는 손기정은 일본인이고 윤봉길은 조선인이었다. 그들은 스스로 침략국임을 인정해야했고, 세계는 코리아의 존재를 인정해야했다는 내 생각이 소설적 상상만일까.

가나자와의 선양 사업의 기본은 여기부터 출발해야하고, 일본과의 동북아 평화 사업도 여기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내가 소설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몇 가지 단상을 적어봤다. 윤의사의 독립 정신 계승은 단순히 거사의 성공과 그 성공에 따른 영향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해주어야 하는지 분명한 명제가 정해져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것만이 사회를 바꾸려는 지식인들의 방향, 농민운동가들의 방향과 실천, 학생들의 사고의 확대 등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렇지 않으면 윤의사 홍구의거는 단순한 사건에 머무른 「고착과 박제」에 의한 행사에 머무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지역세션 2, 발표3>

독립운동의 역사, 지역을 디자인 하다.
: 중국 하북성의 사례가 충남도에 주는
시사점

박 경 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항일역사의 기억, 지역을 디자인하다: 중국 하북성의 사례가 충남도에 주는 시사점¹⁶⁷⁾

박경철 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

<발표 개요>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이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많은 민간영역의 단체에서 지난 100년 동안 이어온 독립정신과 애국정신을 기리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주, 평화,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 있다. 본 글은 중국 내 많은 항일유적지 가운데 충남도와 자매결연 지역인 하북성(河北省) 내 항일유적지 현황을 살펴보고 하북성이 항일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지역 내에서 이를 어떻게 역사적, 문화적 자원으로 활용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러한 하북성의 사례가 충남도의 항일역사의 복원과 향후 충남도와 하북성 간 교류·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중국 내 항일투쟁의 메카, 하북성(河北省)¹⁶⁸⁾

충남도가 중국 내 지방정부 가운데 가장 먼저 자매결연을 체결(1994년 10월 19일)한 하북성은 중국에서도 항일운동의 메카로 평가되고 있다. 하북성은 중국의 수도 북경과 직할시인 천진시를 둘러싸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중국 최대 곡창지대인 화북평원이 위치하고 서쪽으로는 북경에서 이어진 태항산맥이 자리하고 있다. 태항산(太行山)은 중국의 그랜드캐니언으로 불릴 정도로 대협곡이어서 그야말로 전쟁을 치르기에는 천연 요새와 같은 곳이다.

항일전쟁 시기 중국 공산당은 일제가 만주를 침탈한데 이어 1937년 7월 7일 북경 인근의 노구교(蘆溝橋)사건을 터트려 북경까지 침략하게 되자 일본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하북성 태항산 기슭에 팔로군총사령부를 설치하고 방어선을 구축했다. 하북성은 일제가 중국대륙 침탈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길목과도 같은 곳이었다. 그래서 중국공산당은 하북성이 일본군에 의해 뚫리면 중국 대륙은 일제에 의해 함락되는 것은 불 보듯 뻔했기 때문에 이곳에 팔로군총사령부를 두고 강력하게 저항한 것이다.

그런데 중국 항일투쟁의 본거지인 하북성의 태항산기슭에서 팔로군과 협력해 강렬한 무장투쟁을 전개한 조선의용대(군)의 활약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조선용대는 의열단과 조선민족혁명당을 이끌었던 김원봉, 윤세주, 최창익 등이 중국 국공합작 시기 국민당 장

167) 본 글은 충남연구원 발간 『중국동향과 진단』(2019. 3~4월호)(제24호) 「이슈와 진단」, “중국 하북성 항일유적지 현황과 시사점”을 수정·보완한 내용이다.

168) 본 글에서 중국 지명과 인명은 편의상 한자음으로 표기함.

개척 정부의 지원을 받아 1938년 10월 10일 호북성 무한에서 창립됐다. 1919년 3·1 독립운동 이후 좌절을 겪은 수많은 애국지사와 혁명을 열망한 조선의 청년들이 중국으로 망명해 조선의용대에 참여했다.

조선의용대는 창설 이후 주로 국민당 통치지역에서 항일 활동을 펼쳤으나 국민당 정부가 항일 투쟁에 소극적으로 나오자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일부 부대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으로 편입했고 윤세주 등을 중심으로 한 대다수 조선의용대원들은 공산당의 항일 근거지인 태항산으로 들어와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태항산 항일지구로 들어온 조선의용대는 하북지역과 만주지역에 많은 교민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군사력을 키워 국내로 들어와 일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해방시킬 계획이었다.

조선의용대는 무한, 중경, 계림, 낙양 등의 전장을 거치고 온갖 어려움과 곡절을 거쳐 1941년 3월 팔로군총사령부가 있는 태항산기슭으로 들어왔다. 조선의용대가 이곳으로 들어오자 주덕, 팽덕회 등 팔로군 지도부는 조선의용대를 크게 환영해주었다. 조선의용대원들은 중국어는 물론 일본어에도 정통했기 때문에 대일 항전 시 선전, 선무 활동뿐만 아니라 첩보활동에도 능해 팔로군으로서는 전장에서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었다.



조선의용대 창립식(1938.10.10. 무한)

조선의용대(군)의 이동 경로

〈그림 1〉 조선의용대(군)의 이동 경로(출처: 구글 코리아)

조선의용대는 1942년 5월 일제가 태항산 팔로군 기지를 대대적으로 침략해 들어왔을 때 팔로군과 연합해 일제의 침략을 막아냈다. 이 과정에서 중국 팔로군 총사령관 부참모장 좌권(左權) 장군과 조선의용대 윤세주, 진광화 열사가 일제의 총탄에 전사했다. 따라서 태항산은 한중 우호·협력의 시발점이자 상징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일제는 만주와 북경 침략 이후 중국 중원을 장악하기 위해 남하정책을 펼쳤지만 팔로군이 하북성 태항산에서 방어선을 구축하자 1942년 5월 일본군 20개 사단 40만 병력과 전투기 등을 동원해 태항산 팔로군 기지를 공격했다. 이에 팔로군은 조선의용대와 ‘반소탕작전’을 펼쳐 대대적인 일제의 침략에 맞서 싸웠고 그 과정에서 팔로군 총사령관 부참모장 좌권(左權) 장군과 조선의용대 윤세주, 진광화 열사가 장렬히 전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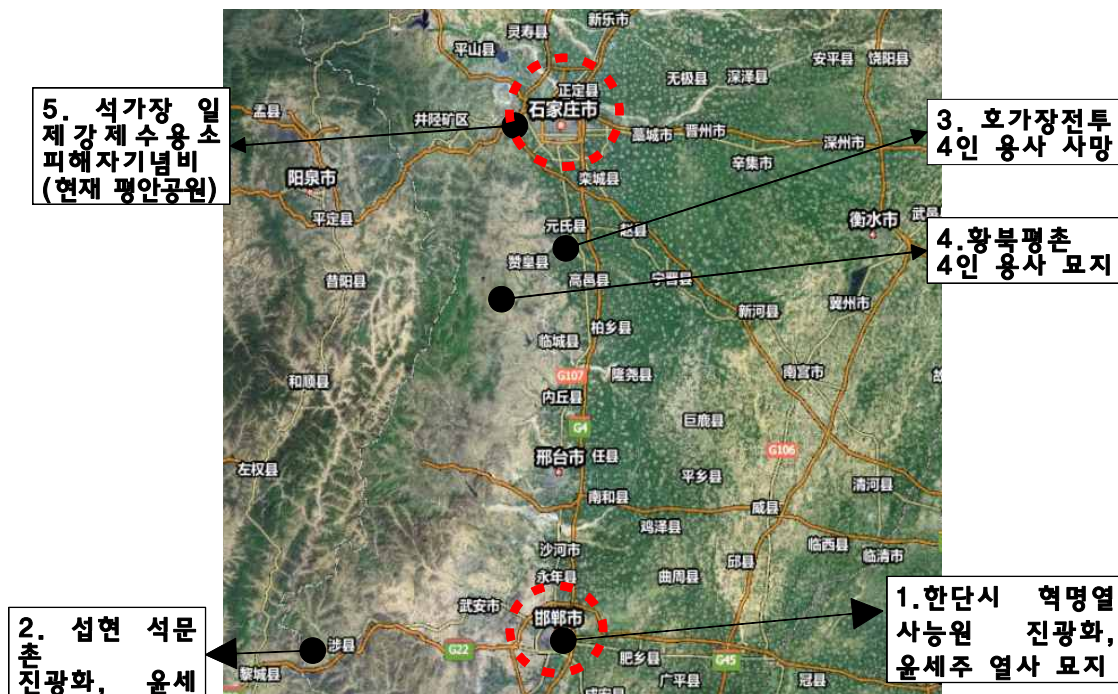
윤세주, 진광화 열사는 태항산 십자령전투에서 팔로군이 일본군에 포위되었을 때 퇴로를 뚫고 안전하게 대피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팔로군의 입장에서 보면 큰 은인이기도 하

다. 더욱이 그 팔로군에는 개혁개방을 통해 오늘날 중국의 발전을 가져온 등소평과 중국 인민해방군을 이끌었던 팡덕회(彭德懷)도 있었기 때문에 중국인민에게 윤세주와 진광화 열사 그리고 조선의용대는 큰 은혜를 준 존재였다. 그래서 중국공산당은 1950년 10월 윤세주와 진광화 열사를 우리나라 대전현충원격인 한단시 혁명열사릉원에 안장해 그 뜻을 기리고 있다.

2. 태항산지구 항일유적지, 과거와 미래를 잇는 기억의 디자인

하북성 태항산지구에는 석가장시(石家庄市)와 한단시(邯鄲市)를 중심으로 많은 항일유적지가 산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과 중국의 항일투쟁의 역사, 그리고 두 나라의 우호 협력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유적지로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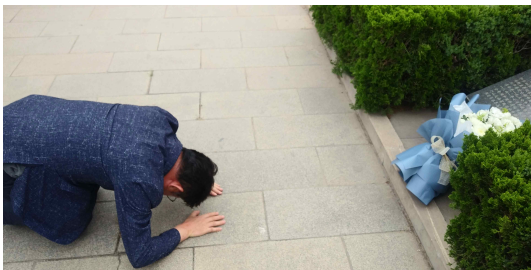
첫 번째 장소는 한단시 혁명열사릉원이다. 하북성, 하남성, 산서성, 산둥성 등지에서 항일투쟁을 했던 인물들을 모셔놓은 국립묘지이다. 두 번째는 한단시 섭현(涉縣)의 석문촌(石門村)이다. 윤세주와 진광화 열사가 처음 묻힌 곳이다. 세 번째는 석가장 원씨현 호가장(胡家庄)이다. 1941년 12월 12일 조선의용대와 팔로군이 일본군의 기습 침공에 맞서 싸운 곳으로 4명의 조선의용대 대원이 전사한 곳이다. 네 번째는 4인 용사의 묘지가 있는 석가장시 찬황현(贊皇縣) 황북평촌(黃北坪村)이다. 마지막으로 석가장시에 있는 일제강제수용소피해자기념비(현재 平安公園)이다. 이들 유적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하북성 내 중 항일유적지

① 한단시 진기로예(晉冀魯豫) 혁명열사릉원: 윤세주¹⁶⁹⁾, 진광화¹⁷⁰⁾ 열사 묘역지

진기로예 혁명열사릉원은 산서성, 하북성, 산둥성, 하남성 등지에서 항일투쟁을 하다가 전사한 열사들을 모셔놓은 곳으로 우리나라의 대전현충원과 같은 곳이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윤세주, 진광화 열사가 안장되어 있다. 열사릉원은 도로를 경계로 북쪽과 남쪽 둘로 나뉘어 있는데, 북쪽 능원에는 좌권장군의 묘가, 서편으로 진광화 동지의 묘가 있고, 남쪽 능원에는 석정 윤세주 열사의 묘가 있다. 입구에는 마오쩌둥이 쓴 “無上光榮” 혁명탑기념탑이 있다. 한중 (지방)정부 간 우호의 상징적인 곳이다.



석정 윤세주 열사 묘역



진광화 열사 묘역

〈그림 3〉 한단시 진기로예 혁명열사릉원 참배 모습(충남연구원, 2019.6.3)



열사기념당 전경



열사 기록물

〈그림 3〉 한단시 진기로예 혁명열사릉원 내 열사기념당

- 169) 윤세주(尹世胄, 1901년 6월 24일 ~ 1942년 6월 2일). 호는 석정(石正). 경상남도 밀양 출신으로 세살 위인 김원봉과 같은 마을에서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으며 이후 평생 함께 독립 운동을 하는 동지가 됐다. 그는 1919년 서울에서 3.1운동 시위에 참가한 뒤 고향에 내려와 밀양 지역 만세운동을 조직했다. 이 사건으로 일본 경찰의 수배를 받았으나 중국으로 피신했다. 만주의 신흥무관학교에서 수학과 김원봉이 그해 11월 결성한 의열단에 가입했다. 1938년에는 군 조직인 조선의용대를 창설하고 정치위원을 맡았다. 조선의용대에서 손꼽히는 이론가였던 그는 민족혁명당 편찬위원회 등에서 일하다가 1941년 김원봉과 헤어져 박효삼과 함께 화북 지방으로 복상하여 팔로군과 공동으로 일본군과의 전투에 참가했다. 1942년 40만 명의 일본군이 총공세를 벌인 태항산 전투에서 조선의용군을 총지휘하며 일군과 맞서 싸우다가 전사했다. 1982년 건국훈장에 추서됐다.(보훈처 독립유공자 정보 등 참고. 이하 인물 소개는 이와 동일)
- 170) 진광화(陳光華, 1911~1942. 5. 28). 평안남도 평양(平壤) 출신. 일제강점기인 1931년 평양상업중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으로 가 남경 오세(五世)중학교에 입학했다. 재학 당시 한국유학생남경학생회의 간사를 맡아 활동했다. 이후 1929년 조직된 한국혁명당 산하단체 철혈단(鐵血團)에 가입하여 기관지 《우리 길》을 발간했고 1933년에는 광저우(廣州)로 가 중산대학(中山大學)에서 교육학을 공부했다. 1941년 화북조선청년연합회 진기로예 지회장과 화베이지방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지도원 직책을 맡아 무장독립투쟁을 벌였다. 1942년 6월 태항산의 장자령에서 일제의 대규모 진압군과 교전하다가 일본군의 총탄에 맞아 전사했다. 1993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됐다.

한단시 진기로예(晋冀鲁豫) 혁명열사릉원 내에는 묘역뿐만 아니라 열사기념관이 있다. 여기에는 진기로예 지역에서의 항일투쟁의 역사와 이 지역에서 희생당한 항일투사들이 전부 기록해 놨다. 기념관 벽에는 이 지역에서 활동했거나 희생된 항일투사 전원에 대해 사진과 약력을 적어 알리고 있다. 그리고 기념관 한쪽에는 걸출한 국제주의 전사로 조선의용대 진광화 열사, 윤세주 열사의 기록물과 활동사진을 전시하고 있다. 태항산 지구에서 활약한 조선의용대(군)의 위상을 알 수 있게 하는 전시물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세주, 진광화 열사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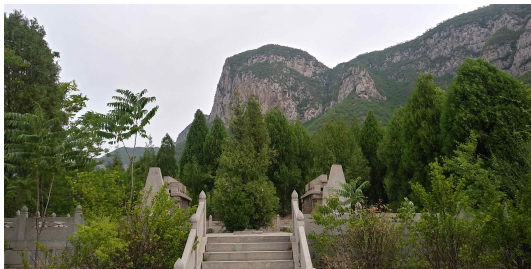


한중 협력 활동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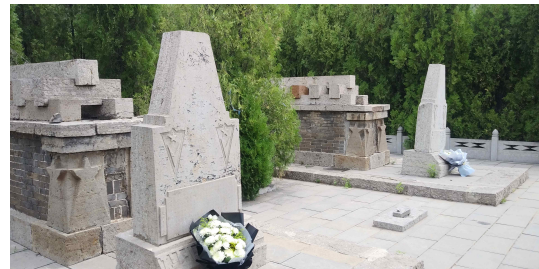
〈그림 4〉 열사기념당 내 조선의용대 소개물(충남연구원, 2019.6.3.)

② 한단시 섭현(涉縣) 석문촌: 윤세주, 진광화 열사 초장지

1942년 10월에 조성된 묘역이다. 1942년 5월 팔로군 부참모장이었던 좌권 장군과 반소탕전 당시 전사한 진광화, 윤세주 열사가 처음 안장된 곳이다. 이 묘지는 당시 모택동 등 중국의 수뇌부들이 특별히 주문해 최고의 명당자리에 터를 잡고 안장했다. 두 분의 유해는 1950년 한단시 진기로예 열사능원으로 이장됐다. 묘소 인근에는 2005년 8월 15일 개관된 조선의용군열사 기념관이 있다.



윤세주, 진광화 열사 묘역



윤환 충남연구원장 일행 묘역 참배(2019. 6. 4)



조선의용군열사기념관 전경



기념관 내 조선의용군 화북지대 활동도

〈그림 5〉 하북성 석문촌 윤세주, 진광화 열사 묘역(초장지) 및 기념관

③ 석가장시 원씨현 호가장(胡家庄) 항일전투격전지: 네 분의 독립운동가가 전사한 곳

1941년 12월 12일 조선의용대와 팔로군이 연합하여 일본군을 정탐하고 주민들에게 대적 선전활동을 하다가 일본군의 급습으로 독립운동가 박철동, 손일봉, 최철호, 왕현순(본명 이정순)이 사망하고 유명한 항일작가 김학철 선생이 부상을 입은 곳이다. 일명 호가장전투¹⁷¹⁾가 있었던 곳이다. 이 가운데 박철동과 최철호는 충청도 출신이다.



조선의용대 주둔건물



항일작가 김학철 선생 문학비(제자: 신영복)

〈그림 6〉 호가장 마을내 조선의용대 유적지

④ 석가장시 찬황현 황북평촌(黃北坪村): 4분의 독립운동가가 안장되어 있는 곳

태항산 제1군사령부소재지로, 일본군과의 호가장전투가 벌어져 팔로군 12명과 조선의용대 대원(박철동, 손일봉, 최철호, 왕현순)¹⁷²⁾이 전사하여 그들의 묘가 모여져 있는 곳

171) 호가장(胡家庄)전투는 1941년 12월 12일 중국 하북성 호가장에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와 일본군 사이에 벌어진 전투이다. 호가장은 중국 하북성 태항산 줄기에 달는 작은 마을로, 일본군이나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의 세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최전선이나 마찬가지였다. 1941년 7월 7일 조선의용대 일부는 항일을 외치며 화북(華北)에 진입하여 화북지대를 결성하였다. 그 해 12월 2일부터 김세광(金世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제2대 대원 20여 명은 호가장에 도착하여 보초를 세워놓고 민가를 빌려 잠을 잤는데, 마침 이 마을의 촌장이 이 사실을 일본군에 밀고하자 그렇지 않아도 이 부대의 무장선전 활동을 주시하고 있던 일본군은 3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마을을 포위하였다. 일본군의 습격은 12일 새벽에 시작되었다. 기습 공격을 받은 제2대는 짐을 쌀 사이도 없이 총만 가지고 집합하여 서쪽 고지를 점령하려 하였다. 일본군에 포위된 사실을 알게 된 제2대는 기관총과 소총으로 응사하면서 월등한 적의 화력을 뚫고 포위망을 돌파하였으며, 일본군은 이 전투에서 태반이 사살되었다.(출처: 문화원형백과)

172) 최철호(崔鉄鎬, 1915. 6. 19~1941. 12. 12)는 대전 출신이다. 1935년 중국 남경에서 혁명활동에 참가했고, 1938년 5월 중국 중앙육군 군관학교 특별훈련반 제6기로 졸업 후 한구지역 조선청년전선복무단과 조선의용대 제1-5전구에서 대적선전사업에 종사했다. 1940년 조선민족해방투쟁동맹과 조선의용대 서안판사처(西安辦事處) 주임에 임명됐다. 1941년 조선의용대는 적후방의 혁명 무장부대를 건립키 위해 대적선전과 유격전을 치렀다. 호가장 전투 중 적탄에 전사했으며 1993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됐다.

박철동(朴喆東, ?~1941. 12. 12): 충청북도 충주 출신이다. 1936년 중국 낙양 중앙육군 군관학교 제2기생으로 졸업했다. 1925년 7월 조선민족혁명당에 가입, 1935년 파견을 받고 화남으로 가다가 일본군에게 붙잡혀 규수 감옥에서 3년을 보냈다. 1939년에 낙양에서 조선의용대에 가입하여 눈부신 활동을 펼쳤다. 1993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손일봉(孫一峯, 1912~1941. 12. 12)은 평북 의주 출신이다. 1931년 중국 청도로 가 조선민족해방투쟁동맹의 일원으로 반일활동에 참가했고, 상해에서 한국인 밀정을 제거하는 활동을 했다. 또한 그는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 투탄 의거 공모자 중 한 사람이었다. 1940년에는 민족혁명당원으로 조선의용대에 입대

이다. 당시 호가장 마을 주민은 일본군들이 그들의 묘를 훼손할 것을 염려하여 마을에 모시지 않고 호가장에서 100여리나 떨어진 황북평촌 지역에다 모셨다. 묘지 입구에는 "조선의용군 태항산(太行山) 지구 항일전 순국선열 기념비"가 세워져있다.



4인의 용사 묘지



대전 출신 박철동 열사의 묘지

〈그림 7〉 하북성 석가장시 조선의용대 4인 용사 묘지

⑤ 석가장시 일제강제수용소 피해자 기념비(石家庄集中营蒙难同胞纪念碑
일명 “平安公園”)

이곳은 일제의 화북침략의 전진기지로 1938년에 만든 포로수용소였다. 이곳에 팔로군, 공산당, 조선인 등 5만여 명이 압송되었고 2만여 명이 사망해 석가장의 “아우슈비츠”로 불린다. 1997년 중국정부는 이곳을 <강제징용 피해자 기념비>를 조성했다. 이곳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후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에서도 참석해 한중 간 역사연대를 강화하고 있다.(2014. 4. 14)



석가장 일제 강제징용수용소 터의 기념관 징용피해자 및 후손들의 배상 촉구대회

〈그림 8〉 석가장시 일제강제수용소 피해자 기념비 및 배상 촉구 활동

하여 제1지대 제1전구 사령부에, 1941년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선임관으로서 하북 적후공작을 전개 중 호가장에서 산화했다. 1993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이정순(李正淳, 1918.~1941. 12.12)은 평북 벽동 출신이다. 1933년 중국 남경 의열단 간부학교인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를 제2기생으로 졸업했다. 그 후 의열단의 중앙당 연결 업무를 맡아 활동했고, 1936년 2월 민족혁명당 조직 검사국의 직원으로 활동했다. 중국 중앙육군 군관학교 특별훈련반을 1938년 5월 졸업한 후 조선의용대에 입대해 제2지대에 배치된 뒤 상북 일대에서 활동하다가, 1940년 남악으로 이동, 유격훈련을 마친 뒤 화북지방에서 임무를 수행 중 호가장에서 전사했다. 1993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3. 태항산맥 기슭 마을에도 항일유적지 산재

하북성 태항산지구에는 많은 항일 유적지가 존재한다. 팔로군은 1937년에 이곳에 총사령부를 설치했고 이어 조선의용대는 1941년에 이곳으로 들어왔다. 이후 팔로군과 조선의용대(군)은 일본군의 침략에 맞서 여러 곳에서 전투를 벌이는 한편 그들의 감시를 피해 주둔지를 이동해야 했다. 그들이 주둔했거나 전투를 치른 유적지는 다음과 같다.

① 한단시 섭현 마전(麻田): 팔로군 총사령부 주둔지

조선의용대와 한중연합의 항일투쟁을 전개한 팔로군총부 전선사령부(총책임 부사령 팡덕회)가 있었던 곳이다. 중국공산당 군사위원회는 중일전쟁 발발이후 제2차 국공합작이 급진전됨에 따라 1937년 8월 중국인민항일홍군을 국민혁명군 제팔로군으로 개편하고, 진남동지구(산서성 동남쪽 태항산 일대)에 팔로군 제129사단(사단장 유보승(刘伯承), 정치위원 등소평)을 배치한데 이어, 팔로군총부 전선사령부를 설치하였다.

마전의 팔로군총부기념관은 1941년 7월 마전으로 이전한 이래 1945년 8월 15일까지 팔로군 총부 전선사령부가 있었던 곳으로, 현지 지주의 저택을 몰수하여 사용하였다. 현재 기념관 안에는 조선의용군 사령원 무정의 운두저촌 관사와 조선의용군이 운두저촌 마을입구 당집누각에 한글로 쓴 항일선전구호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② 한단시 섭현 적안촌(赤岸村): 팔로군 129사 사령부

이곳은 팔로군 129사의 사령부 소재지로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되었다. 1940년 유백승(刘伯承.), 등소평(邓小平)이 소속된 팔로군 129사단이 태항산 지역으로 진격하며 진기로예(晋冀鲁豫)에 항일 근거지를 마련하였다. 129사 사령부는 12월 말 적안촌(赤岸村)으로 이전하여 이 마을 중앙 산비탈에 사령부를 설치하였으며 유백승, 등소평, 이달(李達) 등 원로 지도자들이 항일전쟁을 지휘하며 승리에 공헌을 하였다. 사령부는 1945년 12월 무안(武安)으로 이전하였다. 현재 이곳에는 당시의 혁명 문물과 자료가 진열되어 있다.



팔로군 129사단 지휘부



129사단 내 등소평 숙소 겸 사무실



팔로군 활동 모습



홍색관광상품점 입구

〈그림 9〉 한단시 적안촌 팔로군 129사단 유적지 및 기념관 전시물

③ 십자령(十字岭): 태항산 항일무장투쟁의 최대 격전지

태항산 십자령은 팔로군과 조선의용군이 합작해 싸운 항일무장투쟁의 최대 격전지다(마전반격전'麻田反击战'). 1942년 2월 일본군은 4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 태항산을 공격하기 시작하다가 5월에는 20개 사단 40만 명의 병력으로 대대적인 공격을 해왔다. 이때 조선의용군의 규모는 불과 3000~4000명 수준이었다. 일본군은 20개 사단 40만 명으로 태항산을 완전 포위한 후 전투기와 전차까지 동원, 본격적인 군사작전을 폈다.

팔로군 총사령부의 안전한 퇴각이 난감한 시점에서 퇴각의 퇴로를 열기 위한 전위부대로 30여 명의 조선의용대가 앞으로 나갔다. 여기에 평양 출신의 진광화, 밀양 출신의 윤세주가 있었다. 이들이 퇴로를 뚫는 최전위 용사들이었다. 그 퇴로가 태항산 십자령 고개이다.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는 양쪽 산봉우리 사이의 탈출로를 확보하기 위해 두 산봉우리를 조선의용군이 공격, 정부대원이 탈출할 때까지 사수하기로 했다.

조선의용대는 작전개시 5시간 만에 탈출로를 확보했다. 하지만 수십 대의 일본 비행기가 십자령의 골짜기를 향해 폭격했고, 윤세주와 진광화는 총탄과 포탄에 맞아 전사했다. 그때 그들이 탈출로를 확보해 생명을 건진 대원들 중엔 팽덕회와 등소평이 있었다. 팽덕회와 등소평은 조선의용대가 앞에서 처절한 전투로 길을 뚫어 주어 무사히 십자령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이다. 훗날, 팽덕회는 중국인민해방군의 총사령관이 되었고 등소평은 중국의 개방정책을 주도하며 아시아 역사의 새로운 물고를 텃다.

좌권 장군¹⁷³⁾ 또한 끝까지 남아 퇴각의 임무를 완수한다. 그러나 일본 비행기의 포탄에 맞아 절명한다. 부하들은 그를 전장에 묻고 퇴각했다. 하지만 잔인한 일본군은 좌권의 묘를 파헤쳐 그의 목을 베어 가지고 갔고, 중국은 아직도 좌권 장군의 목은 찾지 못했다.(중국측 주장은 이와 다소 다름)

173) 좌권(左權, 1905-1942). 황포군관학교 1기생으로 1925년에 중국공산당에 입당하여 모스크바 중산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홍군 제1군단 참모장으로서 2만5천리 대장정에서 험악한 공을 세웠다. 주덕과 팽덕회를 보좌하는 팔로군 작전참모 중 가장 젊고 탁월한 사람이었다. 주은래는 좌권을 두고 “내 인생에서 만난 사람 중 좌권만큼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군사지략가를 찾기란 힘들다”라고 했다. 좌권은 매우 지적이고 논리적이며 냉철하며 헌신적인 인물이었다.



십자령 정상 좌권 장군상과 기념각



십자령에서 항전한 열사 기념비

〈그림 10〉 태항산 십자령의 항일유적지

④ 산서성 좌권현 운두저촌(雲頭底): 무정 장군과 조선의용군의 마지막 거처지

팔로군 지도부의 지휘를 받아 조선의용군을 지휘한 인물은 무정(武亭, 본명은 金武亭) 장군이다. 그는 일찍이 3.1운동에 참가하며 항일운동을 전개하다 중국으로 건너와 중국공산당에 가입했다. 1934년에는 공산당 홍군(紅軍)의 2만5천리 대장정(長征)에 참가하였으며 이후 팔로군 총사령부의 작전과장과 중국 최초의 포병부대인 팔로군 포병단 단장을 거쳐 포병사령부 사령관이라는 중책을 맡았던 연안파(延安派)의 핵심인물이다. 이후 조선의용군이 이곳 화북으로 올라오자 그는 1942년부터 화북조선독립동맹의 산하 군대조직인 조선의용군 총사령관으로 활동하면서 항일무장투쟁을 통한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무정 장군과 조선의용군이 거쳐했던 곳은 마전에서 얼마 되지 않는 운두저촌이다. 구름도 머리 아래 낮게 내려앉는다는 마을이다. 이곳은 태항산지구 항일투쟁의 역사에서 조선의용군이 마지막으로 거쳐했던 곳이기도 하다. 당산나무가 무정 장군과 조선의용군 주둔지 앞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는 전로부터 작은 암자내지 성황당으로 추측된다.

운두저촌이 유명한 것은 마을 입구에 조선의용군이 써놓은 선전문구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다. 마을 입구 문루(門樓)에는 조선의용군이 일본군내 조선인 일본군의 투항을 선전한 문구들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왜놈의 上官놈을 싸 죽이고 총을 매고 조선의용군을 찾아오시오” 이처럼 이곳에는 조선의용군의 그때의 긴박하고 용감했던 선전활동이 생생히 남아있다.



무정 장군과 조선의용군의 마지막
거주지물



운두저촌 문루 벽에 조선의용대 가 쓴
선전문구: “애놈의 上官놈을 싸 죽이고
총을 메고 조선의용군을 찾아오시오”

〈그림 11〉 조선의용군 마지막 거처지인 운두저촌

⑤ 한단시 섭현 남장촌(南莊村): 조선혁명군정학교 옛터와 음악가 정율성 선생 근무지

남장촌에는 조선의용군 총본부이자 조선혁명군정학교의 옛터가 있다. 1943년 4월 섭현 중원촌에서 남장촌으로 이전한 조선의용군과 조선독립동맹 총본부는 1944년 9월 이곳에 조선혁명군정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교장으로 전라도 광주 출신인 정율성(鄭律成) 선생¹⁷⁴⁾을 임명하였다.

이곳 군정학교는 1945년 8월 일본군의 투항으로 조선의용군과 조선혁명군정학교가 남장촌을 떠나기 전까지 약 2년 동안 300여 명의 항일독립운동의 핵심 인물들을 양성했던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현재 이곳 건물은 마을 유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조선혁명군정학교 옛터 표지판



항일음악가 정율성 선생과 부인 정설송 여사

〈그림 10〉 한단시 남장촌의 조선혁명군정학교 옛터와 정율성 선생

174) 정율성 선생(1918. 8. 13~1976. 12. 7). 전라도 광주의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중국으로 건너와 상해, 남경 등에서 독립운동을 펼쳤고 후에 연안으로 가 본격적으로 음악을 통해 인민해방과 항일투쟁활동을 전개했다. 그 유명한 <중국인민해방군군가>를 작곡한 정율성 선생은 해방 후 북한에 가서도 <조선인민해방군가>도 작곡을 하였는데 한 인물이 두 국가의 군가를 작곡한 예는 거의 없다고 한다. 뛰어난 음악가인 정율성 선생은 일찍 혁명의 근거지인 연안에서 활동을 하다가 조선의용대가 중경(重慶)에서 이곳 태항산지구로 들어오게 되자 중공중앙에서 그를 이곳으로 파견해 조선의용대의 정착과 교육훈련을 돕도록 했다. 정율성 선생은 해방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에 남아 연안시기 알게 된 정설송 여사와 살다가 1976년 12월 7일 북경 인근에서 사망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매년 정율성국제음악제를 개최해 그의 항일정신을 기리고 있다.

6. 상무촌(上武村 洪福寺): 조선의용대 최초 주둔지

상무촌은 조선의용군의 최초 주둔지이다. 조선의용군은 이곳 상무촌의 도교사찰인 홍복사에 주둔했는데(1940년 8월부터 1942년 2월까지) 이후 일본군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어쩔 수 없이 후퇴하게 되었다. 홍복사는 원래 큰 사원이었지만 일제가 불을 질러서 지금은 작은 단층집 하나만 남아있다. 집 앞에는 '조선의용대주둔지'라고 새겨진 작은 흑판이 걸려있다.

현재 상무촌에는 현지 주민에 의해 홍복사의 일부가 복원되어 있고, 또 마을 입구에는 2002년 12월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와 중국 좌권현 인민정부가 합동으로 세운 <조선의용군 태항산지구 항일전 순국선열전적비>가 세워져 있다.

이 마을에서는 해마다 조선의용군 순국열사의 명복을 비는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또 한 마을 뒷산에는 조선의용대원의 무덤이 있다. 안타깝게도 이 묘소에 안장된 고인의 인적사항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조선의용대 주둔지인 상무촌 홍복사



마을 뒷산에 안장되어 있는 조선의용대 무명용사 묘지참배(충남농민회, 2016. 7)

〈그림 11〉 한단시 상무촌 조선의용대 최초 주둔지 및 무명용사 묘지

7. 한단시 섭현 중원촌(中原村): 화북조선청년혁명학교 위치

화북조선청년혁명학교가 자리했던 중원촌은 마을 입구에서 500미터 쯤 들어간 곳에 있는데, 생도들의 숙소로 추정되는 황토건물 일부가 남아 있다. 혁명학교의 설립취지는 화북 일본 점령지의 조선인들이 탈출해 오면 이들을 수용, 교육하고 의용군에 입대시키는 데 있었다.

화북조선청년연합회가 1942년 화북조선 독립동맹으로 이름을 바꾸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조선의용군 화북지대로 개칭한 이후 교장 무정, 교무주임 김학무 등으로 진용을 꾸리고, 5개월 과정의 정치학습과 군사훈련을 시행하였다. 중심과목은 조선 혁명사, 사회발전사, 초보적 군사학 등이었다.

학교는 낡은 절간을 수리하여 숙소 겸 교실로 사용하였는데, 학생들은 겨울에는 학습과 훈련을 하였으나 봄과 가을에는 주로 생산 활동에 나섰으며, 일하다가 일본군이 쳐들어오면 들고 있던 호미를 내려놓고 총을 잡고 반소탕전에 참전하였다.



중원촌 조선의용대 주둔 건물



항일시기 태항산지구 신화일보사 주둔 건물

〈그림 12〉 한단시 중원촌 조선의용대 주둔지

4. 충남도에 주는 시사점

올해는 3.1만세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기념사업과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이 탄생한 상해 임시정부 청사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중경에서는 광복군 청사가 복원되어 정부 차원의 기념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북성 태항산 항일근거지는 상해, 중경 못지않게 항일투쟁의 역사에서 중요한 성지이다. 이곳에서 중국공산당의 군대인 팔로군과 협력해 항일투쟁을 펼친 조선의용대(군)는 오늘날 한·중 우호협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곳에는 팔로군과 함께 항일투쟁을 펼치다 전사한 윤세주, 진광화 열사가 우리나라 독립묘지격인 한단시 혁명열사릉원에 안장되어 있고 황북평촌에는 조선의용대 4인 용사가 잠들어 있다. 뿐만 아니라 태항산 산자락과 기슭에는 많은 항일유적지들이 산재해 있다. 한중 간 피를 나누며 일제에 맞섰던 독립지사들의 역사가 남아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소홀히 하고 있지만 하북성에서는 이러한 항일역사의 기억을 하나하나 복원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하북성 항일투쟁의 성지를 그들이 어떻게 복원하고 알리는지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와의 공동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항일독립운동의 메카이다. 윤봉길, 유관순, 김좌진, 한용운, 이동녕, 이장녕, 이종일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충남도와 자매결연 지역인 하북성 또한 중국 내 항일투쟁의 메카이다. 더욱이 하북성은 중국의 팔로군과 우리의 조선의용대가 협력해 항일 투쟁을 벌였던 항일 성지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는 상해, 중경, 동북지역의 항일투쟁을 많이 알지만 태항산지역의 한중 협력의 항일유적지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다.

항일투쟁은 단순히 일제와의 싸움만은 아니다. 안중근 의사가 동양평화론에서 천명하였듯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하면 공동의 발전을 위해 평화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부단한 노력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충남도와 하북성은 공통의 역사 경험과 인식을 통해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욱이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

주년이자 충남도와 하북성이 자매결연을 체결한지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남북 화해와 교류를 통해 새로운 동아시아 평화체계 구축의 분기점에 서 있는 지금, 충남도와 하북성 두 지방정부가 앞서 항일 역사 교류·협력을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 나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국가보훈처_독립유공자 정보

북경대한국유학생연구생회(2012), 하북성 항일역사탐방 자료집.

한중항일역사탐방단(2014), 중국대륙에서 부르는 타이항산 아리랑, 차이나하우스

* 본 발표문 내용의 대부분은 필자가 하북성 태향산 항일유적지를 7~8차례 방문한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한 글이다.

<지역세션>

지역세션 토론문

<토론문>

매헌 윤봉길의사 독립운동을 지역에서 실천하다

- 강 희 진 -

토론자 ; 김 진 호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강희진 작가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발표자의 고민한 흔적들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었고 공감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독립운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가져 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게 해 주었습니다. 즉 독립운동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스며들게 하고 공감하며 생활 속에 녹아들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본고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단견들은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의견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단 견 (短 見) 들 >

발표자가 언급하신 것을 보면, 우선 호칭에 대한 정리입니다. 통상적으로 불리우는 호칭으로 ‘매헌 윤봉길’이 아니 ‘매헌 윤우의’, ‘봉길 윤우의’ ‘윤매헌’, ‘윤봉길’, ‘윤매헌 의사’, ‘윤봉길의사’ 등으로 지칭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호칭을 정리하는 기회가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매헌 ‘선생’과 천도교(동학)과의 관계 설정입니다.¹⁷⁵⁾ 천도교의 사상이나 천도교라는 종교적 신앙이 아닌 천도교가 추진하는 ‘이상촌 건설’에 대한 관심이 매헌 선생께서는 더 크지 않았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문적 논증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헌 선생이 바라던 세상은 ‘농민 세상’, ‘자유와 평등의 세상’이었다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당시의 시대적 시간적 여건하에서 최대 과제(한계)는 ‘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각자들은 독립운동에 투신하신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의 궁극적 목표는 ‘자유로운 세상’, 무엇보다도 외세의 지배나 탄압을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175) 매헌 ‘선생’이라는 용어는 학술적이나 사회적 통용어는 아닙니다. 민족 독립운동가로 ‘윤봉길’의 의미를 격하시키거나 훼손시키려는 의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면서 단지 토론자가 임의로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의미’있는 인사들을 높여 부르는 의미’로서 호칭한 것입니다.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시하신 농민독본, 이항시는 의미있는 글입니다. 또한 이는 출가의 이유와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다.

매헌 선생의 독립운동에 있어 상징어로 트렌드인 ‘장부출가생불환’의 의미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해석과 접근은 발표자의 큰 고민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집니다. 학문적 연구나 접근을 하지 못한 토론자로서는 언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심스럽게 ‘장부가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위해 집을 떠나면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의지로서 그 뜻을 이루겠다’는 뜻은 아닐지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현실적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젊은이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매헌 선생의 ‘청도에서 역행(逆行)’은 당시까지 살아 온 ‘현실적 삶으로 장부(丈夫)’가 ‘역사적 삶으로 장부’로의 전환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매헌 선생의 삶에 있어 최대 전환이고 전기(全期)를 2기(期)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이 청도에서 역행에 대한 평가나 의미는 분명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즉 ‘독립’이라는 지상 과제를 ‘체화(體化)’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구분해서 발표하신 상해에서의 인맥과 홍구 의거 준비와 실행 과정은 아직까지 학문적 접근이나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백범의 지시 선언’이라는 전제는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은 큰 돌입니다. 발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에 대한 고민이 절실합니다.

발표자께서도 지적한 것과 같이 ‘홍구 의거’는 백범 선생과 매헌 선생의 독자적이고 일방적인 지시-(동의)-실행의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 알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 인사들이 ‘독립운동이라는 거사’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여 성취하려는 과정에서 ‘백범과 매헌’이 주연한 독립운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조연’없는 ‘주연’만의 존재로는 오늘날 다양화된 우리 사회에서 생존성을 가질 수가 없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양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인들은 자신이 부각시킬 인물을 위해 ‘매헌 선생’을 인용한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발표자께서 생각한 것처럼 그들, 일본인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과연, ‘적국의 전쟁 프로’, ‘군인으로 존중’을 인정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사’를 추앙하기 위해 ‘일개 테러리스트’에게 ‘개죽음’을 당한 것을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묻어 둔 것은 아닐까요. 일반적인 ‘사자(死者)’에 대한 뒤처리로서 말입니다. 저의 편협한 인식일 수도 있습니다. 해석과 평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안들>

우선 ‘매헌 선생’과 관련한 선양 사업에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발표문 예시 선양사업을 월진회 활동, 매헌사랑회 활동, 매헌시낭회창단 활동, 충남문화재단 활동, 극단예촌 활동, 개인 활동을 구분해 상론해 주었습니다. 활동 중에는 지속적으로 전개한 활동이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일회 또는 단기적 활동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활동 간에는 통합 운영으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행사들은 자기 기관의 필요에 따라 실행함으로써 선양 사업의 전체적 조감을 통한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옥상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를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협의체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부연하자면, 서울에 있는 (사)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과의 관계 설정이나 역할 분담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크게 보아 서울의 학술 연구 - 예산의 현장 답사(실천, 행사)로 틀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파로행’보다는 ‘공존-상생’의 틀이 요망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매헌 윤봉길 의사’보다는 ‘매헌 선생’이 현재 우리들에게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이란 인간을 중심으로 시간(시대)적 공간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말합니다. 일제 식민지의 암울한 시대에 국내외의 한국민에게는 ‘매헌 윤봉길 의사’가 절실했습니다. 현재에도 아베정권의 행각에서 ‘매헌 윤봉길 의사’의 정신과 활동은 우리들의 인식을 일깨우는데 필요합니다. 또한 ‘매헌 선생’으로써 선각자인 인식과 활동, 삶에 대한 애정과 의미를 되돌아 보는 것도 의미있는 감동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유관순 열사’라는 의미 못지않게 ‘18세 꿈 많은 유관순’, ‘18세 청춘, 유관순의 삶’ 등이 젊은이들에게는 더 공감을 느끼고 가슴에 새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따라서 선양 사업도 행사의 목적이나 관점에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적 관점과 세대별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설계 운용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평화연대활동에서 예산지역을 중심으로 MOU의 체결을 타지역 독립운동가의 지역과 MOU를 체결해 교류하는 것입니다. 농민활동도 도시지역민과 함께 행사를 추진해 농업의 발전상과 구매력 확장이나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보직 합니다.

또한 세대별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많으나 기성세대나 타지역민들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개발 확충되기를 기대합니다. 조금 본지와 벗어난 사례지만, 시랑리를 중심으로 농산물 축제(사과축제 등), 김장 축제 등 도시민들

의 실생활과 관련한 축제를 충의사 앞 주차장에서 합니다. 꼭 충의사난 기념관 및 생가를 보고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만 제공하는 것에 주안을 두고 부가적으로 충의사, 기념관, 생가를 둘러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러 충의사를 찾는다는 것으로 생각을 심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양 사업을 광역 관광사업으로 확장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지역내의 관광자원과 연계뿐만 아니라 광역 관광자원으로 연결해 타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 관광 프로그램으로 등산코스로 기념관 - 가야산, 덕숭산(등반) - 덕산온천(1박) - 추사고택(일정 변경), 역사의 길로 이남규 고택-최익현 묘소-광시 시장-출렁다리-봉수산 자연휴양림(1박)-의좋은형제공원(일정 변경) 등의 다양한 코스를 개발해 홍보(군청 홈페이지, 유인물(관람지 비치), 관광회사 등 안내)가 필요합니다.

광역 관광 프로그램으로 홍성지역과 관련해 독립운동의 길로 한용운 생가-김좌진 생가-덕산온천(1박)-윤봉길 충의사(일정 변경), 의병의 길로 청양 화성-예산 광시-봉수산 자연휴양림(1박)-홍성 홍주성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론문>

“항일역사의 기억, 지역을 디자인하다: 중국 하북성의 사례가 충남도에 주는 시사점”과 관련한 몇 가지 제안

정원식

연원(燕園)연구원 책임연구원

금년 2019년은 우리 민족에게 3.1만세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신흥무관학교 건립, 그리고 조선의열단 창단 등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는 우리 선열들께서 민족독립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표, 독립 이후 새로운 국가 모습 등을 그려 나가는 그 첫 출발점이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충남연구원에서 이번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자리에 항일역사 전공자 아닌 제가, 토론자로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긴장되고 조심스럽습니다.

앞서 항일운동가 양세봉 선생과 윤봉길 의사와 관련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 두 분 박사님의 논문 발표를 통해 많이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박경철 박사님이 “항일역사의 기억, 지역을 디자인하다: 중국 하북성의 사례가 충남도에 주는 시사점” 주제로 발표한 내용과 관련하여, 실은 몇 가지 제안을 해달라는 특명을 받았습니다.

우선, 제안에 앞서 이 발표문에 제가 토론자로 참여하게 된 배경을 말씀 드리자면, 저와 박경철 박사님과는 과거 중국 베이징대학교 박사과정 유학 시 알게 되어 전공은 달랐지만 여러 면에서 인문사회과학적 사고의 코드가 잘 맞아 매일 만나서 대화와 토론하는 관계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관계를 끈끈하게 연결해준 매개체는 바로 2009년 8월 말에 박 박사님이 저에게 건네준 도올 선생이 직접 중국 대륙을 누비며 제작한 “대한독립운동사” 10부작 동영상을 통해서였습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10회 이상을 보면서, 저는 울분과 비탄에 잠기기도 했고, 또한 제가 알고 있는 역사가 얼마나 왜곡이 되었고 은폐가 되었는지 알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특히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지를 일깨워준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경철 박사(제2대 회장)에 이어 ‘북경대학한국대학원생 제3대 유학생 회장’이 되어 박경철 박사와 함께 10부작 중에 제7편 “십자령에 뿌리 의혈”편에서 언급한 지역인 중국 하북성 타이항산 일대에서 조선의용대와 팔로군(현 인민해방군 전신)이 연합으로 항일무장투쟁한 지역을 공청단 소속의 엘리트 북경대 학생과 한국 유학생 40명으로 가칭 ‘한중학생항일공동역사탐방단’을 구성하여 역사탐방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한중청년학생들 간의 뜨거운 역사연대의식과 한중 우의를 몸소 현장에서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역사탐방은 3년에 걸쳐 매년 여

를 3회 연속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타이항산항일유적지를 18회에 탐방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백문이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책을 통한 시간의 역사가 아닌, 공간의 역사에 만이 느낄 수 있는 희열과 감동이었습니다.

이후에 박경철 박사님이 박사학위를 받고 충남연구원에 자리를 잡으면서 “지난 1994년 10월 14일 충남도와 중국하북성 간의 자매결연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뭘지 모르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충남도와 하북성 간의 중국 항일역사 교류에 관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제안은 기존 충남도가 했던 것과 중복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중복된다면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기본적으로 충남도 담당부서는 중국내 하북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관계를 체계적이고 밀도 있는 연구 분석을 통해 그 중앙과 지방간의 시스템을 면밀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와 정치 행정체계가 여러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과 입장이 아닌, 중국적 시각에서 지방과 중앙을 이해를 통해 교류를 한층 원활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두 지방 간에 지역민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민간교류를 적극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충남도내 산업 및 역사문화유적지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하북성은 항일역사유적지를 프로그램으로 하도록 유도하여 실시하는 민간교류입니다. 특히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민간교류를 활성화 시켜, 이를 두 지방정부의 공무원 간 상호교류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적이 않고 매년 소수라 하더라도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하북성 지방정부 내 친충남파를 자연스레 양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방외교가 점점 비중이 확대되어 가는 시점에서 국제외교와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외교담당관으로 선발 채용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전담 및 활용한다면 일관성 있는 업무와 상대편과의 신뢰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어 상호교류 측면에서 여러 모로 효과가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정치군사 및 경제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모든 요소들이 조심스럽고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충남도와 하북성 간의 유무형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는 소중한 자산인 항일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항일투쟁에서 현 공산당 일당통치와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에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항일역사교류를 추진하여 정착시킨다면, 한중 국가 간의 우의와 신뢰증진을 선도하면서 큰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